

2018 그리스도인의 영화이야기

기독교복음사역원

메시지사역장 손 영

2018 그리스도인의 영화이야기

1. "그것만이 내 세상": Keys to the Heart
2. "1급기밀"The Discloser
3. "염력"Psychokinesis, 念力
4. "조선명탐정:흡혈괴마의 비밀"Detective K: Secret of the Living Dead
5. "골든슬럼버"Golden Slumber, 2017
6. "사라진 밤"The Vanished
7. "곤지암"GONJAM
8. "램페이지"RAMPAGE
9. "챔피언"Champion
10. "독전"Believer
11. "쥬라기 월드: 폴른 킹덤"Jurassic World: Fallen Kingdom
12. "탐정:리턴즈"The Accidental Detective 2: In Action
13. "마녀"The Witch : Part 1. The Subversion
14. "신은 죽지 않았다3:어둠속의 빛"God's Not Dead: A Light in Darkness
15. "인랑"人狼, ILLANG : THE WOLF BRIGADE
16. "신과함께2:인과 연"Along with the Gods: The Last 49 Days
17. "물괴"Monstrum
18. "공작"The Spy Gone North
19. "목격자"Witness
20. "더 낀"The Nun
21. "메가로돈"The Meg
22. "리틀 포레스트"Little Forest
23. "상류사회"High Society
24. "안시성"安市城,The Great Battle
25. "암수살인"Dark Figure of Crime
26. "협상"THE NEGOTIATION
27. "명당"FENGSHUI
28. "동네사람들"
29. "성난황소"Unstoppable
30. "도어락"Door Lock
31. "국가부도의 날"Default
32. "아쿠아맨"AQUAMAN
33. "출국"Unfinished
34. "마약왕"THE DRUG KING
35. "스윙키즈"Swing Kids

36. "보헤미안 랍소디"Bohemian Rhapsody

37. "PMC:더 벙커"ake Point

1. “그것만이 내 세상”: Keys to the Heart

한국영화, 장르:코미디,드라마 개봉:2018.01.17

감독,각본:최성현, 제작:JK필름

주연:이병헌,윤여정,박정민,

관객:2,845,951명(2018.02.05.현재)

전직 WBC웰터급 동양 챔피언 “김조하”(이병헌역)는 낮에는 전단지를 돌리고 밤에는 편의점과 만화방에서 숙식을 하는 힘겨운 생활을 하고 있다. 부모가 살아 있지만 아버지(홍석연역)는 폭력전과 기록을 남기며 교도소에 있고, 어머니는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사는지 알지 못한다. 그저 사는게 감옥이다. 낙이라면 하나뿐인 친구와 술 한잔 하며 회포를 푸는 것 뿐이다.

역수같은 비가 쏟아지는 어느날 밤, 친구와 함께 대포집에서 한잔 하려는 순간 오래전 기억속에서 사라져 버린 어머니 “주인숙”(윤여정역)을 만난다. 조하는 어머니와의 만남이 부담스럽다. 군 제대 후 지나는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후로 10년만이다. 조하는 그녀의 눈길을 피하며 비내리는 밤거리를 걸어 가고 있다. 주인숙이 조하를 따라가 마음을 잡아보려 하지만 어디론가를 향해 사라져 간다. 길을 걸어가던 조하가 우연히 교통사고를 당하는데 가해자는 재벌그룹의 딸이며 피아니스트인 “한가울”(한지민역)이다. 조하는 교통사고로 장애인이 된 한가울로부터 200만원의 교통사고 합의금을 받고 돌아 선다.

주인숙은 남편의 폭력을 피해 자살을 결심했지만 또 다른 남자로부터 생명을 구한다. 그후 그녀의 인생도 복잡하다. 지금 그녀에겐 그녀가 버릴 수 없는 장애아가 있다. 서번트증후군을 앓고 있는 “오진태”(박정민역)로 진태는 천부적인 음악적 재능을 가지고 있다. 주인숙은 “홍마담”(김성령역)의 집에서 전세로 살고 있다. 홍마담에게는 고3딸 “변수정”(최리역)이 있다. 수정은 공부보다 진태와 함께 게임을 즐기거나 라면을 끓여 먹으며 연인으로 다가가고 있다. 피아노와 게임광인 진태는 짜파게티와 라면을 잘 끓인다. 고3딸을 가진 홍마담이 주인숙을 부르고 진태의 피아노 소리가 딸의 학습에 방해된다고 조용히 하라고 하지만 대화가 잘 통하지 않는다. 그래서 홍마담이 계약기간이 끝나가니 방을 빼달라고 하고 주인숙은 들은채 만채 신경도 쓰지 않는다.

그러던 어느날 갈 곳을 잃은 조하가 주인숙의 집으로 들어왔다. 집없이 떠돌던 생활을 청산하고 나름대로 새로운 등지를 맞은 것이다. 그러나 그에겐 여전히 어머니와 동생이 낯설다. 진태는 서번트증후군을 앓고 있어서 새롭게 등장한 조하형이 더욱 낯설고 적응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조하의 방을 침범했다가 KO패를 맞고 기절

해 버린다. 조하는 여전히 낮엔 전단지를 돌리고 저녁엔 다른 일거리를 찾아 보지만 여의치 않는다. 진태와 수정이 게임에 몰두하고 있고 이들의 틈바구니에 끼여 들어 조하가 진태와 킥복싱 게임을 겨뤄 보지만 KO패를 당한다. 이렇게 서로를 조금씩 연결해 주는 고리로 게임과 수정이 있다. 거리감이 여전한 주인숙과 조하도 조금씩 거리를 좁혀가며 엄마와 아들의 관계로 좁혀지고 있다.

주인숙이 병원에 암 검사가 있어서 진태를 볼 수 없었던 날, 조하에게 진태를 복지관에 데려다 줄 것을 부탁하고 조하가 진태를 복지관에 데려간다. 버스를 기다리다가 진태가 대변이 급해서 남의 아파트단지 공원에서 볼 일을 보고 이 일이 커져서 경찰서에 연행되는 일이 발생한다. 병원을 다녀온 주인숙이 귀가했을때 조하와 진태는 보이지 않고 복지관에도 오지 않았다는 소식에 조바심이 나 있다. 밤늦은 시간에야 돌아오는 조하와 진태를 바라본 주인숙이 조하에게 진태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면서 어디서 어떻게 살았는지 험담을 퍼붓는다. 어머니에게 한번 버림을 받았던 조하는 상심에 빠지고 술로 달래며 귀가를 한다. 인생은 늘 꼬인다. 진태가 노상방뇨를 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한 오늘의 진실을 모르는 주인숙의 눈에는 오직 진태만이 보일 뿐이다.

주인숙이 병으로 한달간 자리를 비우게 되고 그 일로 주인숙이 다시 조하에게 진태를 맡기고 간다. 주인숙은 차마 조하에게 맡기암이라는 이야기를 하지 못한다. 지금 일하는 곳에서 부산에 지점을 내어 한달간 그곳에 가서 일하게 되었다고 거짓을 말한 것이었다. 조하는 진태를 데리고 나가 전단지를 돌리게 하고 그러다 다시 진태를 놓치게 되는 일이 다시 발생한다. 진태는 길거리 피아노 연주를 하며 모든 사람을 감동케 한다. 멀리서 이 장면을 바라본 조하는 진태의 피아노 솜씨에 매력을 느끼지만 그가 거두어 들인 수익금에 더 많은 관심이 있는 듯하다. 다시 나간 전단지 돌리기에서 오늘도 진태는 어디론가 사라졌다. 진태의 옷이 헤어져 진태의 옷을 사러간 사이에 사라져 버린 것이다. 조하는 진태가 집으로 간 것은 아닌지 궁금해서 집으로 갔을 때 주인숙이 집에 잠간 들리게 되었다. 진태를 잃어버렸다는 말에 주인숙은 억장이 무너진다. 주인숙에게 집에 있으라고 했지만 그녀는 진태외에는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결국 음반판매점에서 진태를 발견한 조하가 진태에게 손찌검을 하려할 때 마침 주인숙이 들어와 조하를 때리며 또 다시 상처를 준다. 길은 늘 엇갈린다. 잘해 보려 하면 또 다시 오해가 생기고 그 오해로 상처의 골은 더욱더 깊어만 간다. 주인숙은 진태를 내 버려 둔 채 조하가 자신의 쇼핑에만 관심을 가졌다고 생각하지만 모든 것은 언제나 주인숙의 오해다. 그녀에게 조하는 보이지 않는다. 그저 서번트증후군을 앓고 있는 진태만 보일 뿐이다.

조하는 어머니 주인숙의 태도와 얼굴에서 무엇인가 수상한 점을 발견하고 끝내 암에 걸린 어머니를 발견하게 된다. 엄마가 자신을 버렸을 때 조하는 중학생이었다.

스스로에겐 엄마가 꼭 필요한 나이였다. 엄마가 나간후 아버지가 술을 마시고 들어왔을때 조하는 만화방에서 하루밤을 연명했다. 그리고 아버지는 감옥에 갔다. 그후로 조하는 집도 없이 거리를 떠돌며 방황하는 고아가 된 것이다. 모든 것이 두려워진 조하는 캐나다로 떠날 결심을 굳힌다. 캐나다로 갈 비용마련을 위해 고민하고 있을 때였다. 주인숙이 진태가 피아노 콩쿨대회를 나갈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고 조하는 상금 이야기에 관심을 갖고 콩쿨대회에 나갈수 있도록 도와준다. 교통사고 보상금으로 모든 관계가 끝난 한가울을 다시 찾은 조하와 진태가 출입구에서 퇴짜를 맞고 돌아 서려는 순간 진태가 거실에 놓여 있는 피아노를 두드리며 한가울의 마음을 사로 잡는다.

천부적인 재능을 가진 진태가 우여곡절 끝에 콩쿨대회에 나가지만 심사위원장의 편견에 의해 탈락이 된다. 상금을 놓쳐버린 조하는 미련을 떨쳐내고 캐나다행 비행기 티켓을 구매했다. 그리고 그는 인천공항에서 탑승을 기다리고 있다. 그때 티비화면에 등장한 익숙한 얼굴은 진태다. 진태가 "불가능,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 하나의 의견일 뿐이다"라고 말한 조하형의 이야기를 하며 갈라쇼에 참가하는 이유를 말한다. 캐나다행 비행기는 이륙하고 조하는 병원에 입원중인 어머니를 모시고 갈라쇼장으로 향한다.

딸이 다시 피아노를 연주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활력을 찾은 회장(문숙역)은 심사위원장을 다그쳐 갈라쇼에 진태를 출연시킨 것이다. 피아노 갈라쇼에서 감동적인 피아노 연주를 보여준 진태는 모든 관객들로부터 기립박수를 받고 생애 마지막으로 주인숙은 아들의 천부적인 연주를 관람하게 된다. 그렇게 주인숙은 장애아들 진태를 조하에게 맡겨두고 세상을 떠난다. 형을 좋아하게 된 진태는 이제 엄마 대신에 조하형이 있다. 삶은 늘 그렇듯이 기회도 있고 희망도 있다.

영화는 끝이 났다. 감동도 있고 웃음도 있고, 인생도 있다. 상처로 얼룩진 인생에 희망을 버리게 한것도 엄마고 희망을 다시 찾게 해 준 것도 엄마다. 엄마는 그렇게 아들을 사랑하는 엄마일 뿐이다. 폭력 남편을 피해 자살을 결심했지만 그도 쉽지 않은 세상에서 엄마는 살아간다. 엄마에게 잘못이 있다면 남편을 잘못 선택한 것이다. 그 뿐이다. 그녀에게 돌을 던질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다. 그녀가 병을 앓게 된 것이 마음 아플 뿐이다.

그리스도인은 영화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 인생은 언제나 우리를 낙망에 빠뜨린다. 기대는 무너지고 배신감만이 쌓여 빙하가 된다. 갈곳 잃은 조하의 삶을 바라보며 그래도 그가 기댈 수 있는 엄마가 살아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이었을까? 엄마가 일시적으로는 조하를 버렸지만 세상을 떠나기전에 작은 전셋집이라도 맡겨둔 것은 조하에게 베푸는 마지막 사랑일 것이다. 좌절과 절망속에서 분노로 가

득한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을 찾아야 한다. 조하의 엄마보다 더 많은 사랑과 은혜로 절망의 나락에서 건져 올릴 것이다. 조하는 엄마가 떠난후 진태의 보호자를 자청했다. 진태를 짐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동생으로 받아 들이게 된 것이다. 이것이 사랑이고 진심이다. 예수님의 사랑과 진실을 아직 모른다면 그 죽음과 부활을 이해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진실을 배우고 경험해야 할 것이다. 조하는 엄마로부터 매번 상처를 입었지만 더 이상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았다. 갈 곳이 없어서가 아니라 엄마를 잃고 싶지 않아서다.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 분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 분의 손을 놓지 않아야 할 것이다.

2. "1급기밀" The Discloser

한국영화, 장르:범죄,드라마 개봉:2018.01.24

감독:홍기선, 제작:미인픽처스

주연:박대익,김정숙,최무성, 관객:213,499명(2018.02.05.현재)

1. 방산비리 폭로와 관련한 내부자 고발

2002년3월, 차세대 전투기 사업명 "F-X사업"의 공군시험평가단 부단장 "조주형" 대령은 국방부 핵심인사가 미국 정부가 지원하는 F-15K을 선택하고 시험평가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제보하였다. 이 제보는 당시 미국 내에서 사실상 단종된 F-15K 선정에 압력을 넣은 사실과 국방부가 평가기준을 조작하려 했다는 사실이 폭로되었다. 그러나 국방부는 조주형 대령을 F-X기종선정 발표직전에 군사기밀 누설 혐의로 기소해 1심에서 징역 3년형, 대법원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형이 확정되었다. 진실을 규명하고자 하는 내부 고발자의 용기에 대하여 처벌이 주어지는 아이러니가 발생한 것이다. 2006년, 현역 해군장교인 "김영수" 소령은 육해공군 통합기지인 계룡대 근무지원단 간부들이 9억4천만원을 횡령한 정황을 군 수사기관에 신고하였으나 수사불가와 혐의없음이라는 답변을 들었다. 그후 국고 손실을 확인한 후에도 관련자에 대한 징계는 이루어 지지 않았다. MBC-PD수첩 방송(2009년 10월)후 재수사가 벌어졌고 현역 해군간부와 군무원 등 31명이 사법처리 되었다. 그러나 김영수 소령은 배신자로 낙인 찍혔고, 2011년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훈장이 수여되었지만 스스로 전역을 선택하였을 정도로 심적 부담이 매우 컸다.

2. 영화 "1급기밀"

야전부대 지휘관으로 오랜 근무를 하던 "박대익"(김상경역)중령은 국방부 군수본부 항공부품구매과장으로 발령을 받는다. 군수본부장인 "천장군"(최무성역)의 오른팔인 "남선호"(최귀화역)대령과 동기인 박대익 중령은 천장군의 총애속에 승승장구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천장군과 "강장군"의 골프회동에 초청된 박대익 중령은 인사참모본부장으로부터 즉석에서 대령진급 대상자에 오르는 등 수직 급상승의 날개를 달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날 공군 전투기 파일럿 "강영우"(정일우역) 대위가 경쟁사 부품업자를 대동하여 동석한 자리에서 전투기 부품공급 업체 선정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였다. 박대익 중령은 사무실로 돌아간 자리에서 부품구매 서류를 확인하던 중 특정 구매물품에 미국의 에어스타가 독점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에어스타의 "캐서린"(유선역)은 미국방부와 한국의 국방부를 연결하는 로비스트다. 예비역 장성들로 포진되어 있는 방산비리문제는 정관계로 거미줄처럼 퍼져 있어서 한번 터지면 대수술이 불가피한 것이었다. 에어스타의 부품 가운데 어떤 제품은 단종되지 이미

5년이 지난 제품도 있었다. 부품가는 더욱더 가관이었다. 최저 20배에서 최대 420배에 이르는 납품가 부풀리기는 상상할 수 없는 비리 백화점이었다. 이러한 사실을 항공부품구매과 직원들에게 이유를 물어 보았지만 오히려 박중령은 “황주임”(김병철역) 등 직원들로부터 왕따를 당한다. 비리 사실을 폭로하여 국고손실을 막겠다는 정직한 행위였지만 박중령에게 돌아온 것은 비난의 화살이었다.

같은 시기, 강영우 대위가 불량부품으로 얼룩진 전투기로 인하여 추락사고를 당하여 중태에 빠지는 일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진실규명을 외면한 채 남선호 대령을 중심으로 조종사 과실로 사건을 은폐하는 과정을 눈앞에서 지켜본 박중령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표정으로 충격을 받는다. 군 검찰수사본부 “정인국”(신승환역) 검사와의 비밀면담에서 이러한 사실을 폭로한 박중령은 보다 구체적인 정황증거와 함께 방산비리를 추적하는 “PD25시”의 “김정숙”(김옥빈역)기자와 접촉한다.

모든 조사가 끝나고 방송에 나갈 무렵 아내와 딸 “시원”(이지원역)의 집을 찾아온 군 검찰단이 박중령의 집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날마다 협박전화를 일삼고 있다. 결국 아내와 딸은 친정으로 가고 박대익중령은 한직으로 발령받는 등 외로운 전쟁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방송은 중단되고 군 검찰수사와 정인국 또한 외국으로 발령을 받아 전출되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위기는 기회가 된다.박대익 중령과 김정숙 기자는 캐서린의 비서로부터 로비스트 내역을 입수하고 천장군으로 하여금 함정에 걸려 들도록 유도하였다. 예상대로 천장군이 함정에 걸려 들었고 자신의 입으로 비리의 존재가 있었음을 시인하는 우를 범한 것이었다. 결국 이 내용은 MBS전국방송을 타고 만천하에 공개 되었고 방산비리의 실체가 그 모습을 드러 내었다.

영화는 끝이 났다. 현실은 영화와 달리 그 민낯을 아직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그제의구심만이 여전할 뿐이다. 천장군은 자기 사람들에게 늘 식구라는 말을 하였다. 자기 식구들을 챙기고 보살펴 주는 지극 정성은 믿음이었지만 그 믿음은 잘못된 믿음과 충성이었다. 그리스도인은 이 영화에서 무엇을 느꼈을까? 그리스도인들도 “식구”를 많이 강조한다. “새가족”, “가족”이라는 단어를 어렵지 않게 사용한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가족을 만나기란 쉽지 않다. 용서와 화해와 관용과 배려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듯이 그만큼 용서와 화해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현대교회는 많은 것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 빛을 발하기 보다는 어둠을 비출때가 있고 소금맛을 내기 보다는 부패한 냄새가 코를 진동할 때도 있다. 내부 고발자가 나서서 교회를 비판하고 폭로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다. 진정 회개의 손길과 자성만이 지금의 교회가 해야할 가장 시급한 과제가 아닌가 싶다.

3. “염력”Psychokinesis, 念力

한국영화, 장르:범죄,드라마 개봉:2018.01.31

감독,각본:연상호, 제작:(주)영화사 레드피터

주연:류승룡,심은경, 관객:882,479명(2018.02.05.현재)

은행 경비원으로 일하는 “신석현”(류승룡역)은 과다한 부채로 인하여 아내와 딸을 남겨두고 어디론가 사라진 채 이혼을 하였다. 석현의 딸이며 청년사장인 “루미”(심은경역)는 엄마(김영선역)와 함께 “청양고추치킨”을 운영하고 있다. 몇 년이 지난후 이곳은 유명건설회사가 인수를 하여 도시재개발지역으로 변모하고 하나씩 철거가 진행중이다. 어느날 철거용역들이 마지막 남은 상가에 진입하고 상가안에서 잠을 청하던 루미가 위기에 처하며 누군가에게 전화를 한다. 때마침 루미의 엄마가 봉고를 몰고 들어오고, 철거용역들과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차에서 떨어진 엄마가 뇌진탕으로 결국 사망한다.

그시간 하늘에서는 혜성 하나가 산속으로 떨어지고 그곳에서 나온 빗줄기가 뒷산 약수터에 이르렀는데 바로 그순간 신석현이 물을 마시고 있다. 그 물을 마신 신석현이 배앓이를 하고 불편한 속을 이끌고 출근길에 선다. 신석현은 은행 고객을 위해 쌓아둔 봉지커피를 하나씩 하나씩 경비실에 갖다놓고 청소부 아줌마에게 한잔씩 서비스한다. 청소부 아줌마가 신석현이를 따라 커피를 가져가다가 은행직원에게 덜미가 잡혀 꾸지람을 듣고 있다.

수년동안 연락이 끊어진 루미가 신석현에게 전화를 하고 신석현은 낯선 장례식장에 들어선다. 그 때 마침 장례식장에 철거용역 “민사장”(김민재역)이 용역깡패들과 함께 나타나고 분노한 루미와 상가 사장들이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선다. 민사장이 위로금을 전달하려 하지만 루미가 돈봉투를 집어 던지며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고 비웃는 듯한 얼굴로 되돌아 장례식장을 빠져 나간다.

퇴근길 편의점앞에서 소주 한병을 마시다가 배앓이를 하던중 어디선가 나타난 바람에 의해 야외용 의자가 넘어가는 일이 발생한다. 집으로 돌아온 신석현이 담배 한 개를 꺼내어 입에 물고 라이터를 찾는 순간 손에 잡히지 않는 곳에 있는 라이터를 바라보자 라이터가 저절로 신석현의 손안으로 들어온다. 스스로도 놀라버린 염력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은행경비실에 조기 출근을 한다.

은행경비 선임으로부터 나이트클럽 마술사가 하루에 수백만원을 번다는 얘기를 듣고 나이트클럽 사장을 찾아가 새로운 일자리를 마련한다. 루미의 생활환경이 염려된 신석현이 루미를 찾아가 학교도 다니고 아빠와 함께 살자고 말해보지만 루미는

돈금없는 아빠노릇에 질색하며 손사래를 친다. 이미 대부분의 상가들이 철거하고 상권도 사라진 이곳에서 그들과 싸워서 이기지 못한다고 루미를 설득하려 하지만 결국 실패하고 길을 돌아선다. 신출래기 “김정현”(박정민역) 변호사는 이러한 일에 변호사가 필요하다면서 나서 보지만 모든게 역부족일 뿐이다.

그러던 중 용역강패들이 다시 상가 사무실로 들어 닥치고 이 광경을 바라보던 신석현이 딸을 구출하기 위해 염력으로 용역강패들을 일순간에 제압해 버린다. 상가 사람들은 염력을 가진 신석현을 보호막으로 삼으며 기대가 부풀어 올라있다. 이 일로 경찰서 지구대에 잡혀간 용역강패 일당과 상가사람들이 상호 옥신각신하다가 별다른 혐의점없이 서로 헤어진다.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민사장이 “홍상무”(정유미역)에게 불려가 수하들로부터 폭행을 당한후 일사천리로 일을 처리해 나간다. 휴가를 낸 신석현이 상가사람들과 함께 대치국면에 있을 때 경찰 두명이 와서 신석현을 연행해 간다. 루미의 엄마를 죽인 가짜 용의자가 나타나 자수를 하고, 그 사이 민사장은 경찰들과 용역강패들을 모아 불도저와 함께 상가 진압에 나섰다. 무방비의 상가 사람들이 저항을 해보지만 역부족이다. 이때 홍상무가 경찰서에 연행되어 있는 신석현을 만나서 매혹적인 제안을 하고 신석현은 그 제안을 거절해 버린다. 유치장에 수감된 신석현이 루미의 현장을 급습중인 뉴스를 보게 되고 자신의 염력으로 유치장을 탈출, 빌딩 유리창을 깨고 땅위에 헬리콥터처럼 내려 앉아 홍상무의 차량을 종이조각처럼 구겨 버린다.

신석현은 브레이크 없는 비행선처럼 좌충우돌하며 하늘을 날아 오른다. 빌딩과 충돌하며 루미가 있는 곳을 향하는 신석현의 몸은 아마추어 수퍼맨이다. 도로위에서 차량들과 충돌하며 가는 사이 루미와 상가사람들은 궁지에 몰려 경찰들에게 물매를 맞고 있다. 때마침 신석현이 도착하고 경찰들과 용역들을 일거에 제압한다. 루미가 경찰들에게 체포된 후 벼랑끝에서 떨어지는 “김씨”(유승목역)와 루미를 극적으로 구해낸다.

상가사람들을 모두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킨 신석현은 경찰들에게 자수하며 엔딩을 띄운다. 감옥에서 수년을 살고 만기출소한 신석현 앞에 김정현 변호사가 차를 세운다. 신석현을 태운 김정현 변호사가 루미와 결혼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루미의 사업장으로 인도한다. “초능력치킨”으로 이름을 바꾼 루미의 가게에는 사람들이 북적인다. 500cc잔을 염력으로 옮기는 신석현의 미소를 바라보며 루미의 행복은 이제 부터가 시작이다.

영화는 끝이 났다. 코리아 수퍼맨을 연상케하는 신석현은 우리 시대의 진정한 보통사람이다. 보통사람이 염력을 통하여 권력을 가진자들과 맞서서 싸우는 장면은 흥

길동전과 같다. 가난하고 힘없는 자가 가진 열력은 폐지나 주워 모으는 데 사용하라는 홍상무(부자들)의 말은 충격적이다. 그리스도인은 열력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신 것처럼, 선지자가 나타나 세상을 개혁해야만 하는 것일까?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모세와 같은 능력을 보여 주어야 할까? 혼돈의 시대, 뒤튼어진 문화와 세계속에서 그리스도인은 복음이 최우선이다. 열력은 힘이지만 복음은 구원이다. 열력은 능력이지만 복음은 영생이다. 이제 그 영원한 능력을 발휘해 줄 예수 그리스도앞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이다.

4. “조선명탐정:흡혈괴마의 비밀”Detective K: Secret of the Living Dead

한국영화, 장르:모험,코메디 개봉:2018.02.08

감독:김석윤, 각본:한중애,조은이,이남규, 제작:청년필름

주연:김명민,오달수,김지원, 관객:2,076,068명(2018.02.18.현재)

조선제일의 명탐정 “김민”(김명민역)은 영의정 “김신”(박근형역)의 아들이다. 그의 파트너로는 “서필”(오달수역)이 있다. 광대들의 놀이판이 가는 곳마다 사람이 죽는 일이 발생하자 김민은 흡혈귀의 짓이라 판단하고 잠복해 들어가지만 광대 대표의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려 남의 피로 연명하던 것이었음이 들통나고 사건은 일망타진 되었다.

알 수 없는 불에 타죽는 미스터리 사건이 발생하자 “최재희”(김정화역)가 김민을 찾아와 사건을 의뢰한다. 누군가 무덤을 파서 그 안의 시체에 피를 쏟아 붓는다. 뒤쫓는 관군을 유인해 그녀를 부활시켜내는 것을 성공하는데 그녀의 이름은 “여주”(김지원역)다. 여주는 자신이 누구인지 이름도 나이도 모른채 알 수 없는 괴력을 발휘한다. 김민은 범인을 찾기 위해, 여주는 자신의 기억을 찾기 위해 두사람은 한 팀을 이루며 수사를 하기 시작한다. 김민을 보호하는 “방씨”(우현역)는 김신이 보낸 호위 무사이지만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여주는 김민과 함께 또 다시 불에 타죽은 사람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평민의 나라를 꿈꾸는 “세자”(현우역)를 제거한 세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신출귀몰한 의문의 괴마 “흑도포” “정인율”(이민기역)은 김신과 둘도 없는 친구사이였다. 그런데 김신의 부친이 정인율의 부친을 역모로 몰아 제거해 버린다. 이 사건으로 정인율이 왕세자비인 여주와 어린 아기를 보호하는 과정에서 존비들에게 물려 죽고 왕세자비 또한 어린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 죽음을 선택한다. 그 아들이 성장하여 어머니를 부활 시키는데 성공하고 자신은 또 죽음을 맞이한다.

원한과 원한에 사로 잡힌 흑도포는 김신과 그 일당을 제거하기 위해 괴력을 발휘하고 김신은 비밀검객 “천무”(김범역)를 창과 방패로 사용하며 이들을 역추적하고 있다. 김민과 여주와 서필이 사건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부친인 김신이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김민은 부친에게 사실을 밝혀 사죄하기를 원했지만 김신은 오히려 김민을 감금해 버린다. 흑도포가 중무장한 김신의 사저를 공격하고 호위무사들을 일거에 제거한다. 마지막 남은 천무까지 날려버린 흑도포가 김신을 제거하려 하자 김민이 앞에 서서 막아서고, 흑도포가 김민을 제거하려 하자 여주가 앞을 막고 그의 길을 멈춘다. 흑도포는 여주의 불에 죽음을 맞이하고 여주 또한 떠오르는 햇살을 바라보며 흔적없이 사라져 간다. 사건의 모든 전모를 알게된 왕(남성진역)이

그를 사사하는 꾀를 꾸미고 김민은 왕의 비밀특사로 재탄생하며 서필과 다시 뭉친다.

영화는 끝이 났다. 새로운 세상은 도래하지 않았다. 그러나 어둠에 가려진 진실은 햇살위로 드러나 그 진상이 밝혀졌고 단죄 되었다. 그리스도인은 영화에서 무엇을 배울수 있을까? 흠혈귀라는 존재에 대하여 거부감이 있는 그리스도인은 흠혈귀가 아닌 예수님을 의지하여 진실을 밝히려는 기도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사람들은 원한으로 모든 것을 단죄하려 한다. 사랑을 품을수 없는 것은 그 상처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상처가 깊을수록 사랑도 깊다. 예수님의 사랑이 그러하다. 충분히 단죄할 수 있고 앙갚음 할수 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그대로 지고 갔고, 가해자들을 용서하였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삶을 따라 간다. 원한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은 오직 사랑이다. 그 사랑을 배워가는 과정속에서 "여주"를 만난다. 햇살과 함께 사라져간 여주의 원한 종식은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할 또다른 희망이다.

5. “골든슬럼버”Golden Slumber, 2017

한국영화, 장르:범죄,드라마 개봉:2018.02.14
감독:노동석, 각본:이해준,조의석, 제작:영화사 집
주연:강동원,김의성,한효주,김성균,김대명,
관객:1,349,360명(2018.02.26.현재)

택배기사로 일하면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김건우”(강동원역)는 학창시절 친구들과 함께 밴드를 결성하며 오랜 시절 변함없는 우정을 이어오고 있다. 그는 근무중에 학창시절 함께 부르던 비틀즈의 노래 골든 슬럼버를 들으며 즐거운 일상을 보내고 있다. 김건우는 오랜 친구이자 연인이었던 “전선영”(한효주역)의 57교통정보 방송을 들으며 그때의 감격을 잊지 못하고 있다. 김건우는 모범시민으로 선정되어 시와 경찰서로부터 표창을 받고 TV메스컴에 조명되어 유명세를 타고 있다. “신무열”(윤계상)은 국정원 비밀요원으로 유력 대권후보 “유영국”(조영진역)을 암살할 계획을 갖고 있다. 오랜 친구관계인 김건우는 신무열이 보험영업사원이라고 믿고 있다. 그러나 신무열은 착하기만 한 김건우를 바라보며 계획을 변경한다. 신무열은 이 모든 것은 계획된 것이다. 김건우를 암살범으로 만들고 그 자리에서 자폭시키는 것이 이번 프로젝트의 계획이라는 알 수 없는 이야기를 남긴채 신무열이 자폭현장으로 날아간다. 결국 저격수의 총에 신무열은 비참하게 죽고 김건우의 택배차량도 폭발해 버린다. 신무열이 남긴 전화번호 한 장을 들고 어디론가 튀는 김건우는 이유도 알지 못한채 도망자 신세가 된다.

“유미”(정소민역)의 집으로 겨우 도피한 김건우는 유미 또한 자기를 끌어들이는 상대편이라는 것을 눈치채고 벗어나려 하지만 막강한 무술실력에 압도 당한다. 문밖에는 또다른 적이 있고 김건우는 어슬픈 재치로 유미를 제압하고 청소기줄을 이용해 환급히 베란다 밖으로 도피한다. 더 이상 갈곳을 상실한 김건우가 전화번호를 기억하고 전화를 한다. 상황은 또다시 위기에 몰리고 결국 김건우는 국정원 “선팀장”(박훈역)에게 체포되어 “황국장”(유재명역)에게 끌려간다. 목숨이 경각에 달린 위기의 순간 어디선가 나타난 SUV차량이 국정원 차량들을 전복시키며 김건우를 탈출시킨다. 도심 CC-TV감시망을 뚫고 지하수로를 이용해 주택가 재개발지역 밀폐된 거처에 그와 함께 도착한다. 그는 전직 국정원 출신 “민씨”(김의성역)다. 민씨는 김건우를 담보로 가족의 안전과 이익에 관심이 있다. 그러나 뛰는 놈위에 나는 놈은 있다. 황국장은 그와의 협상을 거절하고 포문을 연다. 선팀장과 그 일행이 뒤를 추적하지만 역시 민씨보다는 하수다. 이용가치가 없어진 김건우를 버리는 카드로 쓰려 하지만 착한 심성을 가진 김건우가 웬지 밉지 않다. 결국 두사람은 한팀이 된다. 메스컴은 이율배반적이다. 조작된 국정원의 증거를 토대로 김건우를 유영국을 제거한 진범으로 지목한다. CC-TV에 등장하는 김건우는 “실리콘”(김건우역)이다. 실리콘은 성형의

과 "의사"(이준혁역)가 만든 또다른 김건우의 대역이다. 유영국을 제거한 권력은 "조세현"(정재성역)을 대권후보로 세우고 수렴청정을 계획하고 있다. 조작은 친구들에게로 이어진다. "전선영"은 김건우와 연인관계였지만 무슨 이유이든 지금은 소강국면이다. 그런 그녀에게 김건우의 행방을 탐문하고 있다. 오랜 친구인 "최금철"(김성균역)도 마찬가지다. 서민으로 살아가는 최금철은 우정 하나로 뭉쳐 있다. 변호사가 된 "장동규"(김대명역)도 김건우의 둘도 없는 친구다. 국정원 선팀장과 CC-TV "도팀장"(이항나역)은 이들을 압박하며 김건우를 찾고 있다.

민씨와 김건우가 성형외과 의사를 수소문해 찾고 실리콘을 찾는데 성공하지만 이 과정에서 민씨는 목숨을 잃는다. 김건우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국정원은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김건우가 죽었다고 발표하고 사건을 조기에 덮어 버린다. 겨우 목숨을 구명한 김건우는 실리콘으로 위장하여 밀항선을 타려 하지만 자기 때문에 감옥에 간 최금철이 TV에 나오는 장면을 목격하고 되돌아 간다. 57교통 정보방송 시간에 죽었다고 알려진 김건우가 등장하고 언론사는 또다시 이 사건의 본말로 돌아온다. 김건우는 지하수도를 이용해 광화문으로 오던중 국정원 황국장과 선팀장을 만나지만 갑자기 불어 닥친 물난리로 국장과 팀장은 휩쓸려 가고 김건우는 광화문 사거리 대로변 맨홀위로 올라온다. 그 옛날 공연장으로 가려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자 계획을 수정하여 연예인 방송시상식장으로 키를 돌린다. 수많은 연예기자들이 카메라 셔터를 누르는 순간 김건우가 나타나 모두를 당황하게 한다. 결국 수사는 원점으로 돌아오고 이 사건 관련자들을 곤혹스럽게 한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는 알지 못한다. 추측하기는 이들이 다시 무대에 서고 그 옛날 함께 불렀던 골든 슬럼버를 부르며 재탄생할 것이라는 것이다.

영화는 끝이 났다. 유력한 대권후보가 죽음에 이르는 엄청난 사건을 주제로 한 것에 비하여 내용은 다소 설득력이 부족하다. 평범한 사람을 정권이 이런식으로 티슈한 장 빼 쓰듯이 쓰다가 하는 의구심도 든다. 중요한 것은 보통사람들이 준 권력은 보통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준 것이라는 것을 권력을 쥔 사람들이 너무 쉽게 망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이 영화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사람을 소유물이나 소모품으로 사용하려는 사람들이 겪게 될 최후의 심판은 두고서라도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낀다. 믿음이 잘못된 것은 결코 아니다. 믿음을 불신으로 만드는 사회와 세상이 문제인 것이다. 어떤 형식의 바보가 되든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 보다는 나은 사람이다. 에베소서 6장 말씀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따라 가지 말아야 한다. 그것이 권력이라면 더욱 그럴 것이다. 그저 보통사람이 건강하고 신앙안에서 잘 살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가 될 것이다.

6. “사라진 밤”The Vanished

한국영화, 장르:스릴러 개봉:2018.03.07

감독:이창희, 각본:이희찬,이창희, 제작:싸이더스

주연:김상경,김강우,김희애, 관객:1,315,244명(2018.04.04.현재)

대기업 오너의 딸 “윤설희”(김희애역)와 결혼한 대학교수 “박진한”(김강우역)은 스스로에게 어떤 자유도 주어지지 않았다. 그녀의 카리스마에 가려진 남자의 인생은 늘 불행하고 값아먹히는 자존심에 깊은 상처가 남는다. 그에게 유일한 낙이라면 수업 시간에 도강을 하면서 엉뚱한 질문을 늘어놓는 20대 청년 내연녀 “혜진”(한지안역)과 은밀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윤설희가 쳐놓은 그물망 조직에 걸려 들고 박진한은 조여오는 족쇄를 풀기 위해 무리수를 둔다. 열애중인 혜진이 임신을 하자 박진한은 윤설희를 살해하고 그녀의 남은 유산과 함께 행복한 미래를 찾으려 한다.

윤설희를 살해한 박진한이 장례식을 치르기 위해 준비하던 날 밤, 국립과학수사기관에서 시신 하나가 사라지는 일이 발생한다. 오늘 죽어서 들어와 부검을 기다리는 윤설희의 시신이다. 이 사건으로 4차원 경찰 “중식”(김상경)을 비롯하여 “석원”(이지훈역)과 “동구”(서현우역)와 “숙경”(이민지역) 등 3명의 동료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국가기관에 보관중인 시신이 사라진 사건은 언론에도 대서특필될수 있는 중요 사안이었다.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할 일에 중식은 남편 박진한을 용의자로 주목한다.

시간이 흐르고, 중식은 유가족이며 남편인 박진한을 국과수로 부른다. 시신이 없어졌다는 소식을 들은 박진한은 겁을 먹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어두운 빛과 시선에 당황하기 시작한다. 내연녀 혜진의 불안감에 사로잡힌 듯한 전화벨은 박진한을 더욱 더 긴장하게 하고 하루동안 전개되는 과정은 예측을 불허한다. 국과수의 CC-TV엔 아무런 흔적이 없다. 단서가 될 만한 지문도 없다. 단지 시신만 사라진 것이다. 중식과 박진한의 물고 물리는 수사과정에서 죽은 윤설희의 전화가 걸려온다. 박진한은 당황하기 시작한다. 죽은자의 메시지와 전화벨에 혜진이 위험에 직면하였다고 판단하고 혜진에게 도망칠 것을 알려주지만 그로부터 발신음은 더 이상 들리지 않는다.

사라진 윤설희의 시체는 어디로 간 것일까? 이미 죽은 것으로 판명된 윤설희와 살인자 박진한, 그리고 그를 추적하는 중식과의 사이에는 반전이 숨어 있었다. 중식의 아내는 수년전 교통사고로 죽은후 시신조차 발견되지 않았다. 당시 유일한 생존자는 아내의 어린 여동생, 그녀는 길옆 숲에 던져져 살인자의 시야에 놓이지 않았기 때문에 생존자가 된 것이다. 그들은 바로 윤설희와 박진한이었다. 박진한은 경찰에 자수하려 하였지만 윤설희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처리하고 덮으려 하였다.

그리고 수년이 흐른후 사건은 흐지부지 사라져 갔다.

“우리의 비밀을 묻은 곳에서 기다릴게”

윤설희와 박진한에게는 그렇게 잊혀져간 사건이었지만 중식과 아내의 여동생 혜진에게는 결코 잊을 수 없는 순간이었다. 오직 하나의 단서를 기억하는 혜진으로부터 뺑소니 도주범이 박진한이라는 사실을 알아낸다. 경찰인 중식조차도 박진한을 더 이상 처벌할수 없고 아내의 시신마저 찾을수 없게되자 윤설희의 시신을 이용하여 아내의 시신을 추적해 간 것이다.

결국 모든 것은 밝혀지고 박진한의 내연녀가 의도적으로 접근한 사실도 알려진다. 기막힌 반전은 어이가 없다. 설정이 너무 지나친 것은 아니었을까? 단 하루 동안에 일어난 사건의 전말은 반전이였다. 이로서 박진한은 두사람의 여자를 죽인 자가 되었다. 한사람은 교통사고로 죽이고, 또 한사람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여동생과 결혼하기 위해서 죽이는 반전은 허탈감마저 든다.

영화는 끝이났다. 100분소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만큼 시간의 흐름은 더디게 흘러갔다. 마지막 반전은 설득력조차 상실한 듯 하다. 그러나 처음부터 잘못되어진 재벌가와 교수와의 만남은 결국 파행으로 치닫게 된다는 종말론을 보는 듯하다. 그리스도인은 영화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 언제나 높은 곳만 바라보는 세상에서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을 잡았다면 잡은 것이 진정한 사랑이었는지 아니면 권력이나 물질이었는지 잘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남는 것은 무엇이였을까? 교수라는 타이틀도 높은 위치에 서 있는데 그보다 훨씬 더 높은 곳을 바라본 한사람의 어리석음은 우리의 현실을 반성하게 한다. 현재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누구나 이와 같을 것이다. 처음 잘못되었을 때 돌이키지 못한다면 그 비틀림은 끝까지 바르지 못할 것이고 그 결과 또한 행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배우게 된다.

7. “곤지암”GONJAM

한국영화, 장르:공포,미스터리 개봉:2018.03.28

감독:정범식, 제작:하이프미디어코프

주연:위하준,박지현,오아연,문예원,박성훈,이승욱,유제윤,

관객:1,656,549명(2018.04.04.현재)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놀이공원, 체코 세들렉 납골당, 일본 아오키가하라 숲, 토고 동물 부적 시장, 멕시코 인형의 섬, 일본 군함도와 함께 CNN 세계7대소름끼치는 장소로 선정된 “곤지암 정신병원”은 1979년 환자 42명의 집단자살과 병원장의 실종 이후 한국의 대표적인 폐가가 되었다. 이로서 국내외 호러 매니아들의 시선을 집중시킨 곤지암 정신병원은 수많은 억척과 루머가 난무하는 가운데 귀신들의 최대 거주지로서 주목받고 있다.

공포체험을 통한 유튜브 조회수를 올려 한몫 잡으려는 청춘남여들의 기이한 행렬에 하준(위하준역), 지현(박지현역), 아연(오아연역), 샬롯(문예원역), 성훈(박성훈역), 승욱(이승욱역), 제윤(유제윤역) 등 7명의 관심자들이 나타난다. 이들은 1인칭 시점의 고프로 히어로 5 세션 카메라 앵글을 각각의 공포체험자들에게 설치하여 사실감을 증폭시킨다. 처음에는 조회수를 올리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도입하여 귀신의 존재를 실재화 하려는 사전공모를 하였으나 곤지암 내에서 일어나는 일들에는 무엇인가의 구심이 들만한 사건들이 등장하며 당황한다. 뜻하지 않는 사건으로 아연과 샬롯이 병원 밖으로 탈출하지만 그들은 왔던 길을 반복하며 끝내 탈출에 성공하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 한다.

하나씩 하나씩 누군가에 의해 제거되어 가는 멤버들로 인하여 불협화음이 발생하고 끝없는 비명에 기겁을 하지만 여전히 병원내부에서 탈출구를 찾지 못한다. 결국 오랫동안 잠겨져 있던 402호실의 비밀이 열리지만 그들은 물탱크속에 갇힌자와 같이 씩씩하게 점점 빠져 들어간다. 가장 위험한 폐가 곤지암은 결국 7명의 철없는 청춘남여들을 모두 삼켜 버린채 여전히 베일에 가려져 있다.

영화는 끝이났다. 다큐도 아니고 1인 방송도 아니고 그저 조회수를 올려 한몫 하려는 청춘남여의 비애를 담은 영화다. 단지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 선택한 곤지암 정신병원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고 모든 기물들은 방치된채 새로운 주인을 찾고 있다. 단지 공포체험을 하려고 입장하였던 이들의 눈앞에서 펼쳐진 광경은 그야말로 전설의 고향과 같다. 영화는 롤러를 타는 듯한 아이들의 비명소리만 메아리 친다. 놀이공원에서 타는 아찔한 기구속에서 자주 들었던 목소리다. 내용도 없다. 공포도 없다. 그냥 공포체험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정도의 느낌이 끝이다.

귀신은 어디에 있을까? 귀신은 흔히 춥기 때문에 따뜻한 곳을 찾는다고 알려져 있다. 그래서 예전에 느끼던 사람의 몸을 기웃거리며 다른 사람의 몸에 들어가 터를 잡으려고 애를 쓴다. 어둡고 먹을 것이 없는 폐가에는 실제로 귀신이 살지 못한다. 스스로도 어둡고 굶주려 있기 때문이다. 영화를 통하여 느낄수 있는 건 이런 류의 취미가 존재한다는 공감 정도다. 그리스도인은 폐가에 기웃거리거나 굶판에 참여하지 말아야 한다. 악마를 부르는 의식이나 귀신을 부른다는 명목의 장난같은 행위에도 참여하지 말아야 한다. 사람은 살아 있을때가 가장 아름답다. 살아 있는 동안 감사함으로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사람에게 주어진 삶이라 할 것이다.

8. “램페이지”RAMPAGE

미국영화, 장르:액션,모험 개봉:2018.04.12

감독:브래드 페이튼(Brad Peyton), 제작:워너브러더스

주연:드웨인 존슨(Dwayne Johnson), 제프리 딘 모건(Jeffrey Dean Morgan)

관객:851,340명(2018.04.18.현재)

“램페이지”(RAMPAGE)는 “광란”이라는 의미의 영어단어이다. 램페이지는 1986년, 밸리 미드웨이에서 제작한 아케이드 게임으로 주인공은 킹콩을 닮은 고질라 “조지”, 공룡크기의 도마뱀 “리지”, 거대한 늑대 “랄프”라는 몬스터가 빌딩과 도시들을 파괴하고 병기들을 제압하며 자신들의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다. 영화 램페이지는 1963년과 1987년에 미국에서 제작된 이래 2014년, 램페이지2탄이 제작되었고 2017년, 워너브러더스에 의해 초거대한 블록버스터로 복귀하였다.

유인원 전문가인 “데이비스 오코예”(드웨인 존슨역)는 “케리 앳킨스”(마리 웰튼역), “넬슨”(P.J.번역)과 함께 국립공원 동물원을 방문하여 어릴 때 밀렵사냥군으로부터 구조한 알비노 고질라 “조지”를 만난다. 데이비스와 조지는 특별한 방식의 수화로 상호 소통하며 감정을 공유하고 있다.

유전자 조작의 신기술을 도입하려던 재벌기업이 우주공간에서 “프로젝트 램페이지” 실험도중 우주선 타워가 붕괴된다. 한 명의 여성 과학자가 탈출과정에서 접수한 3개의 병원체가 비상탈출용 우주선에 실린채 지구를 향하고 있다. 그러나 우주선타워에서 발생한 의문의 생명체가 파괴한 유리창이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깨지면서 우주선은 폭발하고 여성과학자는 즉사하였다. 그러나 고열과 폭발에도 불구하고 3개의 병원체는 국립공원 동물원에 안전하게 불시착한다. 조지는 불시착한 병원체에서 품어나온 열기에 취하여 돌연변이를 일으키며 곰을 죽이는 기 현상을 보인다. 조지의 크기가 예전보다 커지고 온순한 성격까지 포악하게 변해가면서 뜻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 “케이트 칼드웰”(나오미 해리스역) 의사는 램페이지 프로젝트 작업수행중 재벌가의 “클레어 웨이든”(말린 애커맨역)의 음모와 계략에 의해 강제해직당한다. TV에서 괴물체 소동뉴스를 보고 데이비스를 찾아간다. 조지는 거대한 철장을 뚫고 동물원보호소를 폐가로 만들며 더욱 난폭해진 모습으로 도시에 나타난다. 조지를 보호하려던 데이비스의 계획에 차질을 빚고 비밀사설 경호부대와 일당들에 의해 조지는 마취탄을 맞고 쓰러진 후 “러셀”(제프리 딘 모건)요원의 군용기에 실려 이동중이다. 마취에서 깨어난 조지가 몸부림을 치는 과정에서 군용기가 폭발하고 데이비스와 케이트는 러셀요원과 함께 비상탈출에 성공한다. 비행기 폭발로 죽은줄로만 생각하였던 조지는 구사일생으로 살아남게 되고 변이 유전자는 조지를 더욱더 거대한 빌딩처럼 세워간다. 한편, 국립공원에서는 리지(도마뱀)와 랄프(늑대)까지 거

대한 몸을 가지고 국립공원을 쑥대밭으로 만든다. 병원체를 찾으려고 클레어가 보낸 사설경호부대는 리지와 랄프에 의해 때죽음을 당하고 군용헬기마저 랄프에 의해 폭발하고 만다.

클레어는 조지와 리지와 랄프를 본사 빌딩으로 부르는 신호를 보내고 조지와 리지와 랄프는 이 신호에 반응하며 도시를 초토화시키며 클레어의 본사로 향한다. 본능적 욕구를 자제하지 못하는 거대한 3개의 짐승은 도로와 빌딩과 강변을 초토화하면서 클레어의 본사를 향하여 빠른 속도로 질주한다. 군대가 동원되어 그들과 맞서지만 탱크와 전차와 군용기가 종기조각처럼 박살나고 모든 것이 역부족일 뿐이다.

결국 케이트가 클레어의 본사에서 해독제를 구하지만 클레어에 의해 위기가 계속되고 조지와 리지와 랄프가 도착하여 빌딩내외부를 초토화시키며 옥상으로 향한다. 클레어와 남동생이 타려던 구출용 헬기가 파손되고 클레어와 남동생은 목숨을 잃는다. 데이비스에 의해 조지는 난폭해진 마음을 진정시키고 리지와 랄프와의 일대결전을 벌인다. 초고층 빌딩들이 넘어지고 부숴지는 등 도시는 재생불능에 이를만큼 초토화 되었지만 엔딩은 데이비스와 조지가 승리의 면류관을 쓰며 리지와 랄프를 제거한다.

답답한 마음이 있다면 램페이지를 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거대한 도시가 파괴되고 지구상에 없는 생물이 마치 실제로 살아있는 듯 활개를 친다. 데이비스의 인간애는 조지라는 거대한 생명체를 움직인다. 결국 진심이 통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영화는 끝났지만 도시재생은 수십년이 걸릴 듯 하다. 그만큼 피해가 크다. 그리스도인은 영화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하나님의 피조물에 함부로 손대면 안된다. 자연의 섭리를 거스리지 말고 자연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생각해 본다.

9. "챔피언"Champion

한국영화, 장르:드라마 개봉:2018.05.01

감독:김용완, 제작:코코너

주연:마동석,권율,한예리, 관객:206,260명(2018.05.02.현재)

미국 로스엔젤레스에서 팔씨름세계챔피언을 꿈꾸던 한국인입양아 "마크"(마동석역)는 클럽에서 일하던 중 스포츠에이전트 "진기"(권율)의 권유로 클럽내 팔씨름대회에 참가하여 최강선수를 이기며 베틱액을 받지만 진기 혼자 한국으로 귀국해 버린다. 마크는 클럽에서 해직되고 마트에서 일하게 되지만 자기 적성에 맞지 않는 듯 하품만 늘어났다. 그러던중 진기의 연락을 받고 한국행을 결심한다. 한국명 "백승기"로 마크는 어머니의 고향 한국으로 돌아와 진기가 가르쳐준 어머니의 집을 찾았지만 용기가 없다. 그러던 중 어린 "준형"(최승훈역)과 "준희"(옥예린역)를 만나게 되고 알 수 없는 정에 이끌린다. 아이들의 엄마 "수진"(한예리역)은 죽은 남편이 남겨놓은 빚을 청산하지 못한채 대부업자들로부터 늘 쫓기는 삶을 살아간다. 스포츠에이전트 진기는 조폭형대부업자 "유창수"(양현민역)와 함께 팔씨름 경기를 하여 돈을 벌 궁리를 한다. 오직 자기가 좋아하는 팔씨름을 하고 싶은 착한 마크는 어머니를 찾기 위해 만난 수진이 친동생이라 생각하고 수진의 집으로 들어간다. 부산을 찾은 진기와 마크, 그리고 수진의 가족은 그곳에서 한국팔씨름 1위 "콤보"(강신효역)와의 팔씨름 경기에서 승리하는 신기원을 이룩하며 케이블 인기스타로 부상한다. 고향이지만 낯선땅 한국에서 어머니는 돌아가셨지만 남겨진 여동생과 아이들을 바라보며 행복을 꿈꾸는 마크는 이제 백승기로서의 삶을 살아갈 준비를 한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수진이 친동생이 아니라 어머니와 우연하게 만난 새로운 가족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것을 숨기는 듯한 수진과 아이들에게 섭섭한 마음이 있다. 진기도 수진이기도 모두가 유창수의 빚에 시달리며 허우적 거리는 인생을 살아간다. 진기의 아버지(김종구역)는 빌딩 경비실 경비를 서며 안간힘을 쓰고 있다. 사업이 망해버린 아버지의 부채를 이어받은 진기는 스포츠토도와 같은 베틱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다. 거금을 취해서 모든 빚을 한꺼번에 청산한 후 새롭게 출발한다는 그의 계획은 언제나 원점이지만 망상을 버리지 못한다. 착한 심성을 가진 마크, 백승기는 어린 준희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전국 팔씨름대회에 나선다. 외로운 훈련과 고군분투속에 오해가 있었던 진기 또한 상대방의 전력을 분석하고 있다. 다시 만난 진기와 마크, 친동생은 아니지만 새로운 가족 수진기와 남매아이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응원속에 마크는 승리와 승리로 승승장구하며 결승전까지 올라간다. 교도소에서 출감한 "편치"(이규호역)와의 결승전은 참으로 냉혹하다. 진기는 또다시 유창수로부터 2억원의 은밀한 제안을 놓고 잠시 고민에 빠지지만 다시 되돌려주며 마크에게 반드시 이길 것을 주문한다. 결론은 마크의 승리와 편치의 완전한 패배, 마크에게는

이제 새로운 가족이 있다. 수진과 준형과 준희의 삶도 희망적이다. 진기에게도 또다른 희망의 시간이 주어지게 되었다. 모든 것이 마크가 있었기 때문이다. 마크에게는 "팔씨름"이라는 것이 있고 팔씨름은 마크의 행복이다. 마크는 지금 세계챔피언전에 나가기 위해 세상밖을 향하고 있다.

영화는 끝이났다. 단순무식해 보이는 마크는 한국인 입양아다. 어머니를 그리워하면서 미워하는 착한 남자다. 팔씨름이 좋아서 팔씨름대회에 나갔고 늘 승리의 기쁨이 있었지만 이 소식을 전해줄 가족이 없다. 한국에서 만난 혈육은 아니지만 마음으로 이어진 새로운 가족이다. 그리스도인은 챔피언에서 진정한 챔피언의 모습을 발견한다. 마크는 팔씨름으로서 챔피언이 되었다. 그리스도인은 복음으로서 챔피언이 된다. 다섯달란트 받은 사람은 진정한 챔피언이 되었다. 새로운 가족을 얻으려면 새로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된다. 이제 진정한 복음의 챔피언이 되기 위해 길을 나설 때이다.

10. "독전"Believer

한국영화, 장르:범죄,액션 개봉:2018.05.22

감독:이해영, 제작:용필름

주연:조진웅,류준열,김주혁,김성령,박해준, 관객:4,842,431명(2018.06.18.현재)

끝까지 알수 없는 암호명 "이선생", 전세계 마약조직의 암투속에 등장한 마약수사관들의 집념이 그려져 있다. 마약수사관 원호는 "수정"(금새록역)을 미끼로 이선생을 잡으려 했지만 어린 나이의 수정이 그들에 의해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며 하나의 단서를 남긴다. 옆으로 드러누워 있는 8이다.

독한 전쟁, 즉 독전에는 여섯명의 캐릭터가 등장한다. 아시아 최대 마약조직을 추적하던 ①"원호"(조진웅역)는 "이학승"(나기수역) 그룹회장의 의문의 죽음앞에서 수사를 종결하려는 "마약수사부장"(남문철역)과 정면으로 충돌하며 수사를 이어간다. 그리고 연이어 중부지방 변두리 공장에서 폭발한 의문의 사고와 그 사고 직전에 살아남은 이선생의 유일한 연락책 ②"오연옥"(김성령역)이 경찰서로 피신한다. "이선생을 잡고싶어? 그러면 내가 잡게 해줄게. 다른건 몰라도 이선생의 이름은 알아" 무언가 한가지 단서를 갖고 있던 오연옥이 외부에서 반입한 국밥 한그릇을 먹던 중 또다시 의문의 죽음을 맞이한다. 경찰서안에서 일어난 관련자의 사망 소식은 모두를 경악케 하며 이 사건의 중심으로 향하게 한다. 그러던 중 변두리 공장에서 살아남은 또 다른 생존자의 소식이 들려온다. 이름은 ③"서영락"(류준열역)이다. 락은 그의 애완견 라이카와 함께 유일하게 살아 남았다. "저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시잖아요" 의문의 젊은 친구, 락은 원호를 집중시키며 마약사건의 블랙홀로 빨려 들어간다. 락은 또다른 행동 연락책 ④"박선창"(박해준역)과 연결되어 있고 박선창은 ⑤"브라이언"(차승원역)과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락은 또다른 연결고리를 갖고 있다. 아시아 최대의 마약시장을 지휘하는 중국인 ⑥"진하림"(김주혁역)이다. 진하림은 마약에 이미 골이 깊이 파여 있다. 그의 연인 "보령"(진서연역) 또한 마약에 찌들어 버린 폐인에 불과하다. 그가 지금 서울에 입성해 자리를 차지하며 악한 지성을 여과없이 드러내고 있다. 아직 락이 서울에 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박선창에 앞서서 마약 수사팀은 이선생의 하수들로 위장하여 진하림에게 접근한다.

원호는 박선창의 역할을 맡았다. 진하림은 다혈질 럭비공과 같은 사람이다. 어디서 어떻게 무슨일이 일어날지 전혀 알지 못한다. 넥타이핀 CC-TV와 시계녹음기로 현장을 중계하고 있지만 모든 것이 예측불허인 상황이다. 보령의 갑작스런 행동으로 락의 넥타이핀이 각테일컵에 들어가 작동을 멈추고 락이 제공한 마약으로 두사람은 사랑에 빠진다. 그 시간 박선창이 호텔에 도착하고 이번에는 원호가 진하림으로 둔갑하고 마약여경 "소연"(강승현역)이 보령을 대역한다. 진하림의 연기를 능수능란하

게 이뤄낸 원호는 박선창으로부터 신뢰를 얻지만 그가 던져준 마약을 들이킨 원호는 생사의 갈림길에 서게 된다.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원호는 락을 의심하며 몰아붙이지만 락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한계가 있다.

시간이 별로 없다. 원호는 락을 매개로 새로운 마약을 준비하려 한다. 해안가 소금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새로운 마약테이블에는 농아오빠 "동영"(김동영역)과 농아여동생 "주영"(이주영역)이 있다. 비닐하우스 농장에 박선창이 브라이언 이사를 모시고 나타나고 락과 브라이언의 첫만남이 이루어 지지만 브라이언이 이선생인지는 확인이 되지 않았다. 아주 잠깐 하우스 농장은 긴장감에 휘말리지만 브라이언과 박선창 일당은 곧바로 자리를 뜬다. 원호는 브라이언이 이선생이라는 직감을 하고 베일에 가려진 그를 추적하기 시작한다.

브라이언은 박선창에게 락을 제거할 것을 명령하고 박선창은 락이 없으면 진하림과 연결되지 않는다고 말하며 시간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지만 목살당한다. 브라이언이 과연 이선생일까? 마약수사관들의 모든 계락을 알게된 진하림은 비닐하우스를 공격하여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린다. 그곳에서 마약수사관 한명이 사제 폭탄에 희생당하고 "정일"(서현우역)은 구사일생으로 살아남는다. 이 모든 것이 락의 치밀한 계획이라고 생각한 원호는 락을 강하게 불신하지만 락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뛰는 놈위에 나는 놈은 항상 있다. 진하림은 원호가 마약수사관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들에게 포위된 원호는 전투씬을 벌이며 끝까지 살아남는다. 아시아 최대의 마약상 진하림은 결국 원호에 의해 최후를 맞이하고 원호는 진하림으로 둔갑한 채 브라이언을 찾아간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박선창은 원호를 브라이언에게 안내하고 브라이언이 이학승회장의 둘째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브라이언은 최대 마약조직과 기업을 운영하고 있고 원호는 이곳에서 모두를 일망타진하려 한다. 그러나 어디선가 나타난 새로운 조직에 의해 브라이언의 조직은 지리멸렬하고 브라이언 또한 락에 의해 처참하게 죽어간다. 박선창은 세탁기 속에서 팔이 부썩진 채로 죽음을 맞이하고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재판은 끝나는 듯 하였다. 이로서 마약수사는 종결되었다. 이선생은 누구일까? 그는 죽은 것일까? 아니면 어디선가에서 여전히 새로운 살인을 계획하고 있을까? 설경에서 들리는 한방의 총소리가 그 대답을 주고 있지만 알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영화는 끝이 났다. 독전은 독한전쟁만큼이나 잔인하다. 마약으로 뒤덮인 세상, 김주혁 배우는 이 영화를 끝으로 고인이 되었다. 독특한 캐릭터를 가장 잘 소화해 내었다는 평가다. 김성령은 주연임에도 너무 빨리 사라져 관객을 당황케 한다. 세상에는 우리가 모르는 일이 너무 많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도 너무나 많다. 잔인함도

마약같은 것이다. 더 자극적이고 더 잔인해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영화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 아무것도 배울것이 없다. 모든 것은 패악이다. 그리스도인은 패악과 맞서고 무너져서는 안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따라 마약 중독으로부터 탈출의 기회를 제공하고 치유하여야 한다. 사람을 사람답게 하며 죄악중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회개함으로 용기를 가져야 한다. 이것이 살고 영원히 사는 길이다.

11. “쥬라기 월드: 폴른 킹덤”Jurassic World: Fallen Kingdom

미국영화, 장르:액션,어드벤처 개봉:2018.06.06

감독:후안 안토니오 바요나, 제작:유니버설픽처스

주연:크리스프랫(오웬그래디역),브라이스달라스하워드(클레어달라스하워드역),제프골드블룸(이안말콤역)

관객:4,797,762명(2018.06.18.현재)

1. 쥬라기공원(Jurassic Park, 1993)

감독:스티븐 스필버그, 개봉:1993.07.17.

주연:샘널(알란그랜트박사역),로라던(엘리새들러박사역),제프골드브럼(이안말콤박사역),리차드아덴(존해몬드박사역),사무엘잭슨(레이아놀드역)

6500만년전의 거대한 공룡들이 코스타리카 서해안의 “이슬라 누블라”섬에 세워진 테마파크 “쥬라기공원”에서 최신복제기술로 재탄생하였다. 공룡학자와 각계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안전진단에서 예기치 않은 사고가 발생한다. 최첨단 컴퓨터 시스템으로 완벽하게 통제되었다고 생각한 쥬라기월드는 공룡들의 야생성으로 아수라장이 되고 통제 불능의 세상이 된다. 급기야 거대한 허리케인이 섬으로 향하면서 쥬라기 테마파크는 지옥세상으로 변한다.

재력을 겸비한 존 해몬드 회장은 고생물학자인 앨런 그랜트박사와 고식물학자이며 앨런 그랜트의 애인인 엘리 새틀러 박사, 이안 말콤박사들을 이슬라 누블라섬으로 초대한다. 섬에 도착한 일행은 초식공룡 브라키오사우루스와 만나게 되고 존 해몬드 회장은 고대 도마뱀의 피를 수혈한 모기를 담은 호박 화석에서 공룡의 DNA를 추출하는데 성공하였다. 공룡의 DNA와 양서류의 DNA를 결합한 공룡의 복제에 성공한 존 해몬드는 세계 유일의 쥬라기 테마파크를 완성하였다.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놀라운 장면에 감탄한 박사들은 1박2일의 여정으로 안전진단을 흔쾌히 승낙하였다. 그러나 시스템 엔지니어인 네드리가 외부의 세력과 결탁하여 공원안전 관리시스템을 마비시킨후 공룡수정란을 외부로 밀반출하려는 계획을 착수하였다. 시스템 기능이 마비되자 공룡들이 우리를 탈출하고 공원을 진단중이던 일행들은 티라노사우루스에게 습격을 당한다. 이안말콤 박사는 티라노사우루스를 유인하고 그 틈을 타 앨런 그랜트가 존해몬드 회장의 손자 팀과 손녀 렉스를 구한다. 예상에 없던 시스템 붕괴로 존 해몬드 회장은 시스템을 복구하려고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다. 아이들과 앨런이 공원에서 탈출하려다가 잔인한 벨로시랩터에게 포위당하고 연이어 닥친 태풍에 섬 전체는 위기에 직면한다.

2. JURASSIC WORLD(Jurassic World, 2015)

감독:클린트레보로우, 개봉:2015.06.11.

주연:크리스프랫,(오웬 그레디역),브라이스달라스하워드(클레어디어링역),벤센트도노프리오(빅호킨스역),타이심킨스(그레이미첼역),닉로빈슨(자크미첼역)

쥬라기 공원이 폐쇄된지 22년, 공룡들의 습격으로 테마파크가 개장을 하기도 전에 폐쇄결정부터 내려야 했던 1993년과 달리 2만명의 관람객들이 찾는 가장 안전한 공원이 되었다. 지상최대의 혁신적 테마파크가 재탄생한 쥬라기월드에는 잘 훈련된 길이 20미터의 모사사우루스와 같은 공룡들이 공연을 펼치는 지상 최대의 먹이쇼장, 직접 공룡을 만지고 체험할 수 있는 체험동물원, 공룡들과 함께 초원을 달릴 수 있는 투어까지 안전하고 업그레이드된 최첨단 시설물들이 들어서 있다. 그러나 새롭게 탄생한 하이브리드 공룡들은 스스로 진화하는 독특한 돌연변이성 지능과 공격성을 가지고 있다.

티렉스왕국은 12미터의 공격적인 티라노사우루스 렉스가 살아있는 동물을 사냥하는 장면을 생생하게 바라볼수 있다. 공룡계의 타조 갈리미무스와 레이스를 펼치는 초원의 대장정은 쥬라기월드를 찾는 사람들로 하여금 감탄을 자아낸다. 그러나 인간이 만든 재창조물에는 언제나 위험이 존재한다. 결국 22년만에 재개장한 쥬라기 월드마저 파국을 맞이한다.

3. JURASSIC WORLD: FALLEN KINGDOM(Jurassic World: Fallen Kingdom2018)

1993년, 최초개장과 2015년, 재개장으로 새롭게 재탄생한 쥬라기월드 테마파크는 그후 다시 폐쇄조치를 당하였다. 그러나 코스타리카 서해안의 이슬라 누블라섬은 공룡의 섬이자 공룡들의 낙원으로 그들만의 세상이었다. 그러나 누블라섬의 화산폭발로 공룡들의 멸종이 우려되자 공룡들을 보호하기 위해 오웬과 클레어가 이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클레어는 쥬라기 월드 사태 이후 공룡에 대한 무한책임감을 느끼고 "공룡보호연대"(DPG, Dinosaur Protection Group)를 설립하여 공룡권리보호에 앞장서고 있었다. 오웬과 클레어를 돕겠다고 나선 이안말콤의 재단 엘리 밀스(라프스펠)와 군나르 에버솔(토비존스)은 공룡들을 이용하여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음모를 계획하였다. 누블라섬에서 구조한 공룡들은 록우드 저택의 지하 공룡창고로 옮겨지고 그곳에서는 공룡을 대상으로 경매가 이루어진다.

그곳에서 새로운 지능형 돌연변이 "인도미누스 랩터"가 등장한다. 몸길이 7.3미터, 키 3.1미터에 달하는 신종은 존재해서는 안되는 가장 위협적인 생명체이다. 쥬라기월드의 상징이며 최강자는 역시 티라노사우루스계열의 "티렉스"다. 13.5미터의 길이

와 5.2미터의 키는 그야말로 거대한 타워와 같이 느껴진다. 멸종위기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3.9미터의 벨로시랩터 계열의 "블루", 스파이크 갑옷으로 무장한 탱크 9.6미터의 "안킬로사우루스", 육식공룡에게 치명상을 입히는 거대 초식공룡으로 몸길이 27.4미터, 키 6.1미터에 달하는 "아파토사우루스", 거대한 몸 그자체가 무기인 21.5미터와 12.4미터의 키에 달하는 초대형 공룡 "브라키오사우루스", 21.9미터의 길이를 자랑하는 바다의 제왕 "모사사우루스", 초속40미터의 속도로 꼬리를 휘두르는 10.1미터 길이의 "스테고사우루스", 지구상에서 가장 거대한 날개를 가진 폭 7.5미터의 "프레라노돈" 등, 록우드의 저택은 마치 공룡박물관을 연상케 한다. 악명높은 엘리 밀스는 쥘라기월드의 공동설립자 벤자민 록우드를 제거하고 그의 상속자이자 유일한 손녀딸인 "메이지 록우드"(이사벨라써먼)를 인질로 모든 재산을 빼앗으려고 안간힘을 쓴다.

그러나 돌연변이 공룡 "인도미누스 랩터"가 철장밖으로 나와 공룡의 세계를 재편하고자 록우드저택을 초토화 시켜 버린다. 인도미누스 랩터의 존재를 알게된 메이지는 엘리 밀스와 인도미누스 랩터를 피해 도주하다가 엘리 밀스가 록우드를 살해하는 장면을 목격한다. 악한 인간에 의해 창조된 인도미누스 랩터는 도마뱀처럼 매우 날렵하고 총알세례에도 방탄능력을 가졌으며 교활한 지능의 소유자이다. 결국 그를 제거하는 것 또한 공룡의 몫이다. 인도미누스 랩터는 메이지를 제거하기 위해 끊임없이 추적하는 시스템을 가졌지만 벨로시랩터에 의해 처절한 죽음을 맞이한다. 유독가스로 가득찬 록우드 지하창고에서 죽어가고 있는 공룡들을 바라본 메이지는 결국 방화문을 개방하고 공룡들을 세상밖으로 탈출시킴으로서 영화는 끝이 난다.

세계최초의 개봉과 개봉 하루만에 118만명을 돌파한 사상 초유의 대작 "쥘라기월드 폴른킹덤"은 어드벤처 영화의 신기원이다. 인간세상과 가장 먼 곳에 있을 때 상호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공룡이 이슬라 누블라 섬을 떠나 인간세상에 나타난 것이다. 이것은 위험의 직면이다. 그리스도인은 영화를 바라보면서 인간이 만든 위험한 연구와 진전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지 바라보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이러한 위험한 시도는 멈추지 않는다. 의구심과 악의에 찬 이익중심 사회가 그 같은 악함을 재생산한다. 그리스도인은 악이 재현되는 세상속에서 진정한 진리의 가르침이 악의 승리를 증거해야 한다. 그 어떤 곳에서도 거짓과 죄악은 승리할 수 없음을 선포하고 오직 복음만이 살아남게 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12. "탐정:리턴즈"The Accidental Detective 2: In Action

한국영화, 장르:범죄,코메디 개봉:2018.06.13

감독:이언희, 제작:크리픽쳐스

주연:권상우,성동일,이광수, 관객:2,124,273명(2018.06.25.현재)

1. "탐정:더 비기닝(2015)"The Accidental Detective"

감독:김정훈, 제작:크리픽쳐스, 개봉:2015.09.24

주연:권상우,성동일, 관객:2,625,686명

"대만"(권상우역)이 현직경찰인 "준수"(박해준역)와 음주후 소란을 피우다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고 나오는 중 오랜 지인 "용규"(이승준역)의 전화를 받고 2차를 간다. 준수는 2차 술자리에서 용규의 아내를 만나기 위해 자리를 떠난다. 다음날 아침 대만은 용규의 아내가 살해당한 것을 목격하고 베테랑 형사 "태수"(성동일역)는 용규를 용의자로 지목한다. 용규 아내의 시계가 밤 11시22분에 멈춘 것을 확인하고 용규는 알리바이를 증명한다.

사건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 서팀장이 준수를 범인으로 몰아가고 용규와 형수의 이혼을 막으려 했던 준수는 구치소에 갇히게 된다. 대만과 태수는 장호를 만나서 알리바이를 캐 묻지만 의구심을 떨쳐내지 못한채 장호에게서 정보를 얻으려고 노력한다. 순간 두 번째 살인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마동훈형사의 아내다. 휴대전화에서 범인은 피해자의 새벽 1시5분, 촬영을 했다. 태수는 동일범으로 보고 공범을 찾았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양재천 살인사건을 기억했다. 양재천 살인사건 담당자로부터 사건현장에서 증거가 나왔다는 이야기를 듣지만 태수는 인지가 늦고 대만은 인지가 빨랐다. 태수는 이유노가 범인이라고 생각하지만 법정에서는 준수에게 30년형을 선고한다. 사건의 전말은 뒤영킨 세탁기내 빨래처럼 온갖 추측이 난무하는 가운데 용규의 아내를 죽인 것은 마형사와 한태웅이었고, 마형사의 아내를 죽인 것은 한태웅과 용규였다. 그리고 또다시 한태웅의 아내를 죽이기 위해 마형사와 용규가 온 것이다. 이것이 교환살인의 전말이다. 모든 것이 오해로 시작된 살인사건에서 대만은 용규에게 준수와 형수님은 아무런 관계가 아니라고 하며 준수가 준 편지를 증거로 내민다. 대만은 오해를 풀기위해 폭행을 당하고 마형사로부터 죽음의 위기에 직면하지만 태수의 등장으로 사건은 종결되나. 마형사 대신 준수를 체포했던 서팀장이 해고되고 준수는 무죄석방된다. 이 사건으로 형사계에 회의를 느낀 태수는 사설탐정사무소를 개업하기 위해 대만에게 동업을 제안한다. 대만은 아내로부터 합의이혼제안을 받지만 거절하고, 결국 대만과 태수는 사설탐정 사무소를 개업하고 영화는 막을 내린다.

2. "탐정:리턴즈"The Accidental Detective 2: In Action

양재천 살인사건과 경찰내 교환살인 사건을 해결한 추리 콤비 셜록 덕후 만화방의 주인인 "강대만"(권상우역)과 광역수사대 레전드형사 "노태수"(성동일역)는 경찰을 휴직한 상태에서 한국 최초의 사설탐정사무소를 개업한다. 전직 사이버수사대 형사로서 사이버홍신소를 운영중인 "여치"(이광수역)를 영입하며 탐정의 에이스를 갖추었지만 사건의뢰는 없고 생활비 압박만 가중되고 있다. "우원일"(남명렬역) 원장이 운영하는 복지관 출신의 아이들이 의외의 사고로 죽음을 맞이하는 일이 연쇄적으로 일어나지만 그 어떤 단서도 없다. "서희연"(정연주역)의 남편이 과일을 사러 나갔다가 전혀 다른 방향의 기차길에서 의문의 자살을 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서희연은 이 사건은 살인사건이라고 규정하고 경찰에 문을 두드리지만 여의치 않고, 강대만에게 5천만원을 제안하며 사건을 의뢰한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자살사건의 중심에 공장장으로 알려진 "김정환"(최덕문역) 부장이 등장하고 그의 뒤편에는 우원일 원장이 있다. 또 하나의 인물은 병원의 사무장 "윤사희"(손담비역)다. 기업형 복지관을 운영하는 우원일 원장과 김정환부장, 그리고 병원을 실질적으로 장악한 윤사희 사무장의 트라이앵글속에는 장기매매라는 중요한 범죄가 숨어 있었다. 사건을 덮기 위해 김정환 부장이 희생을 하려 하지만 강대만의 추리력과 노태수의 노련미에 우원일 부장이 걸려 들고 모든 사건의 전모는 밝혀진다.

영화는 끝이 났다. 웃음을 잃었다면 영화를 보는 것이 유익하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생각해 보아야 할까? 사람을 구별해서는 안된다. 사람을 물건처럼 취급해서도 안된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존귀할 뿐이다. 상류사회 멤버들을 위해 준비된 재고물량 같은 사람은 없다. 최근 대기업의 갑질 폭로가 유행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라진 것은 별로 없다. 그리스도인은 갑을병정의 사람이 되어서는 안된다. 그러한 위치에 있어도 안된다. 스스로는 잘 알지 못할수도 있다. 혹시 누군가가 당신의 언어를 녹취한다 해도 그 녹취문에는 복음만이 전해지기를 바랄 뿐이다.

13. “마녀”The Witch : Part 1. The Subversion

한국영화, 장르:미스터리,액션 개봉:2018.06.27

감독:박훈정, 제작:영화사 금월

주연:김다미,조민수,박희순,최우식, 관객:3,188,676명(2018.08.06.현재)

농장일을 도우는 착한 딸이며 학교에서 전교1등 모범생인 “구자윤”(김다미역)에게 어느날 정체 불명의 사람들이 나타난다. 10년전 유전자 조작으로 생산(?)된 시설의 아이들이 상부명령으로 조직적으로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한다. 그 가운데 한 소녀(어린자윤,김하나역)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아 탈출에 성공하고 외딴집에서 그곳 주인에게 발견되어 치료를 받고 그곳에서 살아간다. 그리고 10년후, “양어머니”(오미희역)가 알츠하이머에 걸려 시름하고 아버지 “구선생”(최정우역)의 가게마저 난관에 부딪히자 자윤은 5억원의 상금이 걸려 있는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전한다. 1차 오디션에서 초능력을 보여주며 무사히 통과한 2차 오디션 참가를 위해 기차를 타고 상경한다. 상경도중 맞은편 좌석에서 “귀공자”(최우식역)라는 알수 없는 사람이 자윤에게 “마녀아가씨”라고 부르며 갑자기 자윤의 뺨을 때린다. 주위로부터 소란스러움을 느낀 귀공자가 자리를 피하던 중 한 승객과 사소한 분쟁이 생기고 귀공자는 그의 팔을 부러뜨리고 몸을 꺾어 살해한후 그를 차창밖으로 던져 버리는 사건이 발생한다.

2차 오디션에서도 놀라운 괴력을 보여준 자윤을 지켜본 전 시설장 “닥터 백”(조민수역)은 “미스터 최”(박희순역)에게 사람을 보내 자윤을 데려 오라고 한다. 방송국앞에서 그들과 마주쳤지만 다행히 그곳을 탈출하게 되고 서울역으로 환급히 떠난다. 버스정류장에서 자윤은 또다시 귀공자와 마주치게 되고 그로부터 자윤의 부모님을 위협한 후 사라져 버린다. 그날 밤, 불길한 꿈을 꾸듯한 자윤에게 누군가 총을 겨누고 친구의 목에는 예리한 칼날이 다가온다. 깜짝놀란 자윤은 자신조차 알 수 없는 초능력이 발생하고 엄청난 스피드로 괴한들을 모두 살해하고 그들의 우두머리를 벽에 날려 버린다. 사건이 종결된후 자윤은 갑자기 정신을 회복하고 귀공자와 그 일행들이 들이 닥치면서 자윤을 강제로 연행해 간다.

유전자조작을 연구한 연구소에 도착한 자윤과 귀공자 일행은 자윤을 닥터 백에게 데려가고 닥터 백은 자윤에게 10년전 상황을 설명하고 연구결과는 성공적이었지만 실험결과가 통제불능의 상태가 되는 것을 염려하고, 유전자 조작으로 탄생한 사람들에게 대한 처리명령을 상부에서 지시하였다고 말한다. 유전자 조작으로 탄생한 사람들은 한가지 문제가 있었다. 유전자 조작인간은 지속적인 생존을 위해 뇌가 팽창되어 터지는 것을 예방하고 인간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하는 약물 주입이 필수였다. 닥터 백이 자윤에게 약물을 주입하자 모든 기능이 파워 업그레이드 되고 기괴

한 초능력이 발휘된다. 그러나 반전은 있다. 자윤은 자신의 모든 기억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이 지속적인 약물투약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알고 이들을 찾기 위해 오디션에 참가하고 스스로를 나타내는 위험을 감수했다. 자신외에 4명의 유전자 조작인원이 더 있었고 그들또한 인간보다 우월한 능력으로 파괴력을 가졌지만 자윤에게는 역부족이었다.

영화는 2편 제작을 예고하며 끝을 내 버렸다. 유전자 조작에 관한 드라마나 영화는 마녀가 처음은 아니다. 마녀는 김다미(자윤)의 화려한 변신을 등장시켰다. 권력자들은 인간의 몸에 대한 권리를 가지려 한다. 기계실험하듯 연구하고 폐기하는 일을 반복한다.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인간의 문제를 “극악”이라고 말한다. 사람은 사람에게 대하여 복음정신만이 계승되어 있다. 모든 사람은 부족하고 죄인으로 살아간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을 구원하고 인간에게 희망이 된다. 이것이 인간을 마녀로 만들지 않는 유일한 길이다.

14. “신은 죽지 않았다3:어둠속의 빛”God's Not Dead: A Light in Darkness

미국영화, 장르:드라마 개봉:2018.07.19.

감독:마이클 메이슨, 제작:앨리슨 울프,브리트니 요스트

주연:데이빗A.R.화이트,존 코베트, 관객:71,436명(2018.08.06.현재)

“성 제임스교회”는 주립대학교를 설립한 기독교회로서 15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시대의 변천과 학교재단의 새로운 변화로 인하여 비기독교인들이 학교재단에 참여함으로써 학교는 이제 미션스쿨로서의 자리를 잃어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학교내의 교회마저 존립위기에 직면해 있다.

신앙심을 잃은 “키튼”(사만사 보스카리노역)은 불신 남친인 “조시 휘튼”(쉐인 하퍼 역)과 소원한 관계에 있다. 그것이 성 제임스교회때문이라고 생각한 휘튼은 어느날 밤 캠퍼스내 교회 입구 안내판에 페인트칠을 하고 교회내로 돌을 던져 유리창을 깨 버렸다. 때마침 교회에 있었던 “데이빗 힐”(데이빗AR화이트역)목사와 친구인 “주드”목사가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에 교회주변을 살피고 있었다. 데이빗 힐 목사가 유력한 용의자를 뒤쫓을 무렵 주드 목사는 교회내 유리창이 깨진 지하로 들어갔다. 그러나 휘튼이 던진 돌이 유리창을 깨뜨리며 가스밸브를 건드리고 이로 인해 건물이 폭발하고 화재가 발생하면서 주드 목사가 사망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한다. 결국 교회건물은 완전히 붕괴되고 내부는 화재로 교회기능을 상실하고 말았다.

“토마스”총장(테드 맥킨리역)은 아내의 경제적 영향력에 예속된 채 데이빗 힐 친구목사와 경쟁구도를 갖게 된다. 학교재단의 교회폐쇄요구와 함께 다가온 교회의 화재사건과 주드 목사의 사망은 데이빗 힐 목사에게 신앙의 길이 무엇인지를 요구하고 있다. 데이빗 힐 목사는 친형이며 변호사인 “피어스 힐”(존 코베트역)을 부르고 다시 교회를 재건축하기 위해 학교와 전쟁을 하고 있다. 모든 것이 혼란스러운 데이빗 힐은 키튼의 질문에 다소 과격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 “목사님, 화재를 일으킨 사람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요?”, “당연히 무거운 처벌을 받아야 하고 그 댓가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 주어야 해”

휘튼은 여친인 키튼에게 자신이 저지른 사실을 고백하고 몹시 괴로워 하고 있다. 고통속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던 휘튼이 데이빗 힐 목사에게 자신이 화재의 범인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데이빗 힐 목사는 분노를 이기지 못한채 그를 찾아가 폭력을 휘두르고 감옥에 쳐 넣어 버린다. 사랑을 잃어버린 목사에게서 세상의 눈은 참으로 냉혹하다. 자신을 지원하는 친형 피어스 힐과도 다툼만 계속될 뿐이다. 그에게는 오직 “바바라”(테이텀 오닐역)라는 지원군만 있을뿐이다. 언론은 싸움을 부추기며 양측의 공방을 중계하듯 하고 있다. 데이빗 힐은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방법으

로 교회를 복원하고자 노력하였고 그는 교회에 도전하는 세력과 정면 충돌하며 사랑을 거부하고 전쟁을 선포하였다.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목사로서의 신앙심은 무너지고 죄악이 자라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결국 그는 새로운 교회의 터전을 마련하기로 작정하고 평화를 선언하였다. 교회의 터전엔 새로운 학생회관이 들어서고 학생신앙운동이 자리를 하며 그들을 돌보게 될 것이다. 자신이 감옥에 넣고 종신토록 고통스럽기를 바랬던 휘튼의 석방을 탄원하고 학교에서도 관대한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였다.

“신은 죽지 않았다” 그렇다. 신이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의 몫이다. 그러기 위해서 그것을 증명할 그리스도인은 분명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만 하는 것이다. 신앙의 위태로움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빛을 바라본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신앙심이 끝없이 흔들렸던 키튼이었다. 책이 아니라 삶속에서 신앙을 발견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키튼에게서 하나님은 손을 내민 것이다. 키튼을 통하여, 그리고 죽은 주드 목사를 통하여, 그리고 흑백차별속에서도 하나님을 선포해온 지역의 대표적 목사를 통해서 데이빗 힐 목사는 새로운 가치와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본 것이다.

우리의 삶에도 이와같은 위기와 위기가 찾아온다. 그때 우리도 세상과 칼을 겨누며 전쟁을 불사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사랑과 은혜를 선포할 것인가? 하는 두가지 질문에 직면할 것이다. 문제는 쉽지 않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망각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기도하며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훌륭한 선포를 이어가야 할 것이다.

15. “인랑”人狼, ILLANG : THE WOLF BRIGADE

한국영화, 장르:SF,액션 개봉:2018.07.25.

감독:김지운, 제작:루이스픽처스

주연:강동원,한효주,정우성,한상우, 관객:893,212명(2018.08.06.현재)

최정예특기대 요원 “임중경”(강동원역), 인랑의 대표적인 모델로 최정상급 비밀요원이며 조직에 대한 충성도와 용맹성이 가장 탁월한 멤버다. 빨간망토 동생이 임중경 앞에서 자폭한 후 그를 추적하는 “이윤희”(한효주역), 특기대 훈련소장으로 강력한 카리스마를 지닌 “장진태”(정우성역),公安部 차장이며 임중경의 특기대 동기로서 임중경을 추적하는 “한상우”(김무열역), 특기대의 넘버2로서 열정적인 캐릭터를 가진 “김철진”(최민호역)은 지금 2029년에 서 있다.

특기대는 “수도경비특수기동대”의 별칭이다. “박무영”(김법래역) 특기대장과 장진태 훈련소장이 운영하는 대통령직속의 경찰조직으로 특기대내에는 암살비밀조직인 “인랑”이 있다. 통일을 준비하는 대통령직속 정부위원회는 무장투쟁세력인 섹트에 대응하기 위해 가공할 화력과 무기로 특기대를 지원하며 새로운 권력의 중심에 서 있게 된다. 통일을 원하는 정부조직의 특기대와 통일을 반대하는公安部와의 권력투쟁속에서 민생은 도탄에 빠지고 반정부 무력투쟁단체인 “섹트”(SECT)가 테러리스트로 등장한다. 섹트는 국가시설과 랜드마크를 파괴하는 괴력을 과시하며 통일세력에 저항하지만 결국 특기대에 의해 하나씩 제거당하는 몰락의 길을 간다. 인랑의 세계는 미래세상에서 오직 살아남기 위한 최후의 원시적 수단이 발원한 시대적 비극이며 이것은 현실이 될 수 있는 가장 위험성 높은 경고이다. 남북분단이후 가장 강력한 권력집단으로 성장해온公安部의 쇠락에 위기를 느낀 반공세력은 특기대의 과잉진압을 명분으로 특기대 해체를 주장하며 치안정국의 주도권 다툼에 뛰어 든다.

2024년, 중국과 일본, 미국과 러시아의 4대강국 틈바구니속에서 통일준비위원회가 결성되고 5개년 계획을 선포하였다. 수많은 외세의 압박속에서 민생경제는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이 계속되고 곳곳에 반정부 무장테러단체 “섹트”가 등장하여 도시를 침몰시킨다. 이들과 대적관계를 이루며 무장반대세력으로 등장한 “특기대”가 전면에 나선으로서 도시는 피의 난장판으로 변질된다. 이 과정에서 여고생 한명을 섹트로 오인하여 실수로 살해하게 되는 비극이 발생하고 특기대 소속 요원들은 정신적 고통속에 각자 제 갈길을 찾아 특기대를 떠난다. 그러나 특기대에 여전히 남아 있는 임중경과 김철진과 요원들은 늑대인간의 탈을 쓰고 잔인한 살인자로 진화해 간다.

2029년, 정부와 특기대는 섹트 잔당요원들을 일망타진하기 위해 추적하는 과정에서 섹트요원이었던 빨간망토의 어린 소녀가 자살폭탄으로 사망하는 애기치 않은 사건

이 발생한다. 이 사건은 특기대와 권력투쟁중인公安부에게 빌미를 제공하게 되고公安부는 특기대를 소탕하기 위해 빨간망토 소녀의 친언니인 이윤희를 이용해 임중경을 제거하려고 한다. 한때 임중경의 특기대 동기로근무하였던 한상우는公安부 차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임중경과 대척점에 서 있다. 한상우는 이윤희를 이용해 임중경을 제거하려는 과정에서 이윤희에게 극심한 모멸감과 수치를 안겨 주었다. 그러나 임중경은 빨간망토 소녀의 다이어리를 이윤희에게 건네 주기 위해 그녀를 만나면서 연민과 공감과 사랑을 느끼기 시작한다. 피도 눈물도 없는 시간을 보냈던 임중경에게 도래한 변화는 사랑이었다. 그는 지난날의 잔인한 자신을 돌아보며 후회의 시간을 보내지만 벗어날 수 없다. 임중경은 후에 자신이 이윤희에게 이용당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녀를 구하기 위해 한상우와 정면으로 충돌한다.

“오시이 마모루”(Oshii Mamoru)의 애니메이션 원작을 영화화 한 “인랑”은 통일을 중심으로 권력의 핵심으로 부상하는 두 개의 별이 등장한다. 킬러로 키워진 사냥개들의 다툼처럼 권력의 라운드에서는 언제나 치열한 경쟁이 첨예하게 대립된다. 언제나 그렇듯이 희생양은 늘 변두리에서 발견한 똥개들이다. 우리 사회의 한 단면을 적나라하게 스케치한 영화 인랑은 같은 기간중에 개봉한 한국영화에 밀리는 형국에 있듯이 세상은 늘 이기는 자가 따로 있다. 영화는 끝이 났다. 2029년, 아직 도래하지 않은 이 땅엔 과연 어떤 미래가 펼쳐질까? 빈부의 격차는 심화되고 가지지 못한 자는 40년이상 노후화된 빈민촌 아파트에서 시체처럼 살아가게 될 지도 모를 일이다. 그리스도인은 지금, 고난의 때를 준비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살육의 현장에서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다면 숨어서 기도하는 겁쟁이라도 되어야 할 것이다. 통일의 설계도도 강대국의 틈바구니속에서 결코 간단치 않다. 우리는 지금 국가와 민족, 빈부의 격차와 정의와 공평을 위하여 씁쓸한 기도가 필요하다. 그것이 인랑을 생산할 수 없는 유일한 기대가 될 것이다.

16. “신과함께2:인과 연”Along with the Gods: The Last 49 Days

한국영화, 장르:판타지,드라마 개봉:2018.08.01.

감독:김용화, 제작:리얼라이즈픽처스,덱스터스튜디오

주연:하정우,주지훈,김향기,마동석, 관객:12,267,424명(2018.09.20.현재)

“저승법”에 의하면 모든 인간은 사후 49일동안 “살인, 나태, 거짓, 불의, 배신, 폭력, 천륜”에 관한 7회의 재판을 이어가야 한다. 저승법 1조1항에는 예외가 있다. “저승은 이승에서 용서받은 죄에 대해서 묻지 않는다.” 그러나 극소수의 사람만이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그 가운데 지극히 일부만이 용서를 받는 것이라는 측면에서 그 사람을 “귀인”이라고 부른다. “귀인”은 “명부에 없는 억울한 죽음을 당해 천수를 누리지 못했거나 자신보다 항상 남을 돕고 배려하며 정의로운 삶을 살았던 망자”를 의미한다.

“저승”이란 현실세계인 “이승”과 달리 사람이 죽은 후 그 혼령이 가서 산다고 알려진 세상으로 지금까지 그곳을 이승에서 본 사람은 아무도 없고 확인된바도 없지만 저승을 부인하는 사람 또한 없다는 것이 정설이다. “망자”란 망인으로도 불리우며 이승에서 생명이 완전 소멸된 사람을 의미한다. 망자는 망자 스스로 저승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반드시 그를 데려오는 저승세계의 존재가 있는데 그가 바로 “차사”다. “차사”란 “저승세계의 왕이 중요한 임무를 위하여 파견하던 임시벼슬로 관아의 하인”격이다.

천년동안 48명의 망자를 환생시킨 저승 삼차사 “강림”(하정우역)은 49번째 귀인으로 원귀이며 군인이었던 “김수홍”(김동욱역)을 선택한다. 김수홍은 소방관 김자홍의 착한 동생이다. 군생활중에서 알게 된 왕따 고문관 “원일병”(디오역)을 도와주고 군생활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었다. 그의 착한 심성으로 “박중위”(이준혁역)는 표창장을 받으며 진급대상자가 되지만 우발적인 사고로 제대를 앞둔 김수홍 병장이 원일병이 쏜 총을 맞고 중태에 빠지게 된다.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김수홍은 박중위와 가해자인 원일병을 최대한 배려하였지만 박중위와 원일병은 아직 생사가 불투명한 김병장을 생매장 시켜 사건을 은폐한다. 죄책감에 시달린 원일병이 자살을 결심하지만 수홍의 진심어린 용서와 강림의 도움으로 구사일생한다. 그러나 김수홍 병장의 선행으로 진급에 까지 이르는 박중위의 태도는 사뭇 대조적이다. 시각장애인 어머니가 진실규명을 위해 군부대에서 시위를 하자 폭력적 행위로 밀어내는 등 사악한 행동을 서슴치 않았다. 원통한 한을 품은채 원귀가 된 수홍은 폭력적 행위로 사악한 무리를 단죄하려 하지만 강림과 대치하며 심성을 바로 잡으려 한다. 그리고 김수홍은 49번째 귀인으로 재탄생한다.

“염라대왕”(이정재역)앞에 선 삼차사 강림은 소멸되어야 할 원귀 수홍을 귀인으로 선택하는 조건으로 “성주신”(마동석역)을 궤멸하고 이미 명이 끝난지 오래된 “허춘삼”(남일우역)을 저승으로 데려오는 일을 맡기로 했다. 연로한 허춘삼은 손자 “허현동”(정지훈역)을 보살피며 겨우 빈곤의 삶을 이어가던 중 생명이 다하여 저승차사이며 가택신인 성주신에 의해 저승으로 가야할 몸이었다. 그러나 성주신은 어린 손자에게 연민을 느끼고 저승법을 어긴채 이승에서 인간의 몸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동안 저승에서 성주신을 척살하고 허춘삼을 데려 가기 위해 수많은 차사들을 보냈지만 속수무책으로 당한채 허송세월만 보내고 있었다.

귀인환생 재판을 위해 강림은 수홍을 데리고 지옥문을 통과하는 동안 일직차사 “해원맥”(주지훈역)과 월척차사 “이덕춘”(김향기역)은 성주신을 척살하고 허춘삼을 데려오기 위해 이승으로 내려간다. 허춘삼의 집에 도착한 해원맥과 덕춘은 손쉽게 성주신을 척살하려 했으나 그들 또한 성주신의 괴력에 짓눌려 제압을 당하고 만다. 결국 어린 손자 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할때까지만 허춘삼의 생명을 연장하기로 하고 불편한 동거가 시작된다. 재개발구역에 포함된 허춘삼의 주택에는 연일 사채업자들이 나타나 위협을 가하고 주변은 우범지역으로 급격히 쇠락하고 있었다. 해원맥은 사채업자와 철거업자들을 제압하며 가족들을 지키기에 여념이 없는 가운데 성주신으로부터 천년의 비밀을 듣게 된다.

때를 같이하여 강림과 수홍도 지옥의 경로를 따라 이동을 서두르고 있다. “살인지옥”은 살인을 했거나 살인의 원인제공에 가담하는 언행을 한 사람에 대한 심판지옥으로 화염과 연기로 채워진 “화탕영도”를 지나야 도달한다. 죄인은 용암이 타오르는 불구덩이에 던져지는 화탕형을 받게 되며 이곳의 지도자는 “변성대왕”(정해균역)이다.

“나태지옥”은 무위도식하며 태만과 불성실로 인생을 허비해 버린 사람을 심판하는 지옥으로 사람얼굴의 날카로운 이를 가진 인면어가 날뛰는 “삼도천”을 지나야 도달한다. 죄인들은 끊임없이 회전하는 붓을 피해 평생토록 달려야 하는 형벌을 받게 되며 이곳의 지도자는 “초강대왕”이다. 환생을 거부하며 강림의 재판에 불만을 가진 수홍은 여전히 뼈딴선이다. 그런 수홍을 높은 기둥에 매단 강림은 수홍을 하늘위로 올린채 낚시하듯 먼 바다 속으로 내려 버린다. 물고기밥 신세가 된 수홍이 기진맥진한 상태로 구원을 요청하고 결국 강림과 수홍은 한 배를 탄다. “거짓지옥”은 생전에 하였던 거짓말과 거짓행위에 대하여 심판하는 지옥으로 칼날로 이루어진 “검수림”을 지나야 도달한다. 검수림의 나무들이 망자의 육체를 난도질하는 형벌을 가하는데 이곳의 지도자는 “태산대왕”이다.

“폭력지옥”은 폭력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심판하는 지옥으로 죄질에 따라 그 깊이

가 결정되는 “진공심혈”을 지나야 도달할 수 있다. 죄인은 진공상태의 싱크홀을 떠다니며 날아 다니는 바위 덩어리에 맞는 치명적인 형벌을 받게 되는데 이곳의 지도자는 “진관대왕”(장광역)이다. “불의지옥”은 불의한 자를 심판하는 지옥으로 빙하와 설원으로 이루어진 “한빙협곡”을 지나야 도달할 수 있다. 죄인은 얼음덩어리속 얼음블록에 갇혀 평생 지내야 하며 이곳의 지도자는 “오관대왕”(이경영역)이다. 지옥재판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원일병이 증인심문 과정에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강림은 더욱더 고립되어가는 처지가 된다.

성주신으로부터 베일에 가려진 천년전의 이야기는 그야말로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스토리였다. 천년전 강림은 “밀언”이라는 이름의 “강문직”(김명곤역) 대장군의 아들이었다. 그는 여진족 정벌에 출전하여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하며 고구려의 영웅으로 등장하였다. 그는 아들 강림을 언제나 전쟁터에 동반하며 용사로서의 자세를 가르쳐 왔다. 그러던 어느날 자신의 말이 죽어가는 것을 슬퍼한 여진족 아이 해원맥을 발견하고 그를 자신의 양아들로 삼는다.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이었다. 해원맥을 질투한 강림은 해원맥에게 온갖 하대를 하였지만 그럴수록 양아들에 대한 아버지 강문직 대장군의 총애는 깊어만 갔다. 아버지로부터 군사훈련과 기술을 전수받은 해원맥은 장수로서도 탁월한 능력과 지략을 보여주며 큰아들 강림을 능가하고 있었다. 여진족과의 대전투에서 아버지가 전사하고 대장군의 자리에 오른 강림은 밀언이라는 이름으로 의붓동생인 해원맥을 최전선으로 보내 버린다. 탁월한 전술지략을 겸비한 해원맥은 “하안살”이라는 별칭으로 여진족의 심장을 떨게 하였으며 가는 곳 마다 쑥대밭을 만들어 초토화 시켜 버렸다. 그 과정에서 덕춘의 부모를 살해하게 되고 이 장면을 목격한 여진족 여자아이 덕춘은 어린 아이들을 피신시키며 산속 깊은곳으로 은둔해 버린다. 그러나 먹을 것이 없는 산속에서 아이들이 영양실조와 질병으로 고통을 받게 되자 마을 아래로 내려와 식량을 구하던 중 호랑이를 만나 죽음에 직면하였으나 때마침 그곳을 지나던 해원맥이 호랑이를 즉살하여 덕춘을 구해내게 된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해원맥은 덕춘과 여진족 아이들을 보살펴 주게 되고 군량미를 그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대장군 밀언(강림)에게 벌미를 주게 된다. 결국 밀언이 전선에 나타나 해원맥의 부하들을 일망타진하고 해원맥의 목숨과 여진족 아이들의 목숨마저 가져 가려 하자 해원맥은 생명을 걸고 여진족 아이들을 구출하고 자신은 밀언에 의해 죽음을 앞두지만 돌아온 덕춘에 의해 밀언까지 모두 죽음을 맞이하는 비극이 발생한다. 사과의 기회를 이미 상실해 버린 관계지만 해원맥과 덕춘은 자신의 과거를 알지 못했고, 가해자인 강림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 모든 것을 알게된 해원맥과 덕춘의 관계가 복잡해 지고, 강림과의 관계까지 미묘해지는 순간, 성주신의 항아리가 깨지면서 성주신마저 사라져 버린다.

원일병이 죽은후 강림은 수홍의 변호를 위해 결국 박중위까지 천상의 세계로 끌어올려 증인으로 세운다. 염라대왕까지 증언대에 세운 강림은 천년의 비밀을 스스로

폭로하며 박중위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려고 애를 쓴다. 결국 박중위가 진실의 입술을 열고 수홍은 매우 당황해 하며 충격을 받는다. 재판과정에서 강림이 아버지의 죽음을 방기한 죄가 다시 드러나지만 그 죄책감으로 다시 아버지를 찾아 나섰던 사실 또한 명확히 드러난다. 재판은 끝나고 강림과 해원맥과 덕춘은 진실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 진실은 곧 용서와 화해다. 수홍은 환생 결정이 나고 다시 지상으로 내려가는 순간 뒤따라온 염라대왕으로부터 차사 제안을 받는다.

역시 만화다운 영화는 끝이 났다. 여름 폭염속에서도 가장 빠른 속도로 극장가를 휩쓸고 있다. 영화 쓰나미다. 벌써 3탄 예고다.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이러한 영화가 우려스럽다. 그러나 이것은 현실이다. 영화의 위험성은 청소년들과 관객들에게 심어주는 어떤 종교적 현상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불교라고 말하지만 사실 이것은 불교도 아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아무 의미없는 재미에 불과하다. 그러나 여기에 열광하는 팬들이 있다는 것이 문제다. 그리스도인에겐 정말 놀라운 기적이 수없이 펼쳐져 있다. 문제는 무관심이다. 이제 이러한 무관심, 불신앙을 되돌려 놓을 성령의 역사와 실재가 필요하다. 바로 지금이 그때다.

17. “물괴”Monstrum

한국영화, 장르:액션 개봉:2018.09.12.

감독:허종호, 제작:태원엔터테인먼트

주연:김명민,김인권,혜리,박성웅,박휘순,이경영,최우식,

관객:687,456명(2018.09.20.현재)

“생기기는 삽살개 같고 크기는 망아지 같은 것이 취라치 방에서 나와 서명문을 향해 달아났다. 서소위 부장의 보고에도 ‘군사들이 또한 그것을 보았는데, 충찬위청 모퉁이에서 큰 소리를 내며 서소위를 향하여 달려왔으므로 모두들 놀라 고함을 질렀다. 취라치 방에는 비린내가 풍기고 있었다’고 했다.”(중종실록59권,중종22년6월17일)

“어리석은 백성들이 미혹되어 형태가 있다고도 하고 혹은 소리와 냄새가 났다고도 하니, 근거없는 괴설(怪說)이 어찌면 이렇게 심할 수가 있겠습니까? 슬기로운 이는 미혹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진실로 사실을 밝혀 진정시켜야 할 것입니다.”(중종22년6월26일,조선왕조실록중에서)

“물괴”는 조선 중종22년, 어느날 갑자기 인왕산에 나타난 흉악한 짐승이 사람을 죽이는 기이한 일이 일어났는데 그 괴물은 전무후무한 짐승으로 사물 물(物)과 괴이할 괴(怪)를 사용하여 물괴라고 불렀다. 이 영화는 실화를 배경으로 시작되었다.

중종22년, 인왕산에 거대한 물괴가 나타나 무고한 사람들을 죽인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물괴에게 당한 백성들은 그곳에서 잔인한 죽임을 당하거나 살아남게 되어도 역병에 걸려 끔찍한 고통속에 결국 죽음을 맞이한다. 왕궁을 비롯하여 한양 전체가 공포의 도가니속에 빠지고 정치권은 혼란에 휩싸인다. “중종”(박휘순역)은 영의정 “심윤”(이경영역)과 관료들의 정치적 계략이라 생각하고 물괴수사관을 임명하여 진상조사에 나선다.

구(舊), 내금위장 “윤겸”(김명민역)을 중심으로 자신의 딸 “윤명”(혜리역)과 “성한”(김인권역)은 지방의 산속에서 사냥을 하며 살고 있다. 한양에서 내려온 “허선전관”(최우식역)이 윤겸을 찾고, 중종까지 윤겸을 만나게 된다. 윤겸은 과거 내금위장 재직시 반정세력들이 역병에 걸린 마을 사람들을 죽인 일들로 인해 위기에 처한 내금위장을 구명하기 위해 중종이 의도적으로 해임한 것이었다. 그후 뜻하지 않은 물괴사건이 발생하고 중종은 윤겸을 물괴사건의 진상조사 책임자로 임명한다.

인왕산 인근지역에서 물괴를 막기 위한 무당굿을 행하던 중 한양지역의 가난한 소녀가 굿판의 음식을 몰래 훔쳐 가기위해 숨어 있었다. 그때 갑자기 굿을 하던 무당

과 곳에 참여하였던 사람들이 무차별적으로 죽음을 맞이 하였고 그 소녀는 이 일의 유일한 목격자가 된다. 때마침 한양으로 올라와 주막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윤겸일행은 허선전관으로부터 사건발생 소식을 듣고 사건 현장으로 달려간다. 시체들은 모두 사지가 찢겨 나가고 의문의 줄 자국이 남아 있는 것을 발견한다. 증인이었던 소녀는 물괴가 모두 죽었다고 말하였지만 의구심을 가진 윤겸이 다시 물어보자 누군가 물괴가 죽었다고 말하면 양식을 주겠다고 하여 그렇게 말한것이라고 한다.

물괴로 인하여 민심이 흉흉해지자 중종은 삼남군대로 수색대를 편성하려 하지만 대신들은 국경수비대를 움직이는 것에 반대하고 그때 영의정이 착호갑사를 이용해 수색대를 편성할 것을 건의한다. 이에 중종은 착호갑사들과 한양 백성 가운데 100명을 선발하여 수색대를 편성한다. 수색대 대장으로 임명된 윤겸은 물괴 수색을 위해 2개조로 편성하고 착호갑사 대장인 "진용"(박성웅역)을 2조 수장으로 위임한다. 착호갑사가 아닌 백성징발에 불만을 가진 진용은 백성들을 선봉에 세우고 착호갑사들에게 이들을 죽일 것을 명령한다.

윤겸은 물괴를 수색하던 중 절벽밑으로 아주 큰 발자국을 발견하고 밧줄을 내려 수색하는 가운데 갑자기 진용과 착호갑사들이 나타나 윤겸의 수색대를 급습한다. 허선전관과 윤명은 밧줄에 묶인채로 절벽 아래로 떨어지고 윤겸은 그들과 맞서 싸우다가 성한과 함께 포로가 된다. 진용은 물괴가 있다고 신호탄을 발사한뒤 마치 물괴가 한 짓 인것처럼 꾸미기 위해 윤겸과 성한을 죽이려고 급박하며 착호갑사가 절벽 아래로 누군가를 향하여 화살을 당겼다. 그 순간 절벽 아래 물괴가 절벽아래에서 착호갑사들을 죽이며 그들을 추적하고 겁에 질린 진용과 착호갑사들은 혼비백산하여 도주를 한다. 윤겸과 성한 또한 구사일생으로 살아남고 절벽 아래에서 윤명과 허선전관을 찾아 낸다. 그때 어디선가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한 노인이 나타나 진액을 주면서 물괴를 잡으려면 몸에 진액을 발라라고 하였다. 윤겸과 그 일행들이 진액을 바르던 중에 물괴가 돌아왔지만 진액으로 인하여 물괴의 시각이 퇴화 되는 일이 발생한다. 그러나 또다시 물괴가 눈을 뜨자 일행들은 모두 절벽 아래 물위로 떨어진다.

구사일생으로 도망쳐 나온 착호갑사 대장 진용은 영의정에게 달려가 물괴가 실제로 있다고 고하고 영의정은 이것을 역모의 기회로 삼으려고 한다. 진용은 백성들에게 물괴에게 당하였다고 거짓으로 시체를 보여 준후 민심을 교란시키고 물괴가 역병을 발하였다고 소문을 내며 백성들의 가옥에 불을 지른 후 백성들에게 치료제와 물품을 지원하여 자신을 지지하도록 유도한다.

한편 노인을 따라 절벽에서 물길을 따라 올라간 윤겸 일행은 궁궐과 이어진 통로를 발견한다. 노인은 연산군 시절, 동물 먹이를 주던 관리사였다. 연산군은 특이한 성격

으로 흉물스럽고 괴이한 동물들을 명나라와 서역에서 구입하여 경복궁 아래 “조준방”(調隼坊)을 설치하여 동물감상을 취미로 여겼다. 그러나 중종반정이후 당시 병조 판서였던 심운(현,영의정)이 조준방에 있는 모든 동물들을 죽이라고 명령했고 노인은 그때 어린 새끼였던 물괴를 비밀리에 놓아 준 것이었다. 이때 물괴가 윤겸 일행을 추적하여 조준방에 침입하였고 노인은 자신을 미끼로 하여 윤겸 일행을 탈출 시킨다. 윤겸은 중종을 만나 모든 사실을 고하지만 영의정의 모반으로 중종은 영의정의 화살을 맞고 위기를 맞는다. 그러나 갑자기 나타난 물괴에 의해 영의정의 수하들을 대부분 몰살하고 그 틈을 이용하여 윤겸은 중종과 피신을 떠난다.

윤겸은 윤명에게 대궐문을 잠궈 물괴가 궁궐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고 성한과 허선전관은 조준방에 폭약을 설치할 것을 지시한다. 윤명이 대궐문을 닫으려 할 때 백성들이 몰려오고 동시에 영의정마저 나타나자 윤명은 이 모든 짓이 영의정이 한 행위라고 고발하여 백성들의 분노를 일으켰다. 이에 백성들이 영의정과 그 무리들을 다시 궁궐안으로 몰아넣고 윤명은 대궐문을 잠궈 버린다. 허선전관과 성한이 조준방에서 폭약을 설치하던 중 진용이 나타나 압도적인 우위로 그들을 제압할 무렵 윤명의 화살이 진용의 목을 관통하며 그의 인생의 종지부를 찍는다. 윤겸은 물괴를 조준방까지 유인하지만 물괴에 의해 폭발물의 불이 꺼지고 결국 윤겸은 모든 사람들을 밖으로 내 보낸 뒤 물괴를 다시 유인하여 폭발물을 터뜨린다. 죽은 줄 알았던 윤겸이 극적으로 살아 돌아오고 윤겸과 성한은 한양에 남아 있어 달라는 중종의 요청을 거절하며 다시 낙향의 길을 떠난다.

영화는 끝이 났다. 실화를 배경으로 한 이 영화는 마지막 엔딩에서 근정전까지 파괴시켜 가며 최후의 결전을 벌인다. 스토리 구성보다 액션 그 자체가 중요한 영화다. 역사극도 아니고 시대의 정치적 상황을 빚댄 영화도 아니다. 그러나 물괴라는 하나의 도구를 통하여 사람들의 마음과 행동이 얼마나 우와좌왕하는지를 극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리스도인은 이 영화에서 “물괴”라는 세상을 만난다. 인간이 부른 재앙에는 언제나 “욕심”이 있다. 경쟁을 넘어서 독차지하려는 욕심은 인간의 욕망의 끝을 보는 마지막 경고다. 아무리 중요성을 강조해도 변하지 않는다. 그만큼 세상이 악으로 도배되어 있다는 반증이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다. 뒤섞이고 뒤엉켜 진리를 훼손하고 듣지도 않으려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아니라고 부르짖어야 하고 STOP을 외쳐야만 한다. 이것이 진리를 가르친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명령인 것이다.

18. "공작" The Spy Gone North

한국영화, 장르:드라마 개봉:2018.08.08.

감독:윤종빈, 제작:사나이픽처스

주연:황정민,이성민,조진웅,주지훈, 관객:4,969,212명(2018.09.20.현재)

영화 "공작"은 암호명 "흑금성"의 실화를 배경으로 제작되었다. 영화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몇가지 용어에 대한 개념이해가 필요하다. 먼저 "휴민트"다. 휴민트는 사람을 이용해 정보를 취득하는 방법으로 실제로는 대북공작원을 호칭하는 의미로 사용한다. "블랙요원"은 신분을 숨기고 활동하는 스파이를 흑색요원, 즉, 블랙요원이라고 부른다. "화이트요원"은 정보기관 소속을 밝히고 활동하는 요원으로 외교관과 국방무관의 신분으로 활동하며, 대표적으로는 미국의 INR요원을 말한다. "코드원"은 대통령 또는 국가원수급 국빈을 의미하고 "VIP"라고 칭하기도 한다.

1993년, 3군사관학교 출신 정보사령부 공작단 소령 "박석영"(황정민역)은 국가안전기획부 해외실장 "최학성"(조진웅역)에 의해 블랙요원으로 채용된다. 박석영은 신분 세탁을 위해 군 제대 후 술과 도박으로 재산을 탕진하고 전우들로부터 거액의 사업 자금을 빌려 갚지 않는 등 물의를 일으킨다. 그후 북한 핵개발의 조력자 조선족 핵물리학자 "김장혁"교수(박진영역)의 한국입국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김교수의 제자인 "황병철"(채용역)에게 접근, 학술회를 미끼로 한국입국을 성공시킨다.

최학성은 그후 김교수에게 북한 핵보유정보를 듣고 북한 핵개발에 관한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 박석영을 중국 베이징의 대북사업가로 위장 파견한다. 최학성은 이러한 기밀성 유지를 위해 박석영을 이른바 흑금성으로 부른다. 흑금성에 대한 정보는 코드원, "안기부장"(김응수역) 뿐이라고 최학성은 귀뜸한다. 박석영은 중국 베이징에서 속물근성이 강한 대북사업가로 활동하며 조총련계 재일교포 "키요하라 히사시"(김인우역)를 통해 북한 고위층에 접근을 시도한다. 그후 북한 정보원들이 감시망을 확보하고 박석영의 호텔룸에서도 도청기가 발견된다. 박석영과 최학성은 북한이 미끼를 물었다고 판단하고 중국산 농산물을 북한산으로 속여 밀수출하려다가 적발되는 공작을 벌여 북한측 무역회사 사장 "장성훈"(곽자형역)을 공안에 체포되게 한다. 북한 공산당에서는 베이징 주재 북한 대외경제위원회에 장성훈 석방을 명령한다. 그러나 북한대외경제위와 국가안전보위부 자금을 모두 합쳐도 석방비용 25만달러에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결국 대외경제위 "리명운"(이성민역) 처장이 급전을 찾는 과정에서 박석영과 접촉을 시도한다. 리명운은 북한식당 "고려관"에서 박석영을 만나 칭찬을 하며 남측 기밀정보를 요구하였다. 며칠후 박석영은 남한의 모 국회의원이 연예인과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기밀성이 없는 내용을 리명훈과 보위부 "정무택"(주지훈역) 과장에게 제시한다. 박석영은 그와 함께 25만달러의 보석금과 공안회

유비 1만달러를 건네었다. 정무택은 감도 안되는 정보에 의심의 눈을 보내며 남한 측 기밀을 통째로 넘기라는 제안을 한다. 이에 박석영은 거래끝이라며 돈을 다시 되가지고 밖으로 나가 버린다. 저녁시간 리명운으로부터 다시 만나자는 제의가 오고 박석영은 자신의 호텔라운지 레스토랑에서 리명운, 정무택, 그리고 대외경제위 "김명수"(김홍파역)부장을 만난다. 리명운은 박석영에게 술을 건네며 잔을 받지 않으면 사업의지가 없다고 판단하겠다고 엄포를 놓지만 공작원 신분상의 실수를 우려한 박석영은 부친이 술병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핑계로 술을 마시지 않는다. 정무택이 술 한잔에 가족사를 거명하며 모욕적인 발언을 하자 박석영은 욕설로 받아치고 화가 난 정무택이 총을 겨누는 위기일발로 치닫는 순간 리명운의 중재로 화해의 순간을 맞는다. 잠간 화장실로 간 박석영은 변기칸에 미리 준비한 녹음기를 양말속에 숨기고 롤렉스시계 선물꾸러미를 들고 돌아간다. 그때 정무택과 휘하 요원들이 다시 의심을 품고 박석영의 몸수색을 시도하자 롤렉스 시계들이 바닥에 쏟아진다. 이 장면을 목격한 리명운과 김명수는 박석영의 성의에 감탄하며 정무택을 꾸짖고 박석영을 신뢰한다. 박석영은 리명운과 독대하며 북한사업에 독점적 활로를 장담한다. 리명운은 박석영에게 고려청자 짝통을 남한에서 현금화 해 달라는 마지막 테스트를 하고 박석영은 리명운에게 고려청자의 가치와 북한 회귀성 외제 약품까지 추가하여 절대적인 신뢰를 얻는다.

박석영은 북한사업을 명분으로 제일기획출신 광고기획자 "한창주"(박성웅역)와 함께 남한 대기업 광고를 북한에서 촬영하며 북한의 핵개발 실상을 알아낸다는 계획을 세운다. 그러나 박석영이 우연하게 마주한 남한 블랙요원이 리명운과 접촉한 후 의문의 죽음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또한 남한 총선 직전 유력야당 정치인 김대중의 정치적 상승세를 꺾기 위한 남북수뇌부 기획으로 북한군이 DMZ에 포격도발하는 사건이 일어나 박석영을 당황케 한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박석영은 호텔 나이트클럽에서 리명운을 만나 광고기획안을 안내하고 리명운은 평양의 지도자 동지에게 가능성을 보고한다. 몇 달후 리명운은 평양지도자의 면담허가로 박석영과 함께 평양을 방문한다. 정무택의 안내를 받아 평양시내 별도의 안가에 도착한 박석영은 전염병 검사를 위해 혈액검사를 한다. 그러나 정무택의 혈액검사는 전염병 검사가 아니라 마취제와 자백제를 투여한 것으로 박석영의 혼미한 상태를 틈타 자백심문을 시행한다. 그후 정신을 회복한 박석영은 안대가 씌워진 상태로 어디론가 끌려가는 가운데 그는 자결용 독침을 만지작 거린다. 정무택은 박석영에게 녹음기를 들려주고 정보사 소속 공작관이라는 박석영의 목소리가 들린다. 권총을 겨누는 정무택이 다시 녹음기에 귀를 기울이고 나는 돈주는 사람, 찌주를 섬긴다는 박석영의 단호한 음성이 들린다.

결국 박석영은 리명운을 만나 "김정일"(기주봉역)을 만난다. 김정일을 설득한 박석영에게 김정일은 골동품 유물 등 비자금을 현금화 해 달라는 요청을 받는다. 김정일

의 허락을 받은 박석영은 한창주, 리명운, 김명수, 정무택과 함께 백두산, 금강산, 개성 등 북한 내 주요 관광지 답사와 촬영을 시작했으나 평안북도 영변군의 촬영은 허락되지 않았다. 리명운에게 진달래꽃 시를 상기시키며 영변지역 촬영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한 박석영은 정무택에게 영변지역 인근에 고구려능이 있는데 발굴하여 김정일 지도자 동지에게 알리자고 제의해 영변촬영 허가를 취득한다. 박석영과 리명운과 김명수는 영변으로 향하고 리명훈은 초상휘장을 그들에게 주며 차안에서 기다린다. 김명수는 그곳에서 거리에 나뒹구는 꽃제비들과 시체무덤을 발견하고 체제불만을 토로한다. 박석영은 화제를 돌리며 김명수에게 휘장에 도청장치가 있으니 말 조심하라는 사인을 보낸다. 역시 리명훈은 휘장에 도청장치를 설치하였고 김명수는 그 후로 보이지 않았다.

1997년, 대선직전, 작전이 순항을 하고 있을 때 대북사업가의 이미지를 벗고 메신저 역할을 주문하는 지시가 안기부로부터 하달된다. 김대중 정권의 탄생으로 안기부가 국가정보원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개편되는 과정에서 위기를 느낀 정치가들의 김대중낙선을 위한 승부수였다. 수상한 야합을 감지한 박석영은 베이징에 여당의원과 최학성이 도착한 상황에 당황하며 이들의 대화내용을 도청한다. 이들은 안기부와 신한국당과 북한 내 주전파도 김대중의 대통령 당선을 원하지 않는 만큼 400만달러 제공을 조건으로 서해5도 국지도발을 요청한 것이었다. 이 조건에 김정일은 승낙하였으나 리명운은 회의적이었다. 자신에게 북핵위치를 파악하라는 지시를 내렸던 최학성이 북한측 리명운과 더러운 협상을 하는데 분개한 박석영은 리명운을 만나 비즈니스의 뜻은 사업과 모험이 있다고 말하며 최후의 비즈니스를 제안한다. 평양으로 날아간 박석영은 남한 여당의 제안이 김정일에게 전혀 이득이 없고, 오직 남측의 기득권과 북측 강경파에게만 유리한 것이라고 설득하여 마침내 성공한다. 김정일은 대남도발을 미루고 강경군부를 숙청함으로써 남한에서는 김대중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

리명운은 박석영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여 호연지기가 기록된 넥타이핀을 선물로 주며 신뢰감을 보인다.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 남측 안기부는 총풍계획을 덮기 위해 언론사에 흑금성의 정체를 폭로하고 꼬리 자르기를 시도한다. 이러한 정보가 리명운의 귀에 들어가고 박석영은 죽음의 위기에 직면하지만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리명운은 마지막 남은 우정으로 박석영에게 권총과 김정일 친필의 국경연선 여행증명서와 약간의 자금을 건네며 탈출을 도와 준다. 자신은 몇 안되는 외화벌이 사업가이기 때문에 숙청하지 못할 것이라고 박석영을 안심시켰다. 박석영은 살아 남았지만 안기부는 국가정보원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옷을 갈아 입었고, 북풍사건의 책임자들은 구속되었다. 박석영은 자신의 지난날을 회상하며 도대체 무엇을 위해 공작을 하고 공작원이 되었는지 회의를 느낀다. 그후 리명운은 체포되어 고난을 겪고, 정무택은 숙청을 당한다.

2005년, 이효리가 참여하는 북한과 애니콜 광고를 찍는데 성공한 한창주와 박석영은 10년걸린 광고 뒷이야기를 회상한다. 이효리와 조명애가 악수를 하는 동안 북한 측 인사들 사이에 리명운이 서 있다. 리명운은 박석영을 보며 롤렉스 시계를 보여 주고, 박석영은 리명운을 향하여 넥타이 핀을 보여 준다. 박채서가 대북사업 중 2010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후 징역형을 받고 2016년에 출소하였다는 소식으로 영화는 끝이 난다.

영화 공작은 국가의 아두운 그림자를 비추며 추악한 모습을 드러낸다. 물고 물리는 이중 정치인들의 공작속에서 희생된 흑금성은 나약한 민초들의 모델처럼 보여진다. 그리스도인은 무슨 고민을 해야 할까? 사실은 진심에 근거해야 한다. 진심이 담겨져 있지 않은 어떤 사실도 위험한 결과를 초래한다.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사실의 뒤에 가려진 진실을 보지 못한다. 우리는 좀 더 영적인 것을 원해야 한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부분들로 인해 우리가 잘못 선택하고 잘 못 결정해서 원하지 않는 길로 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러한 공작적 인생은 없었는지 가만히 돌아 볼 시간이다.

19. “목격자”Witness

한국영화, 장르:스릴러 개봉:2018.08.15.

감독:조규장, 제작:AD406

주연:이성민,김상호,진경,곽시양, 관객:2,524,170명(2018.09.20.현재)

“송태호”(곽시양역)는 검정색 승용차를 운전하며 주유소로 진입한다. 차 트렁크에는 납치된 한 여성이 있고 여성은 살려 달라고 쿵쿵 거리며 주유소 아르바이트를 유도하지만 차창을 열고 음악볼륨을 아주 크게 틀어놓은 태호로 인하여 눈치채지 못한다. 인적이 드문 야산에 차를 세운 태호는 납치한 여성을 묻어 버리려고 땅을 파들어간다. 땅을 다 판 태호가 트렁크 문을 여는 순간 여성이 태호의 얼굴을 가격하고 도망을 친다. 아파트 담장을 넘은 여성이 살려 달라고 소리지르며 필사적으로 도주한다. 보험회사에서 일하는 “한상훈”(이성민역)은 회사동료들과 밤 늦은 시간까지 회식을 하고 술에 취한 채로 귀가길에 있다.

새벽 2시경, 아파트 엘리베이터안에 같이 탄 4층 집 여자가 소리지르는 소리를 못 들었냐고 묻지만 상훈은 들은게 없다. 그러나 곧이어 집에서 “살려주세요”라는 비명 소리를 듣게 되고 아파트 주차장에서 여성을 살해하는 태호를 목격한다. 휴대폰을 켜 경찰에 신고하려고 키패드를 누르는 순간 잠에서 깨어 일어난 상훈의 아내 “수진”(진경역)으로 인해 휴대폰을 거실 바닥에 떨어뜨린다. 이 순간 살해현장을 목격한 상훈은 살인자인 태호와 정면으로 눈동자가 마주친다. 당황한 상훈은 거실로 달려가 소등하지만 상훈의 아내 수진은 남편이 술에 취해서 그런줄로 착각한다. 다시 베란다로 가서 신고하려고 상훈이 폰을 열었을 때 폰에는 배터리가 없었다. 배터리를 찾다가 포기한 상훈이 창밖을 내다 보았을 때 상훈은 태호가 상훈의 집 층수를 손가락으로 헤아리는 것을 발견한다. 소름이 돋은 상훈은 야구방망이를 들고 도어락을 재확인하고 모든 안전고리를 확인한 후에야 자리에 앉는다.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난 태호는 마지막 숨을 가쁘게 쉬며 경찰에 신고전화를 하려던 여성을 확인사살하고 유유히 사라진다.

다음날 아침, 아파트는 경찰차와 언론과 입주민들의 인파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 장면을 베란다에서 바라본 상훈은 목격자를 찾는 경찰을 피해 회사로 출근한다. 회사에서 하루종일 일손이 잡히지 않는 상훈은 작은일에도 소스라치게 놀란다. 경찰들이 목격자 탐문을 하며 상훈의 집을 찾아가 수진을 만난다. 수진은 그 시간에 수면중이었고 남편 또한 집에 와 있었다고 진술하면서 남편이 어느 순간 갑자기 거실 불을 끄려고 했다고 증언한다. 경찰들이 베란다에서 사건현장을 바라보며 나가려 할 때 상훈의 딸 “은지”(박봄역)가 자신의 강아지 뽀삐를 찾아 달라는 전단지를 건넨다. 퇴근길에 뽀삐전단지를 보고 깜짝 놀란 상훈이 전단지를 모두 수거해 버린

다. 수진에게 전화를 한 상훈은 전화번호를 이렇게 쉽게 드러내면 안된다고 말한다. 귀가길 도중에 자신을 뒤따르는 오토바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마침 경찰을 만나게 된다. 경찰이 탐문수사를 하며 용의자 사진을 보여 주지만 오토바이 운전자의 시선이 두려워 모른다고 답하고 환급히 집으로 향한다. 집에서 수진은 집값 하락을 염려한 입주자회에서 나누어 준 수사비협조를 골자로 하는 동의서를 내밀며 사인을 할 것을 듣고 화를 내지만 상훈은 정작 인터넷 제보조차도 두려워서 하지 못한다.

피해여성을 스토킹한 한 남자가 범인으로 지목되고 경찰이 그를 추적중에 있다. 뉴스에 유력한 용의자가 청산가리를 먹고 자살하여 사건이 종료되었다는 발표가 나자 상훈은 모자쓴 범인을 재현하며 자살한 사람이 진범이 아니라는 생각을 굳힌다. 형사 "재엽"(김상호역)은 후배 형사와 함께 용의자 자택을 수사하던 중 범인이 따로 있음을 직감한다. 그러나 후배형사는 이미 종료된 사건이라면서 증거사진들을 보여 준다. 접근처를 돌아 다니던 재엽은 바퀴자국을 발견하고 사건당일 도난차량이 있다는 것을 숨긴 후배형사를 다그친다.

누군가 상훈의 집 초인종을 누르고 있다. 그때 현장을 목격한 또다른 목격자 인 4층의 여자 "서연"(배정화역)이 상훈을 설득하며 경찰에 신고하자고 하지만 상훈은 거절하며 서연을 쫓아내 버린다. 상훈의 집을 나온 서연은 엘리베이터에서 태호와 함께 조우한다. 그러나 그가 1층으로 내려가는 것을 보고 안심하던 순간 범인이 달려오고 있다. 때마침 4층 서연이 휴대폰을 두고 간 것을 발견한 상훈이 4층 여자의 집으로 갔을때 이미 서연이 태호에게 망치로 맞아 사망직전에 있는 것을 발견한다. 상훈은 이 광경을 목도하며 도망가려 할때에 서연의 폰에 벨이 울리고 태호와 상훈의 추격과 도주가 시작된다. 두명의 목격자 가운데 한명이 죽은 후 상훈은 더욱더 겁에 질려있다. 경찰의 목격자 증언에 대하여 몇 번의 기회를 놓쳐 버린 상훈과 달리 자신의 아내 수진은 상황대처가 민첩하다. 상훈은 아내 수진에게 그간의 모든 일들을 밝히고 다음날 경찰에 출석하여 증언하지만 태호는 전자레인지에 부탄가스를 넣어 폭발시키며 상훈의 집으로 향하였다. 허탕을 친 경찰이 나타났을 때 상훈은 태호가 자신의 집으로 갈 것을 직감하지만 집 앞 도로가 사고로 막혀 있다.

수진이 마음을 경계하며 경찰에서 찾아온 형사를 맞이할 무렵 뒤쫓아온 태호가 경찰을 살해하고 수진은 안방으로 숨어서 딸을 장롱안에 숨기며 화장대로 문을 막는다. 태호가 문을 부수고 들어오자 딸을 집 밖으로 도피시키고 자신은 망치로 태호를 내리치며 도주를 한다. 태호는 수진을 추적하다가 사람들을 바라보며 야산으로 도주하고 비겁한 상훈이 드디어 용기를 내어 태호를 찾아 야산으로 올라간다. 격투와 격투중에 갑자기 엄청나게 쏟아진 폭우로 산사태가 발생하고 두 사람 다 흙더미에 깔려 버린다.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온 상훈의 눈앞에 펼쳐진 해골과 시신들에 경

악을 금치 못한다. 태호는 연쇄살인마로 자신이 죽인 시신들을 인근 야산에 파 묻어 버린 것이었다. 태호는 산사태에 밀려 내려온 나무에 찢려 과다출혈로 사망하고 부상을 입은 상훈도 퇴원한 뒤에 이사를 하게 된다. 이사를 앞둔 하루 전날, 상훈은 아파트 주민들의 반응을 보려고 "살려주세요"라고 고함을 쳐 보지만 아무런 반응도 들리지 않는다.

영화는 끝이 났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아가는 아파트 단지 안에서 누군가 구원을 요청하지만 그 누구도 선불리 나서서 사람이 없다. 목격자도 그저 자신의安危와 가족들의 안전에 몰두하며 외면해 버린다. 더 나아가 집값 하락을 걱정하며 수사에 비협조적인 동의서까지 남발한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시대에서 바라보는 냉혹한 현실이다. 옆집에 누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한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고민해야만 할까? 강도만난 사람을 기억하는가? 강도만나 사경을 헤메고 있는 사람에게 진정한 이웃은 누구인가? 바리새인인가? 레위인인가? 아니면 이방인 취급하며 멸시하던 사마리아 사람인가? 우리는 영화속에서 비겁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한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러한 우리들의 자화상을 지적하고 있다. 문제는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이다. 그래도 영화속에서 마지막 상훈은 변화된 모습으로 가족을 지키려고 노력하였다. 그리스도인은 두려움을 극복하고 불의에 동의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정의와 공평을 향한 그리스도의 가르침일 것이다.

20. “더 낀”The Nun

미국영화, 장르:공포 개봉:2018.09.19.

감독:코린하디(Corin Hardy),

제작:피터 사프란 Peter Safran ,제임스 완 James Wan

주연:테이사 파미가(Taissa Farmiga),데미안 비쉬어(Demian Bichir),

보니 아론스(Bonnie Aarons),샬롯 호프(Charlotte Hope)

관객:297,129명(2018.09.21.현재)

“컨저링”(The Conjuring) 유니버스 시리즈 영화로 “애나벨”(Annabelle)의 형식을 취한 경향이 있다. 컨저링 시리즈와 같이 더 낀에도 “발락”(보니아론스역)이 등장한다. 1952년의 어느날 밤이다. “크르차”(Cârța) 수녀원”에서 두 명의 수녀가 길을 건다가 어둡고 음산한 공간앞에서 멈춘다. 문 입구에는 “신의 영역은 여기까지다”라는 문구가 기록되어 있다. 출입구가 열리면서 발락에 의해 수녀 한명이 곧바로 사망하고 함께 갔던 수녀도 결국 자살로서 인생을 마감하게 된다. 다음날 아침 식자재를 납품하려고 수녀원을 찾았던 “프렌치”(조나스블로켓역)는 까마귀떼가 물어 뜯은 수녀의 시체와 피바다를 목격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다.

“버크”(데미안비쉬어역) 신부는 바티칸에 의해 “아이린”(테이사파미가역) 수녀와 함께 수녀 자살사건의 진상을 조사하며 남아 있는 수녀들의 안전확인을 위해 루마니아로 파견한다. 버크 신부는 엑소시즘 전문가로서 바티칸에서도 그 명성이 알려져 있다. 아이린 수녀는 수련기간 중이지만 계시를 받고 환영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서 버크 신부의 조력자로 충분하였다. 루마니아에서는 공포의 크르차 수녀원을 기피하고 모두가 꺼려하고 있다. 버크 신부와 아이린 신부는 시신 목격자인 프렌치의 집을 방문한다. 프렌치는 그 사건의 목격자로 극심한 트라우마와 악몽을 겪고 있다. 프렌치로 부터 자살한 수녀의 시체를 수녀원의 냉동창고에 넣었다는 말을 듣고 버크 신부와 아이린 수녀는 프렌치에게 수녀원에 동행해 줄 것을 요청한다. 프렌치의 안내로 크르차 수녀원에 도착한 버크 신부와 아이린 수녀는 수많은 십자가들이 땅에 박혀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놀란다. 수많은 무덤과 비석에 달린 종들이 있었는데 이 종들은 전염병 창궐당시 사람들이 실수로 살아있는 사람을 매장하였을때를 대비하여 관 안에서 끈을 당겨 외부의 종을 치게 하는 특이한 생명장치였다. 많은 종들 가운데 어디선가 하나의 종이 혼자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 모습을 지켜본 아이린 수녀였지만 별 반응을 보이지 않으며 냉동창고로 향하였다.

냉동창고안에는 가지런히 눕혀 놓았던 시체가 정자세로 앉아 있었다. 버크 신부는 시체의 손에서 의문의 열쇠를 발견하고 그것을 손에 쥘다. 수녀원 안쪽으로 들어간 버크 신부 일행은 굳게 닫혀있는 문을 발견하고 안에 사람이 있는 지 확인하려 했

으나 아무런 대답을 듣지 못한다. 그런 가운데 갑자기 어디선가 나타난 수녀원 원장이 버크 신부 일행의 뒤에서 지금은 수녀원으로 들어 올수 없으며 내일 다시 오거나 수녀들의 숙소에서 하룻밤 숙박할 것을 권한다.

아이린 수녀가 라디오를 끄고 버크 신부와 식탁에 앉아 의미있는 대화를 나눈다. 아이린 수녀는 악몽을 꾸면서 성모께서 길을 인도하신다는 구절이 계속해서 기억된다고 말한다. 아이린 수녀의 말에 버크 신부는 자신의 지난날을 이야기한다. 버크 신부는 전쟁중에 환영을 보는 "다니엘"(어거스트마투로역)이라는 이름의 아이를 조사하기 위해 어느 마을로 향하였다. 다니엘은 사지가 묶여있는 상태에서 맹수처럼 어르릉거리며 저항의 눈길을 보내고 있었다. 버크 신부가 다니엘의 곁으로 다가가자 어린 아이의 목소리로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가 들리기도 하였지만 분명 악령에 깊이 씌워져 있었다. 버크 신부는 지체없이 엑소시즘을 행하였지만 다니엘은 큰 상처를 입은채로 얼마후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다.

수녀원을 안내했던 프렌치는 집으로 돌아가야만 했다. 귀가길 수많은 십자가가 박혀있는 곳에서 수녀 옷차림을 한 형상을 발견하고 그를 뒤따라 간다. 그를 추적하는 곳에는 깊은 안개가 자욱할 뿐 그 누구도 보이지 않았다. 갑자기 허공에서 자살한 수녀의 시체가 솟구치며 프렌치를 위협하지만 땅속에 박혀있는 십자가를 비추며 프렌치는 집으로 도망한다.

깊은 잠에 빠져있던 버크 신부는 누군가가 다시 틀어 놓은 라디오 소리에 잠에서 깨어난다. 손전등을 들고 방 문을 나가 라디오를 비추자 갑자기 라디오가 꺼져 버린다. 어디선가 갑자기 나타난 수녀 형상을 목격한 버크 신부는 그녀를 따라 수녀원 밖으로 나간다. 밖에서는 신부를 피하여 도망하는 다니엘이 눈앞에 보였다. 순간 이성을 잃은 버크 신부는 다니엘을 뒤쫓아 추적해 보지만 안개속에서 그는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버크 신부는 안전하지 않았다. 갑자기 다시 나타난 다니엘이 입에서 뱀을 품어내며 신부의 입 속으로 뱀을 집어 넣고 땅바닥으로 밀어내어 관속에 가두고 묻어 버린다. 순식간에 관속에 갇혀 버린 버크 신부는 종을 울리며 외부의 도움을 요청하지만 주위에는 자신을 구원해 줄 그 누구도 없었다.

악몽 때문에 잠에서 깨어난 아이린 수녀도 똑같은 수녀 형상을 보고 그녀를 따라 예배당으로 간다. 그곳에서 아주 거대한 검은 수녀의 그림자가 벽을 돌아 아이린 수녀가 있는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다. 아이린 수녀가 뒤를 돌아 보았을 때 자신을 비추던 거울속 자신의 모습 뒤에 검은 수녀가 서 있는 것을 발견한다. 매우 놀란 아이린 수녀가 돌아서 보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다시 거울을 비추는 순간 발락이 아이린 신부의 뒤에서 소름돋는 비명을 지른다. 순간 거울이 깨지고 아이린 수녀는 강력한 힘에 의해 벽으로 던져져 버린다. 정신을 차린 아이린 수녀

가 밖으로 도망치며 안개가 자욱한 십자가로 달려 나왔을 때 어디선가 구원을 요청하는 종소리가 들려온다. 아이린 수녀가 종소리가 들리는 방향으로 갔을 때 그곳에서는 모든 비석의 종소리가 요란스럽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그러나 아이린 신부는 결국 버크 신부의 관을 찾아내고 버크 신부도 아이린 수녀의 목소리에 다소 안심을 한다. 그것도 잠시뿐, 관속에서 흰 손들이 나와 버크 신부를 땅속 아래로 끌고들어 가려하고 이에 다급해진 아이린 신부가 땅을 파고 들어가 가까스로 버크 신부를 탈출시킨다. 부서진 관에서 의문의 책을 발견한 버크 신부는 그 책이 이 문제의 답을 찾아 줄지 모른다고 가지고 간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버크 신부는 왼쪽 눈 시력을 영구적으로 잃게 된다.

다음날 아침, 아이린 수녀는 수녀원 안쪽을 자세히 둘러보고 있다. 그러던 중 어떤 여자의 기도소리를 듣고 예배당으로 향한다. 그 수녀는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지만 아이린 수녀는 그녀의 얼굴을 확인하고 싶었다. 그러나 “오아나”(잉그리드비수역) 수녀가 갑자기 나타나 기도를 방해 해서는 안된다고 제지하며 자신을 따라 오라고 말한다. 아이린 수녀는 오아나 수녀에게 크르차 수녀원은 어떠한 역사와 이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 났는지 물어본다.

영화 더 넌은 발락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채 끝이 났다. 주력 엑소시즘을 해야 할 버크 신부는 내내 수련중인 아이린 수녀의 도움을 받아야 했고 급기야 발락퇴치까지 수녀의 손에 맡겨야 했다. 함께 다녀도 부족한 그들이 늘 흠어져 악령과 맞서려 하고 수많은 십자가들의 무력함을 보여 주었다. 그리스도인은 무슨 고민을 해 보아야 할까? “넌”(NUN)은 “수녀”를 의미하는 단어이며 핵심 키워드다. 하나님을 믿고 성모 마리아를 모범으로 살았던 수녀가 왜 악령이 되었을까? 이 질문이 우리에게도 되돌아 온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왜 똑같은 죄를 반복하며 회개의 길을 걷지 못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죄를 온전하게 버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성경을 읽고 답을 알고 있지만 그것을 실천하는 의지가 늘 부족하고 망설인다. 그래서 그 틈바구니를 사탄이 노리고 끊임없이 자극을 하는 것이다. “더 넌”은 언제나 “더 위”(WE)가 될 수도 있다. 우리가 악령에 사로잡혀 영구적인 죽음에 직면하지 않으려면 지금 우리의 선택과 결정을 달리해야 할 것이다.

21. “메가로돈”The Meg

“메가로돈”The Meg

미국영화, 장르:액션 개봉:2018.08.15.

감독:존 터틀타웁(Jon Turteltaub),

제작:벨르에버리(Belle Avery),로렌조디보나벤처라(Lorenzo Di Bonaventura)

주연:제이슨스타덤(Jason Statham),리빙빙(Li Bingbing)

관객:527,332명(2018.09.21.현재)

영화 메가로돈은 1997년에 출간한 스티브 알텐의 소설 “Meg: A Novel of Deep Terror”(멕:깊은 공포의 소설)를 원작으로 제작되었다. 그러나 영화는 소설이 갖고 있는 가치를 변경하고 내용에 변화를 가져와 사실상 새로운 영화라는 평가가 있다.

“조나스 테일러”(제이슨스타덤역)는 민간 심해 잠수부로서 군의 요청으로 마리아나 해구 탐사에 참여 하였다. 영화속에서는 해군소속 고생물학자로 5년전 사건으로 불명예 제대한다. “제임스 메크레이드”(클리프커티스역)는 퇴역당시 대령으로 조나스보다 선배이지만 영화에서는 동년배로 등장한다.

작업을 위해 잠수를 한 것은 조나스 테일러와 “디제이”(페이지케네디역)였고 디제이가 공포감을 극복하지 못한채 최초의 희생자가 된다. 영화에서는 작업팀은 별도로 구성되었고 이들이 조난을 당하는 사태가 발생하자 조나스가 구출을 위해 호출되었다. 또한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해 “토시”(마시오카역)가 자기희생을 하였다.

“키쿠”호의 승무원들은 과거에 조나스가 허상을 본 것일 뿐이라고 비웃는 상황이었고 메가로돈의 습격 당시 조나스는 기절하고, 디제이는 혼비백산하여 도주하는 바람에 메가로돈의 시체가 끌려 올라 올 때까지 모르고 있었다. 영화에서는 작업정이 습격당한 후 구조하려고 들어간 “슈인”(리빙빙역)이 직접 목격하고 그들 앞에서 고래를 잡아먹는 모습을 드러낸다.

조사선 키쿠호를 중심으로 메가로돈 조사활동을 하지만 장비부실과 종에 대한 자료와 정보부족으로 한계를 드러내며 역부족을 겪고 있다. 영화에서는 해저 거점지역을 충분히 확보하고 최첨단 장비를 동원하여 빠른 속도로 메가로돈을 추적해 들어간다.

메가로돈의 주 습격대상은 고래와 상어 등 대형 해양생물들이었으며 사람이 희생되는 경우는 지극히 드물었다. 그러다 마지막 해상목장에 구경을 나온 사람들이 극도

로 흥분한 메가로돈에게 희생당하는 사태가 발생한다. 영화에서는 처음에 거대한 오징어와 고래 한 마리가 희생되는 것을 시작으로 휴양지에 놀러온 휴양객에게 아무런 이유없이 습격을 하는 사태가 일어나며 인간사냥에 대한 집요한 집착을 보인다.

한류층의 영향으로 근해지역으로 올라올수 없는 한계점을 가진 메가로돈이 희생된다. 영화에서는 구조목적을 가진 탐사정이 순간 폭발하면서 한류층에 일시적인 블랙홀이 발생하고 이를 통하여 메가로돈 2마리가 상승하게 된다.

“프랭크 헬러”(로버트테일러역) 박사는 마지막까지 조나스와 대립각을 보여주며 상극을 드러낸다. 영화에서는 메가로돈을 눈으로 확인한 이후 헬러 박사는 즉시 사과를 하고 마지막에는 “잭스 허드”(루비로즈역)를 구명하기 위해 자신이 희생을 한다.

조나스의 아내 메기 테일러는 기자 출신으로 혼외정사를 통한 외도를 하였으며 메가로돈을 근접촬영하다가 오히려 메가에게 잡아 먹히는 신세가 된다. 영화에서는 “셀레스트”(제시카맥나미역)로 이름도 바뀌었고 유명 과학자로서 훌륭한 포지션을 갖고 있다.

마사오의 목적은 고래를 위한 해상목장의 건설이었다. 건설비 조달을 위해 일본의 심해조사를 지원하고 있었을 뿐이었다. 마사오의 유니스 프로젝트가 무산되면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입고 파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초고대 상어를 잡아 전시하면 연구자료와 볼거리로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설득하여 메가로돈을 잡아 오는 조건으로 JAMSTEC의 지원을 받는 교섭을 한다.

조나스는 혼비백산한 채로 새로운 상어 한 마리를 목격한다. 영화에서는 조나스가 잠수정을 급기동하여 수평꼬리날개로 메가로돈의 복부가죽을 잘라 깊은 상처를 내며 치명상을 입힌다. 그러나 메가로돈의 공격으로 잠수정은 산산조각이 나고 조나스는 극적으로 탈출하여 독이든 작살을 메가로돈의 눈 깊이 찔러 그를 마비상태로 만든다. 메가로돈은 마지막 저항을 하며 피를 토하지만 피냄새를 맡은 상어떼들이 메가로돈의 뱃속에서 내장까지 다 먹어 치우고 빠져 나온다. 모든 것이 끝나갈 무렵 귀상어 한 마리가 조나스를 공격하려 할 때 때를 맞추어 잠수정을 타고온 슈인에 의해 조나스는 극적으로 구조된다.

영화는 끝이났다. 조스 시리즈의 완결판은 아니지만 새로운 SF의 장르에 대한 변화를 예고한다. 전미시장을 흥행하며 우리나라에 상륙하였지만 관중몰이에는 실패한 듯 하다. 거대한 물고기 메가로돈은 혼돈의 무질서와 인간욕심의 세상이 만든 또다른 불합리의 결과물이다.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욕심과 재앙의 이유를 다른곳에서

찾으려는 노력을 중단해야 한다. 모든 것은 우리들의 잘못된 욕심과 죄로 인하여 시작된 것이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거듭되는 경고를 무시한다면 결국엔 이러한 재앙을 결코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22. “리틀 포레스트” Little Forest

한국영화, 장르:드라마 개봉:2018.02.28.

감독:임순례, 제작:영화사 수박

주연:김태리,류준열,문소리,진기주. 관객:1,505,722명(2018.09.22.현재)

일본작가 “이가라시 다이스케”의 만화 “리틀 포레스트1,2편”을 영화화한 리틀 포레스트는 숲에서 길을 찾는 젊은이들의 삶을 그리고 있다. 도시에서 실패를 거듭한 혜원과 도시에서 부분적으로 성공하였지만 경쟁구도에서 밀려난 재하, 그리고 고향에서는 나름대로 성공했지만 단 한번도 도시의 꿈을 성취해 보지 못한 은숙이라는 세 친구의 전혀 다른 이야기는 시간의 경계를 허물고 조금씩 하나로 연결되어 간다.

“혜원”(김태리역)은 임용고시를 준비하며 열공에 매달렸지만 남자친구는 합격하고 본인은 불합격한 것에 자존심이 상한다. 시험도, 연예도, 취업도, 단 한가지도 쉽게 풀리지 않는 혜원은 연락도 없이 고향으로 낙향한다. 며칠만 쉬고 상경하려 했던 혜원은 일주일후에, 한달후에, 3개월후에, 라고 연장 끝에 1년을 채우고 상경하기로 결심한다. 남달리 “우아한 먹방”이라는 평가를 받는 혜원은 고향땅에서 직접 농사지는 작물들로 제철 음식들을 만든다. 배춧국, 김치수제비, 파스타, 아카시아꽃튀김, 썩갠튀김, 김치전, 두부전, 콩국수, 배추전, 떡볶이, 떡, 크렘브뤼레, 밤조림, 꽃감 등 음식백화점을 방불케 할만큼 탁월한 솜씨를 발휘하는 혜원은 자신이 만든 모든 음식들속에서 잃어버린 기억을 찾아간다. 요리를 하면서 말없이 떠나버린 엄마와의 기억들과 마주하며, 친구들과 진심어린 마음을 나누며 새봄을 맞는다.

“재하”(류준열역)는 혜원의 초등학교 동창이면서 친한 친구다. 지방대를 졸업한 후 힘들게 서울에 있는 회사에 취업했으나 직장상사의 상습적인 폭언과 직장생활에 회의감을 느끼고 사표를 던진다. 서울을 떠난 혜원과 마찬가지로 재하도 고향으로 돌아와 농사를 짓기로 결심을 굳힌다. 고향에 사는 아버지의 농사일을 도와가며 재하는 자신의 작은 과수원을 준비하고 있다. 재하는 다른 친구들과 달리 농사가 참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하며 만족해 한다. 그러나 서울에서 만난 여친과 헤어진 후로 재하는 모든 것을 정리하였지만 여친은 아직 재하를 잊지 못한채 이런저런 핑계로 재하를 다시 찾는다.

“은숙”(진기주역)은 혜원의 초등학교 동창인 동시에 가장 우정이 깊은 절친이다. 고향의 소도시에서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농협에 취업해 단 한번도 고향을 떠난 적이 없었다. 도시에서 쓰라린 실패를 경험한 후 귀향한 혜원과 재하와 달리 은숙은 반대로 서울로 가는 것이 꿈이다. 은숙은 독특하게 친구들의 상처를 곧 잘 건드려 농

지만 결코 미워할 수 없는 좋은 친구임에는 분명하다. 은숙은 재하를 좋아한다. 은근히 혜원을 신경쓰며 견제하지만 정작 혜원은 재하에게 관심이 없다. 사랑과 우정 사이에서 줄타기에 능수능란한 은숙이 평소에 농협에서 사이가 좋지 않았던 부장을 험담하면서 스트레스를 달래 본다. 결국 회식자리 노래방에서 탬버린으로 부장의 머리를 내리치며 분노를 쏟아내 버린다. 그러나 부장이 다른 곳으로 발령을 받으면서 은숙은 기사회생한다.

혜원의 “엄마”(문소리역)는 남편이 중병에 걸리자 4살의 혜원과 함께 남편의 고향으로 낙향했다. 혜원이 힘들 때 이곳을 기억하며 힘과 용기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하며 남편이 죽은 후에도 고향에 남아 혼자 살아가고 있었다. 그러나 혜원의 대입수능이 끝난 며칠후 엄마는 아무말 없이 편지 한 통을 남겨둔채 어디론가 떠나 버린다. 시간이 얼마나 많이 흘렀을까? 혜원은 고향에서 사계절을 보내며 그때 엄마가 남겨둔 편지를 이해하기 시작한다. 시간이 또 얼마나 지났을까? 혜원에게 수신된 또 하나의 편지가 도착하는데 그 편지에는 혜원이 성인이 되면 알려 주겠다고 약속한 감자빵의 레시피였다. 결국 혜원의 모든 요리는 엄마의 레시피에서 나온 엄마만의 사랑이었다.

혜원에겐 “고모”(전국향역)가 있다. 고향에서 아주 오랜세월 살아온 고모는 혜원이 낙향했을 때 집에서 밥을 먹이고 식재료를 공급해 주었다. 말없이 떠나버린 엄마와 혜원을 늘 비교하며 꾸중을 하지만 혜원을 아끼는 마음 만큼은 2등이 아니다. 혜원에겐 사람이 아닌 “오구”라는 강아지가 있어서 외롭지 않다. 홀로 지내는 것을 안타까워 한 재하가 두고 간 강아지로 다섯 번째로 태어났다고 오구라고 부른다. 재하는 혜원을 남달리 생각하지만 혜원의 마음속에는 재하가 없다. 그저 한동네 친구일 뿐이다.

영화는 끝이 났다. 조금은 평범해 보이는 일상을 그린 영화 리틀 포레스트는 많은 젊은이들을 극장으로 인도하였다. 인생의 기로에서 모두가 겪고 있는 자신들의 이야기로 생각한 것이다. 시험, 취업, 연애, 이 세가지는 오늘을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결코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카테고리다. 시험은 취업을 위해 통과해야 할 첫 번째 관문이다. 시험에서 이기고, 취업에서 쟁취해야 연애라는 이성의 문제에 노크할 수 있다. 이도저도 안되면 낙향밖에 다른 길이 없다. 영화는 이러한 패배주의자들에게도 희망이 있음을 말하려 한다. 그리스도인은 영화에서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 세상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 솔로몬의 생애를 보는 것 같지 않은가? 결국 인생무상이라는 마지막 직인을 찍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세상 어디에서든 평화는 없다. 평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독점적 전유물이다.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미소를 짓고 싶다면 예수안에 있어야 한다. 그래야 숲에서 길을 잃지 않고 영생의 빛을 따라 진리의 길을 향할 수 있다.

23. “상류사회”High Society

“상류사회”High Society

한국영화, 장르:드라마,청소년관람불가 개봉:2018.08.29.

감독:변혁, 제작:하이프미디어코프

주연:박해일,수애. 관객:766,164명(2018.09.26.현재)

학생들에게 인기와 존경심을 한몸에 받는 경제학 교수 “장태준”(박해일역)은 정치권의 주목을 받으며 정치신인의 무대인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다. 자신의 아내인 “오수연”(수애역)은 미래미술관의 부관장으로 관장의 자리를 탐닉하고 있다. 젠트리피케이션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그에 대한 정밀진단으로 저금리 시민은행의 출범을 공약한 장태준은 시위현장에서 분신자살을 기도하던 노인을 구조한다. 이것이 공중파 TV를 타며 유명세를 타게 된 장태준은 민국당의 공천을 받는다. 미술관장으로서의 상승을 노리던 오수연은 미래그룹이라는 재벌가의 관장 “이화란”(라미란역)과 그에 편승된 부하직원들에 의해 수세에 몰려 있었으나 남편의 국회진출을 도와 상승의 기회를 노린다. 돈과 예술을 탐닉하며 정치를 꼭두각시로 사용하고 싶은 미래그룹 “한용석”(윤제문역) 회장은 상류사회의 높은 벽을 이용하여 중산층의 진입을 막으려 한다.

장태준은 제자출신의 현직 여비서와 위험한 사랑에 빠진다. 성관계를 하며 끊임없이 함께 동행하는데 오수연은 이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야망을 달성하기 위해 덮어 간다. 그러나 오수연도 유망예술가인 전 남친을 만나 불륜에 빠지고 프랑스 파리에 까지 가서 성관계에 몰입한다. 문제는 아주 작은 실수로 인해 수연과 남친의 정사 장면이 카메라에 담기며 녹화가 되고 이 필름이 이화란 관장과 부하직원들의 손에 쥐어진 것이다. 위기에 내몰린 오수연은 이화란 관장과 대면하여 재벌가 회장을 유혹하고 그 영상을 관장에게 주어 보약 한 개를 지급해 주겠다는 계약을 맺는다. 재벌가 회장은 예술작품이라는 명분으로 유명인들과 함께 천위에서 성행위를 하고 그 행위의 자국들을 보존하는 독특한 캐릭터를 가진 변태다. 오수연은 결국 회장과 성관계를 맺고 정사장면을 앞세웠으나 실상은 한용석 회장과 이화란 관장은 부부였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수연은 회장의 아들과 함께 공동관장이라는 직함을 얻으며 성공에 안착한다.

장태준은 민국당의 공천을 받고 공공시민은행의 자본금을 민간기업에서 조달하려는 계획을 세운다. 그러나 모든 것은 민국당이 그 기업과 유착하여 선거이슈를 장악하려던 수단에 불과하였고 분신자살을 기도했던 노인도 금품수수료 매수한 것이었다. 정치권에 환멸을 느낀 장태준은 국회의원직을 포기하고 민국당의 추악한 자료를 검

사측에 넘겨 버린다.

미래그룹의 아들과 공동관장직에 올랐지만 늘 마음이 불편하였던 오수연은 추악한 삶에 환멸을 느끼고 새로운 전시회 오프닝에서 자신의 섹스비디오를 작품처럼 상영하는 충격적인 장면을 연출한다. 오를수 없었던 자신의 추악한 욕망을 자아비판하는 용기에 남편 장태준과 관람객들이 박수를 보낸다. 결국 상류사회로의 꿈은 좌절되었지만 자신들이 생각했던 소박한 꿈은 실현한다. 장태준은 소규모시민은행을 설립하였고, 오수연은 개인전시관을 운영하며 작은 미술관의 관장이 된다.

영화는 끝이 났다. 상류사회에서 노블리스오블리제는 없다. 그저 추악한 비린내만 넘칠뿐이다. 자극적이고 충격적인 섹스와 거래들은 구토증세를 일으키게 하지만 여전히 동경의 대상이다. 정사신의 수위가 필요이상으로 높았다. 너무나 자극적이고 노골적이라 상류사회의 비판보다는 섹스에 집착하는 듯 하다. 그리스도인은 무슨 생각을 할 까? 거지 나사로에 대비되는 부자가 있다. 그는 성적 탐닉에 대하여 기록은 없지만 가장 중요한 천국 입성 만큼은 실패하였다. 그는 모든 것을 얻을 것 같은 부를 가지고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영생의 문제만큼에는 소홀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부자가 되고 싶어하고 많은 돈을 가지고 싶어한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면 이제 바보 멍청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영생을 얻고 싶다면 이제 모든 것을 내려 놓고 주를 따를지 고민해야 할 것이다.

24. “안시성”安市城,The Great Battle

“안시성”安市城,The Great Battle

한국영화, 장르:시대극,액션 개봉:2018.09.19.

감독:김광식, 제작:영화사 수작,스튜디오앤뉴

주연:조인성,남주혁,박성웅, 관객:3,550,852명(2018.09.26.현재)

1. “안시성”(安市城)

“삼국사기”(三國史記) 지리지(地理志)에는 안시성을 “안촌홀”(安寸忽)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금사(金史)지리지에는 안시성이 만주 개평(蓋平) 동북 탕지보(湯池堡)에 비정하고 있다. “이계집”(耳溪集)과 “아방강역고”(我邦疆域考)에는 만주 “봉황성”(鳳凰城)에 비정하고 있어서 안시성의 소재지에 대하여 명확한 의견이 없다. 봉황성을 안시성을 보는 견해는 17세기 이후 “연행사”(燕行使)들에 의해 시작되었다. 고구려와 당의 전쟁에 관한 전승에 의하면 설인귀의 무대인 봉황산과 역사연의의 무대인 안시성에 양만춘의 내용이 있다. 그러나 17세기 중엽이후 18세기에는 박지원과 안정복이 한서(漢書)지리지의 기록을 인용하여 개주(蓋州)일대가 안시성이라는 견해가 나타났다. 현재는 만주 봉천성, 해성의 동남향 “영성자산성”(英城子山城)을 안시성으로 추정하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안시성은 고구려가 요하유역에 설치한 신성, 요동성, 건안성, 개모성, 백암성, 비사성과 함께 전략적 요충지에 있었다. 안시성은 신성과 건안성의 중간에 위치하여 개모성, 요동성, 백암성, 비사성이 일시에 적에게 함락당할시 안시성의 방어는 요동지방의 성곽방어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더 나아가 압록강 북쪽 오골성(고려산성), 국내성을 비롯한 전국의 성곽 수호에 매우 중요한 전략적 지위를 갖고 있다.

645년(보장왕4년), 고구려의 개모성을 함락한 당나라 군대는 지형이 험준한 안시성을 공격하였다. 고구려는 안시성을 지키기 위해 북부육살 고연수와 남부육살 고헤진이 15만명의 병력을 동원하여 출병했으나 당나라 군대에게 패배하였다. 안시성은 당나라로부터 고립되어 있었으나 함락되지 않았고 당나라 명장 이세적의 총공세와 흙으로 산을 쌓아 공격의 고삐를 죄었지만 결국 실패하고 회군하였다. 고구려 연개소문이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지 3년, 당태종의 이세민이 주도하는 대군의 고구려 공략은 실패로 돌아간다. 나당동맹으로 인하여 당태종은 고구려 연개소문에게 신라를 침범하지 말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지만 연개소문은 일언지하에 거부하고 당사신 장엄을 감옥에 투옥시켜 버렸다. 이세적이 주도하는 육군 6만명, 장량이 지휘하는 수군 4만명과 전선5백척, 그리고 수십만의 군인들과 합류한 이세민은 고구려를

쉽게 정벌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참여 하였으나 역부족이었다.

개모성, 요동성, 백암성과 해군기지인 비사성을 점령한 이세민은 안시성을 점령하고 평양성을 함락시키려 하였다. 그러나 원정전쟁에서 보급물자의 원활한 공급망은 필수적인 것이었다. 요동지역의 고구려성을 완전히 몰락시키지 않은채 나아가는 것은 매우 위험한 도박이었다. 연개소문은 요동과 요서지역에 청야전술을 펼쳐 이들을 안시성공략으로 몰아 세웠다. 연개소문은 15만명의 대군을 지원하며 당태종을 압박하려 했으나 당태종 이세민의 전술에 말려들어 2만명이 전사하고 북부와 남부옥살이 당에 투항하는 어이없는 일이 일어났다. 안시성 외곽에 진을 친 이세민은 포차와 충차를 동원하여 파상공세를 펼쳤지만 양만춘 장군의 리더십과 병사들의 저항의지로 성곽을 점령하는 것은 실패로 돌아갔다. 고구려군의 이세민을 향한 고도의 심리전으로 승기를 쟁취한 고구려군에 대항하여 이세민은 연인원 50만명을 동원해 토산을 쌓아 안시성을 공략하려 하였고 엄청난 비로 인하여 안시성 일부가 무너지면서 당에게 유리한 국면으로 접어드는 듯 했으나 고구려 군이 재빨리 토산을 점령하면서 당군은 사기가 저하되었다. 3일주야로 전쟁이 그치지 않았으나 군량미가 바닥나고 9월이 오면서 당군은 겨울까지 맞이하며 퇴각이 불가피하였다.

당나라군의 퇴로는 더욱더 험난을 예고했다. 고구려군의 급추격으로 늪지대에 내몰린 당군은 엄청난 피해를 보았고 양만춘이 쏜 화살에 눈을 맞은 이세민은 결국 649년 목숨을 잃어야 했다. 이세민이 고구려 침공당시 선전조서를 통해 당이 고구려를 반드시 이길 수 밖에 없는 대원칙을 천명하였다. 대국이 소국을 치고, 순리로 역리를 치고, 안정된 나라로 어지러운 나라를 치고, 건강한 몸으로 피로한 몸을 치고, 기빠하는 백성이 원망하는 백성을 치기 때문에 필전필승이라고 군사들의 사기를 충전하였지만 결국 실패하는 굴욕을 당하였다.

고구려 또한 만만치 않은 피해를 입어야 했다. 초기 백암성 전투에서 남풍에 불화살 공격을 받아 1만명이 사망하고 5만명이 포로가 되었으며 50만석의 곡식을 탈취당하였다. 10일만에 함락된 개모성에서는 10만석의 곡식을 잃어야 했고 고연수가 이끄는 안시성 지원군도 대패의 쓴맛을 보아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구려는 중원세력의 거대한 당나라를 맞이하여 선전방어하고 오히려 공격선을 확보하여 당나라 내분을 일으키게 하였다. 당나라 중신 방현령(房玄齡)은 고구려 침공 자체가 무모한 발상이라고 구당서(舊唐書)에 기록하고 있다. 649년 4월, 당태종의 유언에서 나의 자식들은 결코 이길수 없는 나라 고구려를 공격하지 말 것을 유언으로 남겼다. 안시성 전투에서 고구려가 승리하지 못했다면 고구려는 물론 한반도 전체가 당의 수중에 들어가는 위기를 맞이하였을 것이다. 오늘날 안시성 전투는 고구려와 당의 전쟁이 아니라 한반도 전체를 침탈하려는 중국세력으로부터 민족을 지킨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다.

2. 영화 “안시성”

영화 안시성에는 10명의 캐릭터가 등장한다. “양만춘”(조인성역)장군이다. 무신쿠데타를 일으킨 연개소문에 반대하며 낙인이 찍혀 버린 안시성의 성주로서 영화의 주인공이다. 당나라의 영웅이자 태종인 “이세민”(박성웅역)이 있다. 연개소문의 비밀지령을 받고 안시성에 침투한 “사물”(남주혁역)이 등장한다. “추수지”(배성우역)는 창술과 처세술이 탁월한 안시성의 장기부관이다. “파소”(엄태구역)는 용맹무장으로 안시성의 기마대장으로 활약한다. 무인홍일점으로 “백하”(김설현역)는 양만춘장군의 여동생이면서 여군부대의 퀸이다. “풍”(박병은역)은 화려한 칼솜씨를 자랑하는 검도수장이다. “활보”(오대환역)는 쌍도끼를 마술처럼 사용하는 부월수장이다. “시미”(정은채역)는 미래를 예지하며 신의 말을 전하는 신녀로 등장한다. 그리고 “연개소문”(유오성역)이 있다. 단연 고구려역사에서 결코 뺄 수 없는 위대한 군인이다.

제1여당전쟁, 전쟁의 신으로 알려진 당태종 이세민이 고구려를 침략해 전략적 요동성을 포함해 10개의 성을 탈취하였다. 대막리지 연개소문은 15만명의 대군을 전선에 보내어 안시성 수호를 명령한다. 개마무사들이 전선을 구축하며 태학생도인 사물과 경마기경부대가 함께 조력하는 고구려 기병들이 당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예고하는 듯 했다. 당의 궁수부대가 화살을 비뚤듯 부어 보지만 철갑무장을 한 개마무사들에게 피해를 주지 못했다. 당태종이 개마무사들을 강하군이라고 칭찬을 하는 순간, 측면에서 당군의 돌궐기병부대가 협공을 하며 기습작전을 펼쳐왔다. 사물의 친구가 사물에게 퇴각을 종용할 때 당군의 공격으로 친구가 치명상을 입고 패전이 짙어져 간다. 친구를 업고 퇴각하는 사물을 보며 연개소문은 친구가 이미 죽었으니 보내 주라고 말한다. 연개소문의 지휘막사에 마주 앉은 연개소문과 사물은 안시성의 성주 양만춘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눈다. 연개소문은 사물에게 양만춘이 어떤 사람인지 묻고 있다. 사물이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한 양만춘이 현재에는 반역자로 알려져 있다고 말하자 연개소문은 단검을 내어 주며 안시성으로 잠입하여 양만춘의 목을 가져오라고 명령한다.

안시성으로 향하던 사물은 두명의 패잔병을 만나게 되고 안시성에서 필사행쟁을 하자며 결의를 다진다. 또다른 길에서 어떤 노파가 탄 수레가 진창에 빠져 있는 것을 발견한다. 다른 두 청년이 노인의 수레를 빼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을 보며 사물과 두 패잔병도 이에 도움을 주어 수레를 빼낸다. 사물은 그들에게 성주를 뵈게 해 달라고 요청하고 그 중 한 청년이 내가 성주라고 밝히자 고구려 패잔병으로 알고 있었던 당군이 돌변하여 공격하려 하자 고구려 명장 추수지가 순식간에 그들을 제거하며 사물의 목에 칼을 겨눈다. 사물은 안시성 출신이지만 집안사람들이 몰살하여 자신을 증명해줄 그 어떤 신분증명을 갖고 있지 않았다.

추수지는 사물을 기절시킨뒤 안시성으로 압송했다. 안시성에 도착한 성주 일행을 일꾼대표 "우대"(성동일역)가 맞이하고 있다. 수레를 타고 왔던 노파는 우대의 모친이었다. 치매를 앓고 있어서 마음대로 성 밖을 나간 것이었다. 활보가 이끄는 부월수들과 풍의 부하들인 검도수들간의 사소한 분쟁이 가끔씩 발생하지만 양만춘 장군의 리더십으로 안시성에는 평화가 있다. 사물은 안시성내의 호족 "소별도리"(장광역)를 통해 안시성 출신이라는 증거가 확인되었다. 추수지와 풍과 활보는 사물에게 존대어를 사용하지만 추수지는 사물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다.

사물은 야밤에 양만춘이 은밀하게 성밖을 나가는 것을 목격한다. 양만춘이 성밖 아이가 태어난 집에 몰래 방문하여 음식을 건네주는 것을 발견한다. 가족들은 양만춘에게 절하고 감사하면서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늦봄", 즉 "만춘"(晩春)이라고 부르겠다고 한다. 사물은 양만춘이 노파를 도와주고, 아이의 탄생을 축하하고, 성민들이 양만춘을 반겨 맞이하는 장면들을 상기하며 깊은 고뇌에 빠진다.

다음날 당의 대군이 안시성에 도착한다. 전투를 준비중인 양만춘은 사물의 단검을 보면서 그 단검으로 자신의 수염을 다듬을 것을 명한다. 마음만 먹으면 사물이 양만춘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지만 이를 이미 눈치챈 양만춘이 "지금은 하지 말아라, 앞으로도 기회는 많을 것이니 지금은 하지 말아라"고 말한다. 때마침 추수지가 도착하고 단검을 갖고 있는 사물을 발견하지만 양만춘이 그를 제지한다. 전투를 준비하는 양만춘은 기병대장 파소를 찾지만 파소는 보이지 않는다. 수상한 느낌을 받은 양만춘이 파소의 집을 급습하자 파소의 집에서 자신의 여동생인 백하를 발견한다. 백하와 파소는 이미 연인관계다. 화가 난 양만춘이 파소에게 활을 겨누며 전쟁통에 둘 중에 하나가 죽으면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며 다그치지만 파소의 앞에 백하가 서면서 그를 보호하고 있다.

안시성의 모든 장수들과 군인들이 결사항전의 의지를 다지며 전열을 가다듬고 있지만 끝없이 펼쳐진 당의 군대를 바라보며 기가 죽기 시작한다. 양만춘 장군은 나는 포기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는 명연설로 기가 죽은 군병들의 사기를 진작시킨다. 당태종은 성밖에서 안시성을 약탈하고 주민들을 학살하고 여자들을 겁탈해도 좋으니 성을 점령하라고 다그친다. 결전이 시작되면서 당군은 투석기로 거대한 바윗돌을 발사한다. 안시성내에 바윗돌이 날아오면서 사상자들이 곳곳에서 발생하였지만 성벽은 건재하였다. 당태종은 총진군을 명령하며 치열한 전투가 계속되었고 당의 맹렬한 공세에 다소 고전했지만 양만춘 장군의 탁월한 리더십과 용병술에 기분 좋은 승리를 안겨준다. 승리를 자축하는 안시성 군민들은 평화로운 안식을 취하고 풍이 목숨을 구해준 활보에게 평소와 같이 욕을 하다가 고마움의 표시로 사과 한 개를 밥그릇에 놓고 간다.

당군이 군을 다시 정비하는 동안 별다른 특이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며칠동안 연기를 피우며 무엇인가를 하고 있었다. 사물은 양만춘에게 칼을 겨누며 무엇 때문에 대막리지에게 거역하고 주필산전투에 군사를 보내지 않은 이유를 물었다. 양만춘 장군은 연개소문이 왕을 죽인 것은 당태종에게 고구려 침략의 명분을 주었고 주필산과 같은 대평원에서 당군을 맞는 것은 몰살을 자초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때 추수지가 당의 공격을 알리려고 양만춘 장군에게 나타나 이 장면을 목격하고 사물을 죽이려 하였지만 양만춘 장군은 또다시 이세민이 먼저다 라고 추수지를 제지하였다.

당이 연기를 피우며 준비한 것은 공성탑이었다. 공성탑을 여러개 세우고 계단을 만들어 성벽위를 공격할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된 것이었다. 공성탑이 성을 향하고 그곳을 통하여 당군이 안시성내로 진입하자 고구려군이 고전을 면하지 못한다. 그때 양만춘 장군이 공성탑을 제거할 것을 명하고 기름주머니를 준비하도록 한다. 기름주머니 준비를 끝낸 양만춘 장군은 공성탑에 기름주머니를 던진 다음 활로 명중하여 공성탑을 모두 불태워 버린다. 그러나 어디선가 날아온 창에 어깨를 맞은 양만춘 장군은 정신을 잃어버린다. 그 틈을 이용하여 당의 장수가 양만춘 장군의 목을 취하려 할 때 사물이 장수를 죽이고 양만춘 장군을 구한다. 전략적 대안으로 제작한 공성탑이 화재로 소실되어 버리자 당태종은 다시 후퇴를 명령한다. 한편, 의식을 잃은 양만춘 장군이 3일만에 회복하고 추수지는 사물이 장군을 구했다고 전해주며 이세민의 공격도 멈추었다고 보고하였다.

다시 전열을 가다듬은 당태종은 엄청난 인력을 동원하여 안시성 방향으로 토산을 건축한다. 토산을 쌓으며 방패벽을 추가하고 도개교를 활용하는 등 새로운 산성을 세운 것이다. 3개월 계획으로 추진된 토성은 2개월만에 완공되었고 이세민은 겨울이 오기전에 승전을 하자고 기를 세웠다. 이세민은 고주몽의 활과 화살을 내어주며 신녀인 시미를 석방하였다. 시미는 양만춘 장군을 만나 토산이 완성되면 승리할 수 없으니 항복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양만춘 장군은 시미의 제안을 거부하며 결사항전을 예고한다. 파소는 이세민을 직접 죽여 군대를 좌초위기로 몰아가자고 제안하고 기마부대 야습계획을 양만춘 장군으로부터 승인 받는다. 파소는 자신의 연인인 백하에게 해가 뜨기전에 돌아 올테니 걱정하지 마라고 안심시킨 뒤 성 밖을 나간다.

파소는 기마부대와 함께 이세민의 황금막사를 급습하지만 막사내에는 궁수들의 실루엣만 있을 뿐 함정에 빠진 것이다. 결국 파소는 온몸에 화살에 맞은 상태로 목숨만 구한채 복귀하며 양만춘 장군에게 성안에 첩자가 있다고 보고하고 숨을 거둔다. 시미는 오열하는 양만춘 장군에게 자신이 이세민에게 야습을 알렸다고 고백하며 토

산이 완성되면 항복 기회 조차 없다고 말한다. 추수지와 장수들은 분노의 치를 떨며 시미에게 칼을 겨누고 양만춘 장군 또한 시미에게 칼을 겨누었지만 죽이지는 못한다. 그때 갑자기 사물이 단검으로 시미의 목을 베며 안시성은 지지 않는다고 말한다.

절망적인 분노에 가득찬 백하는 파소의 죽음을 이기지 못한채 독야 청청으로 적진을 향한다. 백하는 당나라 병사들을 무차별적으로 죽이며 당태종의 얼굴 측면에 상처를 주기도 하였지만 모든 것은 역부족이었고 결국 무모한 죽음을 맞이 한다. 당태종은 비록 백하가 적이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였지만 그녀의 용기와 기백에 깊은 인상을 받고 그녀의 시체를 안시성으로 넘겨 주었다. 가장 깊은 우정의 파소와 자신의 친동생을 잃은 양만춘 장군은 슬픔을 견디지 못하였고 성내 군민들은 파소와 백하의 시신을 수장시켜 주었다. 토산 완공 열흘전, 양만춘 장군은 아이들이 두꺼비집을 지으며 노는 것을 우연하게 바라보며 토산밑에 땅굴을 파서 성을 무너뜨린다는 계획을 추진한다. 토산이 무너지는 경사로 성벽까지 무너질 것을 염려한 양만춘 장군은 무너지는 타이밍에 맞춰 선제적으로 토산점령 계획을 수립하였다.

우대가 땅굴을 파는 작업을 지휘하기 시작하였다. 혼신의 힘을 다한 성민들은 토산의 완성에 맞추어 성공적인 작업을 마무리 하였다. 이를 알지 못했던 당태종 이세민은 승리를 선축하며 병사들에게 마음껏 누릴 것을 지시하였다. 그날 밤 갑자기 하늘에서 폭우가 쏟아져 내렸다. 다음날 이른 새벽, 안시성에서 땅굴을 지탱하는 나무기둥에 불을 붙여 파괴하려던 우대의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된 것이다. 결국 우대와 몇 명의 인부들은 자신의 부모들을 보살펴 달라는 말을 남기며 땅굴속으로 들어가 직접 나무기둥을 찍어서 무너뜨리고 죽음을 맞이한다. 이에 토산이 무너지면서 고구려군이 선제적으로 토산을 점령하고 환호하지만 모든 계획이 허탈하게 무너진 당태종은 토산담당자를 즉결처형하고 총공격을 명령한다.

사물은 평양성으로 달려가 연개소문에게 지원군을 요청하고 양만춘을 죽이라고 보낸자가 반대로 살려 달라고 요구하는 청원에 연개소문이 분개하지만 고구려가 사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한다. 안시성 토산에서는 며칠째 전쟁이 계속되고 당태종은 수많은 희생에도 불구하고 끝없는 인해전술로 폭격하듯 쏟아 붓는다. 수비와 방어전에 탁월한 능력에도 불구하고 안시성에도 불화살이 떨어지고 위기의 순간을 맞이한다. 양만춘장군은 소년병에게 고주몽의 신궁을 가져오라고 명하고 추수지와 장수들이 양만춘 장군을 엄호하고 나섰다. 양만춘 장군은 고구려의 신이 우리를 버리지 않았다면 같이 당겨 줄 것이라고 말하며 신궁을 당긴다. 당태종의 호위대가 돌진하고 백하부대를 궤멸시키며 소년병까지 목숨을 잃는다. 풍과 활보의 목숨도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신궁을 당기는데는 결국 실패하고 만다. 좌절과 절망에 빠진 양만춘 장군의 눈에 자신이 지켜야 할 성민들과 백성들이 들어오고 필사적으로 활을 당긴

양만춘 장군의 화살은 어디론가를 향하여 거침없이 날아간다. 당태종이 엄청난 거리에서 날아오는 무엇인가를 주시할 무렵 거대한 화살이 자신의 눈에 그대로 꽂힌다. 괴성을 지르며 고통해 하던 이세민이 화살을 뽑아 내지만 그에겐 너무나 치명적이다. 그순간 연개소문과 사물이 원군을 이끌고 안시성으로 향하였고 전쟁은 안시성의 승리로 끝이 난다. 사물은 태학으로 복귀하면서 양만춘 장군에게 작별인사를 건네고 안시성 성민들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땀을 흘리고 있다.

영화는 끝이 났다. 역사적으로 길이남을 안시성 전투를 그리며 수많은 국민들을 영화관으로 인도하였다. 영화에서는 안시성의 병력을 5천명으로 잡고 있지만 실제로는 수만명에서 많게는 10만명까지 추산한다. 파소가 기마대를 이끌고 야습에 실패하지만 실제로는 성에 줄을 타고 내려와 공격하는 순간 반격을 받아 초기에 실패를 자초하였다. 여군의 여부는 전혀 설득력이 없다. 승리는 누구의 것인가? 그리스도인은 영화에서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 우리는 모세가 손을 든 전쟁에 관한 역사적 사건을 알고 있다. 산아래에서 이스라엘의 여호수아 장군과 아말렉 군대가 맞서는 전쟁이 시작되었다. 피튀기는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승리를 이끌었다. 그러나 그 승리의 이면에는 중요한 사실이 있었다. 그것은 모세가 두손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하였을때에는 이스라엘이 이기고 있었지만 모세가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은 어김없이 대패하였던 것이다. 이것을 좌우에서 목격한 아론과 훌이 각각 한편에서 모세의 두손을 들어 주었고 승리는 이스라엘에게로 돌아갔다. 안시성의 전투도 마찬가지다. 지혜와 전략으로 양만춘 장군이 이끄는 안시성민들의 승리는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다. 이러한 섭리를 믿고 깨달아 가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도 마찬가지다. 절망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그 때를 기다리는 것이 우리들의 몫이 될 것이다.

25. “암수살인”Dark Figure of Crime

한국영화, 장르:범죄 개봉:2018.10.03

감독:김태균, 각본:곽경택,김태균, 제작:필름295,블러썸픽쳐스

주연:김윤석,주지훈, 관객:3,719,780명(2018.10.29.현재)

영화 “암수살인”은 2012년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 방송된 부산지역의 한 살인사건을 모티브로 제작되었으며 당시 실제 수사 담당자인 김정수 형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사건의 정점으로 향해간다. 특이점은 살인자가 한 명의 형사와 사이코패스적인 교감을 통해 사건을 연속적으로 이어갔다는 점이다.

영화 암수살인에는 “김형민”(김윤석역)형사, 살인자인 “강태오”(주지훈역,정택현아역), 그리고 김형민형사의 사건책임자인 “김수민”(문정희역) 검사라는 3명의 캐릭터가 있다. 김형민 형사는 경사지만 동기들은 이미 모두 진급을 해버리고 혼자 만년경사노릇을 하고 있다. 불의의 뺑소니 교통사고로 아내를 잃은 김형민 형사는 부친이 유산으로 물려준 사업체 지분으로 고급세단을 갖고 골프를 치는 부를 누리고 있다. 어느날 강태오가 김형민에게 접근하여 자신이 7건 살인사건의 주범이라고 고백하며 자신의 감옥바라지와 형량거래를 요구하고 있다. 김형민 형사는 연쇄살인자의 터무니없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그와의 거래를 성사시킨다. 범인에게 이용당하지 말라는 주변의 만류를 뿌리친 채 김형민 형사는 자비를 털어 사건에 대한 집착을 시작한다. 강태오는 프로파일러의 사이코패스 감정에서 감정불가 판정을 받을 정도로 다혈질성격이다. 강태오는 김형민 형사와의 거래를 통해 형사재판을 주도하려는 면밀한 의도를 드러낸다. 김수민 검사는 김형민 형사의 강한 집착을 신뢰하면서 그를 염려하는 연민의 정을 느낀다.

김형민 형사는 살인사건 제보를 위해 강태오와 함께 식사를 한다. 강태오는 부탁을 받아 짐을 옮겨 주었는데 그것이 토막사체인 것 같다는 말을 하며 말끝을 흐린다. 김형민 형사가 강하게 추궁하며 몰아 세우자 강태오는 금품을 요구하였고 김형민 형사는 자신의 연락처와 함께 20만원을 건넨다. 그때 다른 형사들이 현장을 급습하며 허수진 살인 피의자로 강태오를 긴급 체포한다.

수개월이 지난후 김형민 형사가 가족들과 함께 골프라운딩을 하고 있을 때 강태오로부터 한통의 전화가 걸려온다. 살인피의자로 구치소에 수감중인 강태오가 자신이 7명을 더 살해하였다는 자백과 함께 허수진 살해증거를 알려 준다. 강태오를 체포하는데 까지는 성공한 기존 수사팀의 무리한 수사로 인하여 증거조작이 있었고 이러한 허점을 계산한 강태오가 김형민에게 진짜 증거를 제시해 형사재판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도록 유도한 것이었다. 그 후 김형민 형사는 강태오로부터 살인 사

건의 내막을 듣게 되지만 구체적인 정황증거를 제시하지 않은채 영취금과 물품을 요구하는 등 다소 끌려가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7개의 정보 가운데는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허구, 한 개의 사건을 여러 사건으로 위장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김형민 형사는 동료들로 부터도 핀잔을 들어야 했다.

20대 여성 "오지희"(권소현역) 실종사건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강태오가 밝힌 암매장 위치에서 골반과 허벅지 유골이 발견되었다. 그러나 강태오는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나섰다. 사건 진술은 김형민 형사가 영취금을 댓가로 쓰라고 하는대로 했을뿐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결국 김형민 형사가 자신의 형을 통해 1천만원의 영취금을 전달한 사실과 오지희 것으로 추정된 유골은 오지희 시신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면서 재판과정은 강태오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었다. 이같이 당한 사람은 김형민 형사뿐이 아니었다. 다른 사건에서 정보를 댓가로 영취금을 제공하고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한채 경찰을 사직하고 이혼까지 당한 주차장 관리원 "송경수"(주진모역)가 있었다. 그는 하나의 사건으로 구속되었다가 또다른 사건에서 무죄로 인정받은 후 본질된 사건까지 무죄로 받는 치밀한 계획속에 당한 것이었다. 강태오 역시 마찬가지였다.

또 다른 사건에서 강태오는 젊은 남성을 살해한 것으로 자백했다. 새벽에 어깨가 부딪힌 행인을 칼로 살해한 후 계단으로 넘어뜨리고 불을 질러 사건을 은폐한 것이었다. 그러나 명확한 증거가 불충분한 사건에서 강태오의 동의하에 녹화진술을 하던 도중 강태오가 갑자기 유도심문으로 자백한 것이라고 카메라앞에서 유유히 고발함으로써 현장검증까지 진행한 모든 것을 무너뜨려 버렸다. 이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김형민 형사는 파출소로 보직변경을 받는다. 김형민 형사의 추적은 이제 부터가 시작이었다. 강태오가 간과하고 있거나 실수의 틈을 노려야 했다. 새로운 증거를 유심히 살피던 김형민 형사는 유골발굴 사진에서 여성의 골반사이에 있는 T자형 피임형 루프를 발견하였다. 병원수술기록을 조회한 결과 유골의 주인은 대구 출신의 이혼녀 "박미영"(배해선역)이었다. 박미영은 나이트클럽에서 강태오를 만나 사랑에 빠져 아들 하나를 두었다. 강태오는 실종신고 직전까지 박미영과의 지속적인 통화기록이 남아 있었지만 그 후로는 한통의 전화도 하지 않았다. 강태오는 박미영이 루프를 하고 있는지 알지 못했다. 공소시효가 지났던 1번사건의 경우에는 더욱더 충격적인 것이었다. 폭력적인 아버지를 아들인 강태오 자신이 살해한 것이었다. 당시 목격자였던 강태오의 누나는 자신만 조용히 살면 모든 것이 끝이라는 생각에 그동안 함구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사건의 핵심키워드인 박미영의 실체를 밝혀낸 김형민 형사는 강태오에게 면회를 갔다. 면회장에서 김형민 형사는 강태오에게 담배 한개를 건네며 징계따위는 관심없다는 표정을 짓는다. 강태오가 평온한 마음으로 담배를 피우는 동안 김형민 형사는

사건 진실의 민낯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친구와 동승하여 음주운전을 하다가 톨게이트에서 음주단속이 있자 친구와 강태오는 차를 버리고 도주해 부산까지 걸어서 내려온다. 강태오는 기분전환을 위해 도박장을 찾으려 하지만 지인인 박사장이 그를 만류하자 일본도를 휘두르며 위협하다가 도주해 버린다. 그후 여자 친구인 박미영 미용실에 갔다가 박미영은 자신의 차를 몰고 도주한 강태오와 심한 말다툼을 한다. 차에서 다시만난 박미영이 자신의 아들이 사춘기가 되어 계속 만나기 어렵다고 말하자 강태오는 대구로 돌아가려는 박미영을 핫김에 죽여 버린다. 재판장을 우롱한 죄가 가중된 강태오는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교도소로 되돌아 같다. 김형민 형사는 아직 소재파악이 되지 않은 오지희의 사체를 찾으러 매장장소로 향하며 영화는 끝이 난다.

“암수”(暗數)란 인지되지 않은 미해결사건을 말하는 것이다. 피해자들이 단순실종과 스스로 행적을 감춘 것으로 판단되어 살해당한 사실조차 알려지지 않은 살인사건을 암수살인사건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연쇄살인범의 범죄는 스스로에 대하여 완전함을 느낀다. 하나의 사건이 진행될 때 마다 형사들은 놀림감이 되고 수사망은 미로 게임처럼 복잡해 지기만 한다. 사실 이 사건도 여전히 진행중에 있다. 엔딩에서 실제 형사는 아직도 사건수사가 진행중에 있고 실제범인은 자살해 버렸다고 말한다. 그리스도인은 암수살인 영화에서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 올 가을 400만명에 육박하는 사람들을 영화관으로 인도한 암수살인은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되었다는 면에서 충격적이다. 사실 이렇게 확인되지 않은 사건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 방치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폭력가정의 희생양이든, 다혈질과 분노장애인이든 살인은 용서받기 어렵다. 성폭력과 강간과 폭력은 스스로에게도 엄청난 상처를 주고 해악을 끼친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회는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감시망은 CC-TV가 아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서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바라보게 된다. 자신을 바라보지 않는 한 세상은 언제나 위험으로부터 안전해지지 않을 것이다.

26. “협상”THE NEGOTIATION

한국영화, 장르:범죄 개봉:2018.09.19.

감독:이종석, 각본:최성현, 제작:JK필름,

주연:손예진,현빈, 관객:1,964,996명(2018.10.29.현재)

D-DAY 7일전, 동남아시아에서 한인을 상대로 하는 범죄에 대한 특별취재중인 “이상목”(정인겸역) 기자가 태국 방콕에서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D-DAY 3일전, 태국 방콕 현지에서 비밀수사중인 서울지방경찰청 위기협상팀 “정준구”(이문식역) 팀장이 다시 실종되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였다. D-DAY 오전6시, 이상목 기자와 정준구 팀장을 납치했다고 주장하는 국제범죄조직 무기 밀매업자 “민태구”(현빈역)로부터 연락이 왔고 그와의 협상파트너로 서울지방경찰청 위기협상팀 “하채윤”(손예진역) 경위가 지목되었다. 오전8시, 청와대 특별지시로 국방부와 경찰청이 공조수사와 함께 특별상황 지휘실이 설치되었다. 오전10시, 말라카 해협 나카섬인근에 특수부대가 출동하고 작전 개시 12시간전, 서울시경 위기협상팀 하채윤 경위가 특별상황지휘실에 도착한다. 그로부터 7분후인 오전10시7분, 태국 IP 인터넷 화상전화를 통하여 하채윤과 민태구가 첫대면하며 협상을 시작한다.

2018년 5월18일 오전10시, 위기협상팀장 정준구는 서투른 영어로 납치범과 협상을 시도하지만 라포형성의 교감 실패를 맞이한다. 결국 유학파인 하채윤 팀장이 휴가 중 복귀하여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특별상황지휘실에 도착한다. “이다빈”(이주영역) 팀원으로부터 한국어를 하지 못하는 동남아시아인 30대 남성 2명이 남녀 2명의 인질을 잡고 헬기를 요구하는 상황보고를 듣는다. 협상에 실패한 정준구 팀장은 특공대장에게 진입을 지시하고 하채윤 경사는 인질범들과 30분이라도 대화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하여 허락을 받는다. 하채윤은 강도들과 대화를 시작하며 소음을 이유로 집 내부로 진입하는데 성공한다. 하채윤은 인질범들에게 밖에 대기중인 차량에 탑승하면 헬기있는 곳 까지 갈수 있다고 설득하며 자신이 결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결정권자를 설득할 명분이 필요하다고 여성인질 1명을 석방할 것을 요구한다. 와중에 거실TV에서 경찰특공대가 진압준비중인 장면이 나오고 인질범들은 극도로 흥분하게 된다. 하채윤 경위는 이들이 특공대가 아니라 일반경찰이라고 설득해보지만 이미 신뢰관계에 금이 간 후였다. 현장 상황실에서 특공대 진입을 주장하는 특공대장의 강력한 요구에 정준구 팀장이 응하며 결국 특공대가 무리한 진입을 서두른다. 이 과정에서 “안혁수”(김상호역)가 인질의 위험성을 알리며 협상을 더 해볼 것을 주장하였지만 그의 의견은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집안 내부에서 하채윤이 인질범들과 협상중인 상태에서 저격수의 총이 발사되고 현장은 아수라장으로 변한다. 결국 남성 인질이 범인에게 살해당하고 여성 인질도 방으로 끌려가 살해당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한다. 특공대가 인질범들을 저격했을때에는 이미 인질들이 죽은

후 였고 이 사건의 중심에 서 있었던 하채윤 경위는 충격에 빠진다.

며칠후, 태국 방콕에서 한국 언론사의 이상목 기자가 미행자들을 피해 도주를 시작한다. 두 대의 차량을 따돌린 이상목 기자가 안도의 한숨을 내 쉴 무렵 정체불명의 차량에 에워 쌓인채 납치를 당한다. 양재동 인질극 사건이후 서울경찰청 정준구 팀장은 해외출장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안혁수는 정팀장에게 하채윤 경위를 챙겨라고 말하고 때를 맞추어 하채윤 경위가 나타나 사직서를 팀장에게 전하며 그만 두겠다고 말한다. 정팀장은 양재동 사건 때문이냐면서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고 위로한다. 그러나 자신의 눈앞에서 죽어 가는 사람들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면서 사과하며 밖으로 나간다. 정팀장은 하채윤 경위의 뒷모습을 보며 사직서는 반려하고 해외출장 후 다시 이야기하자고 말한 후 자리를 떠난다.

집에 도착한 하채윤 경위는 안혁수의 전화를 받고, 곧이어 안혁수가 하채윤 경위의 집으로 들어온다. 사표수리가 아직 되지 않았으니 하채윤에게 정복을 입으라고 재촉한다. "서울경찰청장"(유연수역)의 호출을 받은 안혁수와 하채윤 경위는 보안요원들의 인도를 받아 작전상황실로 간다. 그곳에서 서울경찰청장과 청와대 국가안보실 "공재기"(최병모역) 비서관과 짧은 인사를 나눈 후 곧바로 의문의 전화 한통을 받는다. 전화 모니터 화면에는 와이셔츠를 입은 남자가 불량스런 태도를 보이며 자신을 민태구라고 소개한다. 이에 하채윤은 위기협상팀 소속이라고 자신을 밝힌다. 민태구는 하채윤을 바라보며 예쁘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그 정도는 아니라고 말하며 사이즈를 물어본다. 당황해 하는 하채윤에게 민태구는 쓰리 사이즈를 말하는 것이라고 말하자 하채윤은 비웃음을 띄우며 전화를 끊어 버린다. 민태구로부터 다시 전화가 걸려오고 하채윤은 이쪽 상황이 정리된 후 전화를 받겠다고 말하고 다시 끊어 버린다. 상황실에서 공재기 비서와 경찰청장에게 상황설명을 요구하던 중 민태구로부터 다시 영상통화 전화가 걸려온다. "한영숙"(장영남역) 과장이 하채윤을 대신하여 영상통화를 하게 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달랐다. 상황실에서 경찰청장과 하채윤 경위가 함께 이 장면을 바라보게 되는데 민태구옆에 얼굴을 가린채 무릎이 꿇려진 사람이 있었다. 민태구가 그의 포대를 벗기자 정준구 팀장의 얼굴이 나타났다. 민태구는 즉시 리볼버 권총으로 정팀장을 겨누며 방아쇠를 당긴다. 비어있는 탄창소리가 상황실을 관통하며 상황의 심각성에 놀란 하채윤 경위가 즉시 민태구와 통화를 한다.

하채윤은 민태구에게 쓰리 사이즈를 말하며 민태구에게도 예의를 지켜 협상에 응하라고 요구한다. 민태구는 서로 진실한 대화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며 정팀장과 하채윤의 대화를 주선한다. 정팀장은 인질이라는 극도의 불안상황 속에서도 하채윤에게 FM규정대로 하라는 충고를 한다. 민태구는 자신이 밥먹을 시간이라고 말하며 식사 후 다시 통화하자면서 전화를 끊는다.

하채윤과 안혁수는 한과장으로부터 상황설명을 듣는다. 민태구는 동남아시아에서 무기밀매 등 음성적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폭력조직의 두목으로 서울경찰청의 상위 블랙리스트에 올라와 있다. 국내 언론사 소속 이상목 기자 납치 협상을 위해 정팀장이 해외출장을 갔다가 정팀장까지 납치되는 최악의 구도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결국 민태구는 정팀장을 협상파트너로 부른 것이 아니라 납치 목적으로 부른 것이었다. 청와대 공재기 비서는 군경합동 인질 구출작전을 계획하였다. 하채윤 경위에게 남은 협상의 시간은 14시간이었다. 하채윤은 자신의 팀원들을 합류시키고 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공군 특수부대원들은 구출작전시간을 맞춘다. 민태구에 대한 조사를 한 하채윤은 그가 영국국적의 외국인이라는 사실과 유년시절 고아로서 해외 여러 곳을 전전궁궁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한다.

민태구에게서 다시 영상통화가 걸려오고 하채윤은 와이셔츠 복장으로 전화를 받는다. 민태구옆에 정팀장이 약에 취한 듯이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다. 민태구는 정팀장의 안위를 확인하고자 하는 하채윤에 답하듯 정팀장을 때리며 억지로 깨우려 한다. 하채윤은 인질폭행은 협상력을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말하며 인질은 민태구가 원하는 것을 얻는 유일한 창구라고 각인시킨다. 민태구는 이상목 기자가 속한 대한일보 "윤동훈"(김종구역) 사장을 1시간 내로 호출하라고 알린다. 촉박한 시간속에 헬기를 띄워 골프장에 있는 윤사장을 작전상황실로 불러 온다. 윤사장의 골프복을 정장상으로 갈아 입히자 민태구가 바로 전화를 걸어왔다. 정확히 1시간만이다. 윤사장은 하채윤의 말대로 이상목 기자의 안위를 물은후 그와의 대화를 시도한다. 이상목 기자를 위로하는 윤사장에게 민태구는 이상목 기자가 납치되었음에도 대한일보에 관련기사가 나오지 않는 이유를 묻는 질문을 한다. 윤사장은 기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기사를 올리지 않았다고 답변한다. 민태구는 이상목 기자의 대표 특종, 가족사항, 윤사장과 친분 등 개인신변에 관한 질문을 하고 윤사장은 이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사장은 이상목과 같이 술도 자주하는 등 친분관계가 두텁다고 말한다. 민태구가 갑자기 윤사장에게 이상목의 주량에 대해 물었고 윤사장은 본인이 술을 잘 못 마신다는 어정쩡한 대답으로 신뢰도를 떨어 뜨린다. 의심을 시작한 민태구는 조금 전에는 같이 술도 자주 마신다고 말했는데 주량을 모른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지적한다. 결국 민태구는 리볼버 권총을 들고 윤사장에게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풀샷이 보이도록 뒤쪽으로 갈 것을 요구하고 윤동훈의 골프바지가 민태구의 시야에 들어온다. 민태구는 소속 기자가 납치되고 인질협상이 이루어지는 판국에 신문사 대표가 골프를 치는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 분노한 민태구는 이상목 기자가 대한일보 기자가 맞는지 묻게 되고 윤사장의 가족사항을 말하며 급박하는 최악의 상황이 주어진다.

이때 서울경찰청장이 영상통화에 간섭하게 되자 하채윤이 X자 표시를 하며 만류한다. 그러나 서울경찰청장이 직접 민태구와 대화를 시도하려 하고 민태구는 분노를

폭발하며 욕설을 퍼붓는다. 분노를 삭힌 민태구가 총을 이상목의 머리에 겨누고 윤사장에게 이상목이 대한일보 소속 기자가 맞는지 다시 묻는다. 결국 윤사장이 이상목은 대한일보 기자가 아니라고 답하고 민태구는 윤사장의 거짓말에 다시 분노한다. 하채윤 경위가 윤사장을 통화실 밖으로 내 보내고 다시 민태구와 대화를 시도한다. 하채윤 또한 이상목이 대한일보 기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몰랐지만 민태구는 그녀의 말을 불신하며 욕설을 한다. 분노를 참지 못한 민태구는 결국 정준구 팀장을 권총으로 살해해 버린다. 이 장면을 영상으로 그대로 바라본 하채윤 경위는 충격속에 눈물을 쏟아내며 민태구에게 미친새끼라며 욕을 한다. 그리고 통화는 종료되어 버린다. 정팀장이 사망하자 하채윤은 경찰청장에게 이상목이 대한일보 기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왜 미리 말하지 않았느냐고 되묻지만 의미가 없다. 서울경찰청장은 이제 부터는 국가정보원 요원들이 민태구를 직접 상대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며 하채윤을 밖으로 내 보낸다.

영화 협상에는 협상이 없다는 말이 있다. 협상이 아니라 징징거리며 감정에 호소하는 협상가와 정보소통이 없는 답답한 설정들, 한국전통의 고아 시리즈, 민태구의 인질극에 대한 목적상실 등 긴장감과 박진감은 있었지만 깊이 있는 내용은 없었다. 영화 협상은 그리스도인에게 특별한 것을 주지 못했다. 목적을 위해 인간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 만큼 비겁한 것은 없다. 민태구 역시 강한 듯 하지만 결국 나약한 인간임을 증명한다. 인간은 언제나 나약하고 죄로 뒤덮여 있다. 오직 하나님안에서만 힘이 있고 희망이 있을 뿐이다.

27. “명당”FENGSHUI

한국영화, 장르:시대극 개봉:2018.09.19.

감독:박희곤, 각본:정자영, 제작:주피터필름,

주연:조승우,지성,김성균,백윤식,문채원, 관객:2,084,811명(2018.10.29.현재)

1. 조선의 역사는 군약신강의 세상이다.

조선시대는 중앙집권의 왕권강화가 극치를 이룬 시대이다. 명문가도를 향하는 권문 세도가라 할지라도 왕 위에 있지는 않다. 김좌근은 아들 김병기에게 교살당한 것이 아니라 고종 즉위후까지 조정의 원로로서 영향력이 있었다. 김좌근이 사망했을 때 대원군은 묘비명을 직접 하사하였다. 김병학은 고종 초기 영의정으로 개혁정책을 지원하였고, 동생인 김병국은 사창제를 실시하며 이조판서와 호조판서를 역임했다. 승유억불정책의 조선이지만 사찰에 대한 화재는 여전히 극형이다. 흥선군은 가야사와 거래를 통한 부지를 매입하고 사찰 터 전체를 묘지로 사용하였다. 헌종의 후왕은 10년집권의 철종이다. 흥선대원군은 그 후의 집권세력이다. 파묘는 모두 허구다. 왕조의 묘는 특히 더욱 그렇다. 기록에 의하면 조선왕조의 묘에는 100여벌의 옷과 이불이 사용되고 사대부의 묘에도 이같은 현상은 마찬가지다.

2. 영화 “명당”

생존시에는 좋은 환경을 갖춘 자리에서 살기를 원하고 사망시에는 땅의 기운을 얻어 영원토록 살기를 원하였던 사람들의 땅에 대한 생각이 논리화 한 것을 “풍수지리설”이라고 말한다. 명당은 현세대 뿐만 아니라 후세대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신앙하는 삼국시대로부터 고려시대에는 전성기를 이루었다. 조선시대에도 이러한 명당 사상은 민심의 뿌리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으며 권문세도가들에는 하늘의 기운을 담는다는 뜻으로 더욱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고려의 도읍지인 개경과 조선의 도읍지인 한양은 풍수지리 사상에서 가장 좋은 명당이라는 평판이 있다. 영화 “명당”은 2013년 “관상”, 2018년 “궁합”에 이어 역리학 영화의 3부작으로 연결선상에 있다. 영화 명당은 역사적인 고증보다는 풍수지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즉, 풍수지리적 관점에서 조명한 것이다.

내의원에서 올린 탕약을 마신 “효명세자”(김민재역)가 피를 토하며 죽음을 맞이하는 것으로 영화는 시작된다. “순조”(이윤건역)가 신하들과 지관들의 조언에 따라 명당터에 효명세자의 능을 조성하려 하지만 지관 중 한 명이 흉지라고 강력하게 반대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신료들과 지관이 명당이라고 주장하는 바람에 결국 효명세자는 그곳에 자리하게 된다. 충직한 간언을 올린 “박재상”(조승우역)의 자택에 친구

“구용식”(유재명역)이 찾아와 술상을 받는다. 집안에 제대로 된 화장실이 없어서 뒷산에 올라가 소변을 보는 순간 장동 김씨의 사병들이 박재상의 집을 불태우고 가족들을 참살한다. 갑작스런 습격을 당한 박재상이 달려왔지만 가산과 가족들은 모두 죽음을 맞이하고 13년의 시간이 흐른다.

박재상은 구용식과 함께 지관으로 영업을 하여 많은 부를 축적하고 있다. 지관자금으로 장동 김씨의 묘 위치를 알아내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은 성과가 없다. 기생들에게 자금을 뿌리며 정보를 알고자 했던 어느날, 기생집 대방 “조선”(문채원역)이 “김좌근”(백윤식역) 대감이 우리집 최고의 단골이라며 박재상을 쫓아 내 버린다. 그후 박재상의 집에 장동 김씨의 묘자리를 알려 달라는 “흥선군”(지성역)이 찾아온다. 흥선군은 몰락한 왕족의 힘없는 풍운아였다. 장동 김씨와 동일한 원한을 갖고 있는 박재상과 흥선군은 상호 협력관계로 발전하는 친구가 된다. 박재상은 흥선군과 함께 온 왕족 “이원경”(강태오역)을 통하여 “헌종왕”(이원근역)에게 장동 김씨의 계략으로 효명세자는 흥지에 묻히고 명당터에는 김좌근의 아버지 김조순이 묻혀 있다고 고하였다. 사실확인예 나선 헌종이 내금위병사들과 함께 파묘를 하자 관속에는 물이 차 있고 뱀들이 우글거리고 있었다. 한편 김조순의 묘에는 시신이 온전히 보존된 상태로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한다.

은밀하게 심어둔 궁녀를 통해 김좌근은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책임전가에 급급한 관료들을 숙청하는 등 발빠른 대응을 한다. 김좌근은 궁에 입궐하여 죄를 청하였지만 모든 권력자들을 대동한 그의 입궐은 헌종을 두렵게 한다. 결국 효명세자의 묘를 이장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감 지어야 했다. 박재상과 흥선군은 장동 김씨의 다른 가묘들에게서도 동일한 명당터를 이용하였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은밀한 조사에 돌입한다. 이 일에 가장 핵심적으로 가담한 인물이 바로 조선이다. 조선은 장동 김씨의 횡포로 부모를 잃었지만 흥선군의 도움으로 오늘에 이르렀다. 박재상을 기생집에서 쫓아 내었을때도 박재상의 실언으로 자신의 위치가 공개되는 것을 방지한 것이었고 흥선군에게 박재상을 소개한 것도 조선이었다.

박재상은 부친의 새로운 묘터를 찾으려는 김좌근의 테스트에 응시하여 그의 눈에 들어온다. 박재상은 김좌근의 주변에서 은밀한 보물창고를 발견하고 그곳에서 묘도를 찾아낸다. 충격적인 것은 장동 김씨의 조상묘는 모두 왕릉이었다. 장동 김씨는 왕릉의 묘를 파묘하고 국왕의 관위에 조상들의 관을 암장하고 봉분을 덮는 극악한 죄를 저지른 것이다. 박재상과 흥선군은 화살에 밀서를 달아 헌종왕 앞으로 날려 보낸다. 밀서를 읽은 헌종이 내금위병력을 동원하여 김좌근의 자택으로 향하였다. 그러나 김좌근은 두려움 하나 없이 “조카 왔는가?”하며 대역죄의 연행을 저질렀다. 문제는 헌종이 굳게 믿고 데려온 내금위 병력들 모두가 칼 끝을 헌종에게 겨누는 것이었다. 체포하러 갔다가 체포를 당한 헌종은 김좌근에게 무릎을 꿇었고 김좌근은

헌종이 미신 따위에 신봉되었다고 오히려 책망한다. 더 나아가 장동 김씨의 묘도를 도적질한 죄를 물어 이원경을 고문 끝에 죽여 버린다.

장동 김씨는 새로운 묘터를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 장동 김씨의 최측근 지관 "정만인"(박충선역)을 찾은 "김병기"(김성균역)는 새로운 명당터를 요구하고 정만인은 이미 김조순의 시신은 파묘하여 다시 내었기 때문에 부정을 탔다면서 그 부정을 덮을 강력한 기운을 가진 이대천자지지(二代天子之地)를 전한다. 김병기의 이야기를 들은 조선이 박재상과 흥선군에게 알려 주었지만 박재상은 전국 어디에도 이대천자지지는 없었다고 말한다. 조선은 김병기를 통해 정만인을 만나기 위해 길을 나선다. 정만인은 조선과 함께 방문한 김병기에게 김조순의 시신이 너무 많은 부정을 탔다고 이대천자지지에 매장해도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전한다. 전혀 새로운 인물을 매장하고 김좌근이 직접 왕위에 오를 것을 권유한다. 김병기에게는 패륜을 권하고, 조선에게는 입조심을 하면 왕후가 될 것이지만 입 때문에 결국 망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날린다.

김병기가 떠난 후 조선을 미행하던 흥선군 일행이 전격적으로 정만인의 거처를 급습하여 그를 데려간다. 정만인의 말을 듣고 아버지인 김좌근의 살해한 김병기는 정만인이 납치된 사실을 알고 조선을 고문하지만 조선은 자결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어 버린다. 이를 바라본 흥선군이 끝내 모른체 하고 돌아와 정만인을 옥박지른다.

흥선군의 반전이 시작된다. 본래 흥선군의 목적은 장동 김씨 세력의 파멸이 아니라 자신이 왕이 되는 것이었다. 자신의 권좌를 위해 박재상과 손을 잡았던 것일뿐 그와 온전한 동지는 아니었다. 정만인을 만난 흥선군은 그와 함께 이대천자지지로 향하고 박재상은 이를 말리지만 뜻을 이루지 못한다. 때늦은 시간 김병기는 이곳을 찾았지만 흥선군과 정만인은 가고 없고 박재상만 남아 있다. 김병기는 박재상을 급박했지만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구용식이 이대천자지지의 위치를 말해주며 김병기는 그들을 추적한다.

이대천자지지는 땅의 강력한 기운을 막기 위해 건립한 가야사였다. 흥선군과 일행은 승려들을 추방하고 가야사에 불을 지르려고 한다. 때마침 김병기 일행이 도착하여 양측간에 치열한 전투가 벌어진다. 결전 끝에 흥선군이 승전하고 패전한 김병기는 현재 왕의 묘에 대한 권리를 주장해 흥선군의 동의를 받는다. 흥선군의 묵인하에 순종이 김병기의 의관들로부터 독살당하는 등 명당을 놓고 무차별 살인이 자행된다. 박재상은 흥선군에게 마지막으로 2대에 걸쳐 왕이 등장하는 곳이지만 그 후엔 장자가 멸절하는 흥지라고 말하지만 흥선군은 이를 듣지 않는다.

가야사를 불태운 흥선군이 남연군의 묘터를 잡는다. 땅과 묘터에 대하여 설명을 하

던 정만인이 흥선군의 말에 올랐음을 확인해 주지만 흥선군은 정만인의 목숨을 거두어 간다. 김병기는 박재상을 찾아가 흥선군에 대한 복수를 말한다. 아버지 묘터를 청하고 박재상이 정해진 터에 김좌근의 묘를 이장한다. 그러나 가세는 끝없이 기울어 가고 다른 지관들에게도 묘터를 부탁한다. 그런데 현재의 묘터는 물이 흘러관이 부서지고 시신이 유실되는 곳이라는 말을 듣고 묘를 파보니 지관들의 말처럼 관은 사라지고 시신마저 유실되어 버린다. 이로서 박재상은 장동 김씨에 대한 복수를 깔끔하게 마무리 한다.

세월이 흐른후 경술국치를 넘어 일제강점기, 양복을 입은 젊은 남성 두명이 노년의 박재상을 찾는다. 잃어버린 나라를 찾기 위해 젊은이들을 교육할 학교를 세울 명당터를 찾고 있다. 박재상은 지도에서 간도를 가리키고 구용식은 그들에게 그동안 모아 놓은 재산과 땅을 학교건축에 사용해 달라고 학교 이름을 지어준다. 박재상은 새로운 기운이 흥하는 곳이라는 의미로 학교이름을 신흥이라고 지어 준다.

영화는 끝이 났다. 명당이란 어디일까? 명당에만 터를 잡으면 모든 일들이 만사형통할까? 높은 곳에 있으면서도 만족을 모르는 사람들의 욕구가 바로 명당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것은 아닌지 모를 일이다. 그리스도인에게 명당은 어디일까? 그리스도인에게는 모든 곳이 명당이다. 모든 세계가 하나님으로부터 도래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모든 곳을 평화롭게 건설하셨다. 단지 사람들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땅을 독차지하고 자기 소유라고 떼를 쓰는 것이다. 모든 욕심을 내려 놓으면 모든 곳은 명당이 된다. 그러나 욕심이 시작되는 곳에 모든 곳은 황폐하고 저주받은 땅이 되고 말 것이다.

28. “동네사람들”

한국영화, 장르:액션,스릴러 개봉:2018.11.07.

감독:임진순, 제작:데이드림엔터테인먼트,

주연:마동석,김새론,이상엽, 관객:461,693명(2018.12.31.현재)

아마추어복싱연맹 회식연을 찾아간 복싱코치 “역기철”(마동석역)의 손에는 2등 트로피가 들려져 있다. 협회가 짜고치고 1등과 2등을 나누어 가진 것이었으나 기철이 소속 선수가 이 일로 복싱을 은퇴하려 하자 속이 상해 협회에 이의 제기를 요구한 것이었다. 그러나 다혈질 성격의 역기철은 협회 부회장을 강편치 한 방으로 날려 버리면서 자신마저도 협회에서 해고되는 처지가 되었다. 그러던 중 시골학교에 코치 일자리가 마련되어 시골로 향한다. 한적한 시골마을 “강유진”(김새론역)은 며칠전 실종된 절친 “한수연”(신세휘역)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역기철은 학교에서 체육수업과 함께 학교주임 역할을 하며 학생들로부터 미남금을 수금하고 있다. 부임 첫날, 역기철의 옆좌석에는 미술교사인 “김지성”(이상엽)이 눈을 마주하지 못한채 인사를 한다. 점심시간, 학교식당에서 역기철은 학교 이사장이며 군수 선거에 출마중인 “김기태”(장광역)를 만나 인사를 나눈다.

역기철은 학생들의 사진과 학교미남금 명단을 들고 찾아가 돈을 내라고 독촉을 한다. 그 가운데 강유진과 한수연도 포함되어 있어서 역기철은 강유진을 찾아가 미남금을 납부해라고 독촉하면서 한수연의 가출을 말하며 행방을 묻는데 강유진은 분노의 표시를 나타낸다. 강유진은 절친인 한수연을 찾기 위해 학교게시판과 동분서주하며 찾아 다니지만 오리무중이다. 학생 가출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학교는 단순가출로 몰아가며 강유진의 행동에 못마땅해 한다. 휴일에도 미남금 명단을 찾아 다니는 역기철이 길에서 인형뽑기놀이를 즐기고 있는데 이를 바라본 강유진이 한심한 듯 쳐다보지만 역기철은 게임에 푹 빠져 있다. 시내에서는 김기태 이사장이 군수 선거운동을 하고 있고 그곳에서 역기철이 어디론가 가고 있는 강유진을 발견한다. 강유진은 한수연의 할머니댁에서 찾은 어떤 문양을 증거로 그 문양이 있을 것 같은 룸싸롱으로 들어 간다. 수연은 룸싸롱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한수연의 사진을 보여주자 그 중 한명이 채림이 아닌가?하며 이야기를 건넨다. 무엇인가 눈치를 챈 강유진이 그들에게 다그칠 무렵 뒤쫓아 온 역기철이 강유진을 데리고 룸싸롱을 빠져 나가던 중 조폭 두목 “곽병두”(진선규역)와 마주치며 두 사람은 눈빛을 교환한다. 곽병두는 김기태 이사장의 선거를 후원하는 비선조직이다. 역기철이 강유진에게 이런 위험한 곳에 오면 앓된다고 다그치는 동안, 룸싸롱에서 여자 한명이 따라 나와 이슬언니라는 마담이 한수연의 행방을 알 것이라면서 귀뜸을 해 준다.

귀가길, 역기철은 강유진에게 후배경찰에게 한수연의 행방을 알아보겠다고 약속하

며 강유진을 안정시킨다. 집으로 가는 길이 먼 강유진이 홀로 걸어가던 도중 차를 타고 추적하던 한 남자의 추격을 받고 전기충격을 맞고 기절해 버린다. 때마침, 강유진이 염려되어 차를 타고 온 역기철에 의해 강유진은 구조되고 한 남자는 바로 도주해 버린다. 역기철은 강유진을 병원에 데리고 가지만 큰 부상은 없었다. 병원을 찾아온 경찰들은 한수연을 찾아 달라는 강유진의 애원에도 불구하고 무관심한 반응을 보인다. 경찰의 반응에 의구심을 느낀 역기철이 후배경찰로부터 김기태 이사장 군수선거문제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쉬쉬하는 것이라는 말을 듣는다. 문제는 한수연의 실종사건은 아직 정식으로 접수조차 되지 않은 상태다. 역기철은 한수연의 할머니를 찾아가 동의서를 받고 후배경찰을 통해 정식으로 실종사건으로 접수하며 이 사건의 중심으로 향한다. 학교에서는 역기철이 한수연의 실종사건에 관심을 갖는 것을 못마땅해 하고 교감선생까지 나서서 역기철을 컨트롤 하려 한다.

어느날, 역기철이 학교 화장실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보고 흡연하는 학생들을 잡으려 하다가 그곳에서 몰래카메라를 발견한다. 컴퓨터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확인을 하자 몰래카메라 설치자가 옆자리에 앉은 미술선생이었다. 때마침 미술선생의 자리에 카톡이 켜져 있었고, 한수연이 실종된 날 카톡내용이 남아 있었다. 한수연이 실종되던 날, 수연을 태우러 간 사람이 바로 김지성 선생이라는 사실을 발견한다. 이러한 사실을 역기철이 강유진에게 알리는 시간, 우연하게도 강유진은 김지성의 차에 태워져 어디론가를 향하고 있었다. 강유진은 역기철과 통화하면서 직감적으로 두려움에 떨지만 눈치챈 김지성이 강유진을 주먹으로 때려 실신시키고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결박을 해 버린다. 한편 역기철 또한 김지성이 강유진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 갔다는 사실을 알고 김지성의 집 문을 부수고 진입한다. 순식간에 김지성을 주먹 한방으로 제압한 후 강유진을 구해 낸다. 한수연이 실종되는 날, 김지성 선생은 한수연을 태우고 집으로 가던 도중 어디로 부턴가 전화를 받고 먼저 내렸다. 그러나 무엇인가 의심스러웠던 김지성 선생이 다시 돌아와 한수연을 내려 주었던 장소로 되돌아와 건물 여러곳을 확인하던 중 화장실에서 한수연의 휴대폰을 발견하고 그것을 주워 자신이 보관하고 있었다. 이렇게 김지성 선생이 역기철에게 자백하는 동안 강유진은 경찰에 김지성을 신고하고 경찰은 김지성 선생을 현장에서 체포한다. 그러나 역시 선거철을 이유로 경찰들은 지지부진한 수사를 하고 있다.

룸싸롱 사장 광병두의 전화를 받은 김기태 이사장은 역기철이 한수연의 실종사건에 개입하고 있다는 첩보를 전한다. 모든 것이 피곤해진 김기태 이사장은 돈다발을 건네며 역기철에게 퇴직을 권유한다. 답답한 마음으로 귀가한 역기철에게 걸려온 후배 경찰의 전화 한 통은 모든 것을 바꾸어 놓는다. 실종된 한수연이 시체로 발견되었다는 내용이다. 역기철과 함께 시체가 발견된 장소로 간 강유진은 오열을 하고, 이를 바라본 후배경찰이 작심한 듯 경찰서에 보관중인 한수연의 휴대폰을 밀반출해 이슬이라는 마담과의 마지막 통화내용을 발견하고 역기철에게 이 사실을 알린다.

그러나 후배경찰마저 룸싸롱 광병두 사장의 부하들에게 붙잡히는 신세가 되고 휴대폰도 압수를 당하게 된다. 자신의 선거에 불리한 정황을 발견한 김 이사장은 경찰서장에게 실종사건을 덮어라고 억박지른다.

역기철은 룸싸롱에서 마담 “이슬”(배진아역)을 찾는다. 당시 한수연은 룸싸롱에서 노래와 접대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 선거에 출마하는 김이사장을 접대중이었던 한수연은 할머니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귀가하려 하지만 김이사장은 한수연이 자신의 학교 학생이라는 사실을 안지하게 된다. 이 일로 김이사장은 룸싸롱 광병두 사장을 불러 꾸중을 하고, 접대중 한수연이 김이사장에게 상처를 입히고 도주하는 일이 발생한다. 자초지종을 알게된 역기철이 룸싸롱 광병두를 찾아가 부하들과 싸움이 일어나지만 일거에 진압한 역기철이 광병두마저 일시에 제압하고 베일에 가려진 충격적인 진실을 듣게 된다. 한수연 실종 당일, 한수연은 김이사장 접대 도중 도주하여 김지성 선생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그러나 지성 또한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고 여학생들의 은밀한 부분을 보며 강간을 일삼아 온 이중인격자였다. 한수연을 도와 주려는 듯한 김지성 선생은 건물 화장실로 데려가 강간을 시도한다. 그때, 광병두 사장이 현장으로 오게 되고, 그곳에서 한수연의 입을 막고 숨어 있는 김지성을 발견한다. 후일담으로 김지성은 김이사장의 친아들이었다. 광병두 사장의 전화를 받고 현장으로 달려온 김 이사장은 자신의 아들인 김지성을 크게 꾸짖는다. 그리고 이 모든 사실의 증인인 한수연을 비밀봉지로 죽여 버린후 시신을 유기해 버린다. 한편, 김지성 선생은 하루만에 경찰서에서 풀려 나고 유진까지 납치해 강간을 시도하다가 역기철에게 다시 걸려든 것이다. 그러나 김지성의 집에서 발악하던 강유진은 깨진 와인잔에 목이 찢려 깊은 상처를 입게 되고 역기철 또한 김지성이 찢은 칼을 맞고 쓰러지며 김지성에게 한 방을 날려 버린다. 그후 역기철은 강유진을 병원으로 데려가 응급처치를 하고 비장의 결심을 굳힌 듯 병원문을 나선다.

김이사장은 선거에서 승리를 자축하며 기사를 대동하고 차로 이동하려 한다. 그때 역기철이 나타나 김이사장의 차를 들이받아 버린다. 분노를 삭이지 못한 역기철이 김이사장의 차량 유리를 박살내며 위협하는 순간, 경찰이 출동을 한다. 이에 김이사장이 미소를 지어 보이지만 경찰에 체포된 것은 역기철이 아니라 한수연 살인사건 피의자인 김이사장이었다. 사건이 마무리 될 무렵 역기철은 동네를 떠나기 전 인형뽑기게임에서 뽑은 인형을 강유진의 머리결에 두고 길을 떠난다. 늦은 시간 인형을 발견한 강유진이 미소를 지으며 영화는 끝이 난다.

1시간40분의 정통적인 한국영화 “동네사람들”은 마동석의 인간미를 등장시킨다. 실종사건뒤에 가려진 추악한 진실은 언제나 어른들의 일탈이 존재한다. 그리스도인은 이 영화에서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 누구든지 잘못을 저지르고 유혹에 넘어질 수 있다. 그때 진실로 용기있는 사람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 죄로부터 단절하는

것이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에게는 더욱더 필요한 용기다. 그러나 김이사장은 자신의 영광과 아들의 죄를 덮기 위해 힘없는 소녀를 어김없이 희생시키고 진실마저 덮으려 하였다. 그러나 어디선가 나타난 역기철의 반전으로 진실은 다시 수면위로 올라왔고 두 번째 위기를 맞이한 강유진의 목숨을 구해낸 것이다. 그리스도인에게도 이러한 용기와 지혜가 필요하다. 동네사람들은 추악한 거짓과 위선앞에서 당당해야 하고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용기를 드러내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믿음의 표현이다.

29. “성난황소”Unstoppable

한국영화, 장르:액션,범죄 개봉:2018.11.22.

감독:김민호, 제작:플러스미디어엔터테인먼트,BA엔터테인먼트

주연:마동석,송지효, 관객:1,593,298명(2019.01.01.현재)

“강동철”(마동석역)은 “춘식”(박지환역)과 함께 수산시장 건어물 유통업을 하는 보통 사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수산시장조합장 “홍광표”(정해균역)는 상인들을 대상으로 갑질을 일삼으면서 금품수수를 하고 강동철에게도 납품대금을 제때 주지 않고 있다.

어느날 강동철은 “박사장”(정인기역)의 연락을 받고 춘식과 함께 약속장소로 간다. 박사장은 선주이며 킹크랩 사장(김원해역)을 소개하며 대박사업에 투자할 것을 제안한다. 킹크랩이 마리당 20만원으로 유통기간 3개월에 돈방석이라는 말에 강동철은 거금의 계약금을 지불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주간에는 요양원에서 일하고 야간에는 식당에서 일하는 “지수”(송지효역)가 남편인 강동철과 함께 귀가길 차안에서 김밥을 먹고 있다. 강동철은 물을 건네며 킹크랩 사업건을 이야기 하지만 지수는 불신감을 드러내며 부채부터 정리하자고 요구한다. 강동철은 이미 헬스기구사업과 아프리카 봉어빵 장사계획 등으로 불신을 자초한 바 있다.

“기태”(김성오역)의 부하들이 돈을 받기 위해 아파트로 향하고 어떤 남자에게 보험금을 받으려면 시키는대로 하라고 옥박지르며 화장실로 끌고 간다. 때마침 딸 “소연”(배누리역)이 귀가를 하고, 소연을 본 기태가 태도를 바꾸며 남자를 장인이라고 부르면서 칼로 손목을 그어 버린다. 기태는 소연을 납치한다. 기태가 운전을 하고 있는 “두식”(이성우역)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자 두식이 담배를 찾다가 신호대기중인 강동철의 차를 들이 받는다. 사고를 당한 강동철이 아내 지수의 상태를 확인한 후 차에서 내려 기태의 차로 가서 자동차를 확인해 보라고 말한다. 차문을 연 두식이 명함과 돈을 내밀며 지금은 바쁘니 현금으로 처리하자고 요구하자 강동철이 보험사고 처리하겠다고 말한다. 그러자 두식이 돈을 던지면서 그냥 가라고 고함을 지른다. 화가 난 지수가 사과를 요구하며 돈이는 다되는 세상이 아니라고 강변한다. 지수가 강동철에게 경찰을 부르라고 요구하자 기태가 차에서 내려 두식을 때린 뒤 사과를 한다. 기태를 바라본 강동철이 조폭이라는 것을 직감하고 지수를 차에 태운다.

며칠후 강동철은 수산시장협동조합 사무실을 찾아가 밀린 미수금을 달라고 말하지만 조합장은 사정을 얘기하며 200만원만 지급한다. 편의점에서 빵을 먹고 있을 때

춘식이 강동철에게 한달이 되어 가는데 킹크랩배가 언제 들어 올지 의구심을 드러낸다. 그러나 강동철은 박사장이 신세진 것이 많으니 자신에게 거짓을 말할 사람이 아니라며 신뢰를 다진다. 때마침 강동철에게 박사장의 전화가 걸려온다. 박사장은 뉴스를 이야기하며 배가 들어오다가 중국영해를 침범해 나포되었다는 비보를 전한다. 외교문제로 인하여 양국 대통령간에 해결할 문제로 청와대에 소원수리를 보냈다는 절망적인 소식을 전한다.

지수는 강동철의 부채문제로 법률사무소를 찾아가 상담을 받는다. 강동철은 지수의 생일을 기념해 킹크랩이 성인병 예방에 효과가 있다면서 살을 모두 발라준다. 지수는 법률사무소에서 들은 해결책으로 채권자들을 피해서 위장이혼 이야기를 꺼낸다. 지수는 당장 도래할 집세와 생활비 대책을 묻지만 강동철은 배만 들어오면 된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대책이 없다. 지수의 압박에 결국 강동철은 킹크랩투자를 위해 1억원의 대출을 받았다고 말한다. 강동철이 지수의 생일케익에 촛불을 붙이는 사이 지수는 레스토랑을 나가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버린다. 강동철이 지수를 뒤쫓아 밖으로 나왔을 때 하늘에서는 뜬금없는 비가 쏟아진다.

귀가한 지수가 초인종 소리에 현관문을 확인하려는 순간 괴한의 남자가 등장하고 재빨리 방으로 도망친 지수가 신고를 하려하지만 베란다 문 유리창을 깨뜨리고 들어온 괴한이 지수를 납치해 간다. 그 시간, 강동철은 아파트 입구에서 짐을 옮기는 차량으로 인하여 진입을 늦추고 있다. 그순간 다 되었다는 전화를 받은 남자가 미소를 띄우며 유유히 사라진다. 집으로 돌아온 강동철이 바라본 내부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고 지수가 납치되었음을 직감할수 있었다. 강동철이 경찰에 실종신고를 접수하고 다음날 경찰이 CC-TV를 확인하지만 비가 와서 자동차 번호판 식별이 불가능하다는 소식을 전한다. 경찰서를 나서는 강동철에게 한통의 전화가 걸려온다. 지수의 납치범 기태가 지수의 다급한 목소리를 들려주며 2시까지 오라고 전한다.

냉장고에서 이천농원 장어 직판장 명함을 찾은 강동철이 약속장소에 갔을 때 예약석에는 가방과 전화기가 놓여져 있었다. 약속시간 40분후, 전화가 걸려오고 기태가 앞에 놓여져 있는 가방을 열어 보라고 말한다. 기태는 예전에 돈이 없으면 집의 물건들을 팔아 돈을 마련했던 일들을 상기하며 아내를 팔았다고 생각하라면서 혼자 오라고 했는데 흑을 데리고 왔다고 하면서 유유히 떠난다. 환급히 식당밖을 나온 강동철이 때마침 떠나려는 차를 막고 확인을 했지만 전혀 다른 사람이다. 강동철은 경찰서를 찾아가 납치범이 돈을 주었다면서 증거물을 제시하고 경찰은 지문감식을 위해 보존을 한다. 강동철은 아파트 CC-TV와 블랙박스 위치를 확인하며 경찰을 종용하였지만 경찰서 현황판에 부착된 미귀가, 실종자 명단이 말하듯이 귀찮은 표정을 짓는다.

강동철은 춘식에게 공사장과의 연락을 묻고 춘식은 공사장은 돈이 있어야 움직이는 사람이라고 전한다. 다급한 강동철이 조합을 찾아가 밀린 돈을 요구하고 조합원들의 폭력을 당하는 가운데 조합장으로부터 돈을 지급받는다. 돈을 받은 강동철과 춘식이 "공사장"(김민재역)을 찾아가고 때마침 일을 마치고 사무실로 들어오는 공사장을 만난다. 강동철의 사정을 들은 공사장이 납치범이 준 돈은 납치 댓가로 주는 위자료라고 말한다. 강동철이 공사장에게 착수금을 지급하며 아내를 찾아달라고 사정하고 공사장은 야간수당을 이야기 하며 추가금을 요구한다. 춘식은 큰 건이라고 말하면서 이익의 5%를 추가로 제시한다.

공사장은 이천농원직판장 CC-TV에서 자동차번호판을 확인하고 중고차 판매상을 찾아가 거래내역을 확인해 "최만식"(장혁진역)을 추적한다. 그는 도박으로 재산을 탕진하고 차마져 5백에 넘긴 것이었다. 번호판을 넘긴 곳을 찾은 강동철과 춘식과 공사장은 지하에서 한 남자를 만난다. 지하 도박장 사무실에서 장부를 가져오라고 말하고 도박장 사장은 경찰이냐고 되묻는다. 아니라고 말하자 도박장 사장이 문을 잠그라고 말하고 도박장 직원이 공사장을 쓰러 뜨린다. 도박장안에서 강동철이 한명씩 제거하고 사무실을 초토화 하며 기사회생하는 기적을 보인다. 사무실을 제압한 후 공사장이 9291번호판을 사간 사람을 물어보고 직원 한명이 명함을 건네며 이 사람이라고 전한다. 도박장을 나온 공사장이 춘식으로부터 예전 국제호텔 폭력사건의 강동철이 바로 지금의 강동철이라는 말을 듣는다.

강동철은 명함에 등장하는 술집을 찾는다. 종업원은 가게주인이 1년전에 바뀌었다고 말한다. 술집을 나오는 순간 승합차가 도착하고 한 남자가 아가씨들을 데리고 술집으로 들어간다. 수상히 여긴 강동철이 차안에서 이천식당의 명함을 발견하고 그가 아파트 입구에서 길을 막고 있던 남자라는 사실을 기억한다. 잠시후 그 남자가 나오고 강동철이 다가가 차 문을 부수며 잡으려 하지만 도주를 해버린다. 잠시후 강동철에게 경찰의 전화가 걸려오고 경찰서를 찾는다. 경찰은 실종자와 비슷한 사진을 보여주지만 아니었다. 함께 사진을 본 공사장이 죽은 이은정이 2년전 병원에 코마상태로 누워있다가 실종된 여자라고 하며 얼마전 그여자의 남편이 자수를 했다고 전한다. 2년전 기태가 이은정과 남편의 사연을 TV로 보고 남편을 잡아와 돈을 건네며 그의 아내를 데려간다. 이은정의 남편은 병원에 누워있는 아내 대신에 돈을 선택한 사람이었다. 이러한 자신의 과거를 강동철에게 전한 남편은 자책감을 못이긴 듯 강동철과 춘식이 떠난 후 옥상에서 자살해 버린다.

강동철은 남편이 전해준 서류에서 DS(대성)라는 명함을 발견하고 얼마전 교통사고 접촉사고 명함과 대조해 동일한 것을 확인한다. 강동철은 "두식"(이성우역)을 찾아가 "너 나 알지?"라고 말하며 문을 잠근다. 며칠전 아내가 납치된 사실을 상기해 주며 질문을 하자 두식이 겁에 질린 듯 비상벨을 누르려 한다. 두식을 제압한 강동철이

명함을 보여주면서 지수의 소재를 물어본다. 강동철이 두식을 데리고 가는 장면을 CC-TV로 목격한 기태가 공사장의 사무실로 데려가 압박하는 강동철에게 전화를 한다. 기태는 영상통화에서 납치되어 있는 지수를 보여주며 자신의 부하인 두식을 죽이라고 말한다. 강동철이 두식을 죽이는 것을 거부하자 기태는 지수를 물속으로 넣으며 압박을 하고 결국 강동철은 두식의 목을 졸라 기절을 시킨다. 기태는 강동철의 승리라고 말하며 아내를 찾고 싶으면 다시 돈을 가져오라고 말한다.

기절에서 깨어난 두식은 기태가 한류열풍을 미끼로 외국남자들이 한국여성을 선호한다는 것을 알고 인신매매를 하고 있다고 하며 강원도를 중심으로 위치를 계속 변경한다고 말한다. 기태가 준 돈이 필요한 강동철은 공사장과 춘식의 밀도있는 검사 위장 연기로 경찰서에서 돈을 다시 찾아 나오지만 사건담당형사의 의구심으로 공사장과 춘식이 오히려 체포될 위기를 맞는다. 그때 강동철이 사건담당형사의 차량을 폭파하고 경찰들이 우왕좌왕하며 당황하는 순간 공사장과 춘식이 강동철의 차에 올라 도주를 한다. 사건 담당형사가 강동철에게 방화와 증거품탈취의 죄목이 크다고 말하자 강동철은 아내를 찾은 후 죄값을 받겠다고 말한다.

기태의 부하가 말을 듣지 않는 소연을 때리자 옆에 있던 지수가 부하의 급소를 발로 차서 함께 저항한다. 기태가 기절한 소연을 바라보며 상품을 손상시켰다면서 부하를 다시 때린다. 강동철로부터 돈을 찾았다는 전화를 받은 기태가 전화를 끊은 후 철수 지시를 내리며 동철이 오면 돈을 받고 모두 죽여라는 지시를 내린다.

지수가 쓰러진 소연을 보며 주변을 살핀다. 창문에 붙어 있는 가림막을 뜯어 내고 방법창마저 제거한다. 지수가 먼저 탈출하고 소연이 탈출하는 순간 기태의 부하가 들어온다. 소연이 창문틀을 밟고 건너편으로 뛰어 야구방망이로 부하의 머리를 가격한 후 도주하려는데 기태와 마주친다. 지수는 택시를 타고 경찰서를 가자고 말하지만 경찰서앞 도로공사로 길이 막힌다. 지수가 길에 내려 경찰서로 달려가는 순간 언제 온 것인지 기태가 지수를 다시 막아서고 있다.

동철과 춘식과 공사장이 강원도에 도착하여 가로막힌 정문을 차로 들이 받으며 건물에 진입한다. 강동철은 CC-TV를 확인하던 기철의 부하들을 하나씩 제거하며 초토화시킨다. 건물 외곽에서 여자들을 차에 태우려던 부하들을 공사장과 춘식이 제압하자 경찰이 현장에 도착해 기태의 부하들을 체포한다. 현장을 뒤지던 공사장과 춘식이 검사와 조사관을 사칭하며 경찰들을 다그치지만 다시 자신들을 아는 경찰을 보고 급히 나간다.

다시 지수를 납치한 기태가 현장으로 돌아왔을 때 완전히 뒤바뀐 상황을 발견한다. 도망치는 기태를 발견한 강동철이 차를 몰아 기태의 차를 들이 받자 기태가 자신의

차 안에 지수가 있음을 알려준다. 자동차 추격전에 강동철의 차가 전복되고 기태가 차에서 도끼를 들고 나타나 동철과 일대 마지막 혈투를 벌인다. KO패를 당한 기태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쇼를 하다가 칼을 꺼내어 강동철에게 가격하려 했지만 성난 황소같은 한 방에 떨어져 나간다. 강동철은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하다고 말하면서 지수를 품에 안고 경찰이 출동하면서 영화는 끝이 난다. 엔딩후 중국에 나포된 킹크랩 대박호가 무사히 입항하고 1년후 지수의 생일, 킹크랩 식당 카운터에는 춘식이 있고, 홀에는 소연이 있으며, 주방에서는 곰사장이 요리를 즐거워 하고 있다.

영화 성난 황소는 보통사람으로 살아가는 한 사람에게 위기가 직면하였을 때 나타나는 감정과 호소를 그려내고 있다. 그리스도인에게도 이러한 신념과 도전이 필요하다.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강동철의 폭력적 복수가 아니라 지켜야 할 것을 지키 줄 아는 노력과 의지를 말하는 것이다. 신앙은 그냥 지키는 것이 아니다. 신념을 세우고 더 나아가 기독교 세계관을 계승하는 노력과 의지가 요구된다. 성난황소 강동철은 결국 자신이 지켜야 할 아내 지수를 지켰다. 이것이 자신이 지켜야 할 가장 소중한 것을 감사하게 여기는 진실의 승리라 할 것이다.

30. “도어락”Door Lock

한국영화, 장르:스릴러, 개봉:2018.12.05.

감독:이권, 각본:이권,박정희, 제작:영화사피어나

주연:공효진,김예원,김성오, 관객:1,559,945명(2019.01.01.현재)

“강승혜”(한지은역)가 지하철에서 내려 버스에 환승한 후 오피스텔로 돌아와 우편함에서 우편물을 확인한다. 마스터키로 문을 열고 들어왔지만 전원이 차단되어 어둠이 몰려 온다. 스마트폰 라이트로 오피스텔 내부를 살펴보며 옷장문을 여는 순간 뒤에서 괴한이 나타나 승혜를 덮친다.

“조경민”(공효진역)과 함께 잠을 자던 남자가 새벽4시를 알리는 알람이 울리자 시리얼을 먹은후 떠난다. 피로감에 젖어있는 경민이 출근 준비를 서두르고 집을 나서는 순간 현관문의 도어락 덮개가 열려있는 것을 발견한다. 의심쩍은 경민은 비밀번호를 1748로 변경하고 덮개를 닫으며 출근한다. 경민은 은행창구에서 대기중인 손님을 호출하는데 “박대리”(김재화역)가 중간에서 손님을 먼저 받는다. 퇴근시간 지하철안에서 “오효주”(김예원역)는 함께 동승한 경민에게 착하게 살면 호구가 된다면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면 웃음을 사용하라고 팁을 준다. 지하철 맞은편에 앉아있는 “김기정”(조복래역)이 두 사람을 물끄러미 지켜보고 있다.

오피스텔에 도착한 경민이 엘리베이터를 타려는 순간 경비실 직원이 601호실에 전달할 물건이 있다고 말한다. 받을 물건이 없었던 경민이 누가 준 것이냐고 물었지만 교대근무자로부터 인계받은 것이라고 전한다. 집앞에 도착한 경민은 다시 도어락 덮개가 열려있고 어머니께서 관리실에 홍삼을 맡기고 돌아간다는 메시지를 확인한 후에야 안심을 한다. 아무런 연락없이 온 어머니에게 전화를 한 경민이 도어락 덮개를 열었는지 물어보고 안전을 위해 비번을 수시로 바꾼다고 말한다. 그날 밤, 잠을 청하려던 경민이 누군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며 도어락을 누르는 소리를 듣는다. 잠시후 문을 열려고 하다가 다시 조용해지기를 반복하자 놀란 경민이 문밖에 인기척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밖으로 나가보니 바닥에 담배꽂초가 떨어져 있다. 두려운 나머지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고 오피스텔에 경찰이 출동하지만 사건 접수조차 되지 않는다. 그날밤 경민이 잠든 사이에 어디선가 나타난 남자는 경민의 옆에서 잠을 청한후 새벽 4시에 일어나 샤워를 하고 경민의 머릿결을 쓰다듬은 후 사라진다. 아침 출근길, 관리실 교대근무자가 경민에게 물건 수령 여부를 묻고 경민은 어제밤 누군가 도어락을 열려고 한다면 퇴근후 CC-TV를 확인하려고 한다.

점심시간, 효주는 도어락을 지문인식으로 교체하라고 말하고 경민은 돈을 모아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야겠다고 말한다. 효주는 “김성호”(이천희역)과장이 경민에게 과

영 친절하다면서 결혼이야기를 꺼낸다. 경민이 은행창구에서 79번 손님을 부르고 박대리가 중간에서 다시 가로 채려 하자 경민이 적극적으로 “김기정”(조복래역) 손님을 부르고 김기정은 경민에게로 간다. 경민은 미소를 지으며 결혼여부(미혼), 직업(목수일), 거주지(봉천동) 등을 물어보면서 적금가입을 권유한다. 남자는 경민에게 치근덕거리며 커피한잔하면 적금에 가입하겠다고 말한다. 경민은 김기정의 계좌잔고를 확인하고 적금은 다음에 좋은 상품이 나오면 하라고 권유하며 돌아갈 것을 말한다. 이에 자신을 무시했다고 생각한 김기정은 조경민이 먼저 친한 척 꼬리를 쳤다고 속물처럼 살지 말라고 소리 지르며 은행밖으로 쫓겨 나간다.

오피스텔 “관리소장”(장유역)은 관리실 야간근무 직원에게 업무를 제대로 못한다고 화를 낸다. 경민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6층으로 올라가는 도중 함께 탄 남자를 경계한다. 경민이 잠든 사이 한 남자가 침대밑에서 나와 마취제를 손수건에 뿌리고 잠든 경민의 코와 입을 막자 경민은 정신을 잃고 깊은 잠에 빠진다.

다음날 출근한 경민은 은행차장과의 면담에서 경민의 계약만료일 소식을 전하며 근무실적과 지점장 평가등을 이유로 무기계약직 전환을 통보한다. 야근을 하던 경민에게 발신자표시없는 전화가 걸려온다. 퇴근길 버스정류소에서도 동일한 전화가 다시 걸려오지만 받지 않는다. 그때 김기정 고객이 인사를 하며 아는척을 한다. 경민은 은행에서 있었던 일을 상기하며 사과를 한다. 김기정은 같은 동네인데 택시를 타고 가자며 팔을 잡고, 거부하자 다시 커피한잔이라도 하자며 팔을 붙든다. 때마침 버스정류장을 지나던 김성호 과장이 차에서 내려 김기정을 꾸짖고 경민을 오피스텔까지 데려다 준다. 경민이 집으로 들어가는데 다시 전등이 들어오지 않는다. 그때 김과장이 문을 두드리면서 차에 지갑을 두고 갔다고 말한다. 경민이 문을 열어주자 김과장이 전기를 봐주겠다고 말하며 빨래걸이에 걸려있는 남자 속옷을 보며 독신인 줄 알았는데 라고 말하자 경민은 안전장치로 걸어둔 것 뿐이라고 말한다. 김과장이 손을 씻기 위해 화장실을 쓰러 하자 경민이 먼저 들어가 정리를 하려는데 변기 덮개가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놀란다. 화장실을 나오며 경민이 김과장에게 오피스텔 호실을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묻자 김과장의 대답을 듣기도 전에 커피를 사오겠다면서 집을 나가 경찰에 신고부터 한다. 출동한 경찰과 함께 오피스텔을 열고 들어가자 스토커로 의심했던 김과장이 방에서 죽은 채 발견된다. 출동한 “이형사”(김성오역)는 김성호 과장이 지갑을 가져다 주겠다고 해서 관리실 직원이 호실을 알려 주었다고 김과장의 알리바이를 인정한다. 즉, 경민이 다른 사람을 시켜 김과장을 죽이고 피해자인 척 하는 것이라고 탐문하기 시작한다. 이형사는 김성호의 혈액에서 마취제 성분이 나왔다고 말하며 추궁을 거듭한다. 경찰서에서는 이미 경민이 누군가 자신의 집으로 들어오려 했다는 신고를 한점을 이유로 석방을 결정한다. 며칠후 경민이 회사 출근을 했지만 무기계약직 전환이 취소되고 재계약 불허 결정을 통보받는다. 모든 짐을 챙긴 경민이 힘없이 집으로 돌아오고 효주는

불안감에 사로잡힌 경민에게 이사전까지 자신의 집으로 오라고 문자를 보낸다. 오피스텔 관리실에서 경민은 CC-TV를 확인하지만 엘리베이터입구에만 있고 복도에 있는 것은 모두 모조품이라는 말을 듣고 실망한다. 관리실 직원은 엘리베이터에 없으면 그 사람은 분명 술취한 사람이거나 오피스텔 내부인이라고 말한다. 경민은 관리인에게 자신의 집안을 관찰해 달라고 부탁하고 내부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확인한 관리인은 되돌아 간다. 집안을 청소하던 경민이 바닥에 떨어진 원두를 치우는 과정에서 가구 밑에 있는 마스터키를 발견한다. 경민은 관리인의 말을 상기하며 10층으로 올라가 모든 집의 도어락에 마스터 키를 가져다 대어 보자 701호의 도어락이 열린다. 카드 영수증에 "강승혜"(한지은역)가 있다. 토요일 경민은 효주와 함께 강승혜의 카드내역을 확인하던중 늘 같은 시각, 같은 편의점에서 3200원을 결제하는 사실을 발견했다. 효주는 강승혜가 경민의 집에 숨어 있었는지 김과장이 강승혜의 집에 숨어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한다. 경민이 승혜의 번호로 전화를 걸어 보지만 받지 않는다. 경민은 효주의 말대로 편의점에서 기다리겠다는 톡을 보내어 확인을 하려 한다. 경민과 효주는 편의점에서 3200원의 물건들을 찾고 점심을 먹으며 때를 기다린다. 오후 1시가 지나고 한 여자(고은영역)가 2300원을 결제하고 나간다. 경민과 효주가 여자를 뒤쫓지만 실패한다. 경민은 길가에서 죽통을 발견하고 고양이를 뒤따라 간다. 그 집안에는 3200원의 죽통이 쌓여 있었다. 효주는 다시 편의점에서 나온 여자를 발견하고 추적한다.

경민이 집안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확인하자 자신의 집에 설치된 도어락과 같은 기종임을 확인하고 혹시나 해서 1784비번을 눌러 본다. 문이 열리고 효주에게 전화를 하지만 받지 않는다. 그곳에서 경민은 침대에 묶여있는 승혜를 발견하고 112에 신고를 한다. 설명조차 하지 못한 상태에서 남자가 대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오고 경민은 전화를 끊고 침대 밑에 숨어 들어간다. 효주는 승혜로부터 반갑다는 톡을 받고, 승혜가 맞는지 다시 톡을 되보낸다. 남자는 의식이 없는 승혜에게 효주와 아는 관계인지 묻고 계속 전화가 온다고 독백을 한다. 남자는 이제 승혜 아랫집에 사는 다른 여자가 생겼다고 말한다. 이에 놀란 경민이 남자가 잠시 자리를 떠난 사이에 침대 밑에서 나와 방문뒤에 숨는다. 경찰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고 남자는 창밖을 주시한다. 그때 경민이 현관문으로 도망치려 하자 전화벨소리가 울린다. 남자는 전화를 받으라고 말하고 경민은 문을 열고 도주하기 시작하여 폐건물 안으로 숨어 들어갔다. 뒤쫓아온 남자가 주위를 찾다가 경민을 발견하고 셔터문을 울린다. 때마침 효주가 나타나 남자를 공격하고 남자는 효주를 밀어 붙이며 경민에게 다가간다. 효주가 길을 지나는 경찰을 부르고 남자는 어디론가 도망을 한다.

현장에 출동한 이형사는 그 집에서 아무것도 발견한 것이 없자 경민의 말을 신뢰하지 않는다. 경찰은 경민에게 범인의 신발이나 옷 외에 얼굴을 보지 못했는지 물어 보지만 기억을 못한채 한때 유행했던 시계를 차고 있었다는 사실만을 단서로 전한

다. 경찰은 옥상에서 죽은 승혜의 시신을 찾아낸다. 김기정을 체포한 경찰은 범인이 왜 옥상에 둔것인지를 캐 묻자 목수의 시각으로 볼 때 경고의 표시일 것이라고 말한다.

경민은 효주가 남자에게 달려 들었을 때 같이 싸우지 못했음을 자책한다. 이형사는 김기정을 범인으로 몰아가며 사건을 마무리 하려 하지만 경민은 증거부족으로 풀려날 것을 우려한다. 경민은 새로 구한 집으로 이사를 하고 효주는 짜장면을 같이 먹으며 찾아올 것을 약속한다. 김기정은 증거부족으로 석방되고 경민이 살았던 오피스텔을 찾아가 사촌오빠라고 속인 후 이사간 곳의 행방을 찾는다.

경민은 효주를 기다리며 중국집 요리를 보고 있다. 누군가 문을 두드리자 경민은 숨죽이며 조용히 있었고 배달기사가 문앞에 두고 간다는 말을 남기고 간다. 경민이 현관문 앞에 놓인 박스속에서 핸드폰을 발견하고 켜보자 경민이 잠자는 사진들이 찍혀 있다. 잠시 뒤 효주로부터 영상통화가 걸려오고 남자의 모습과 함께 효주가 보인다. 놀란 경민이 효주의 집으로 달려가고 문밖에서 효주를 부른다. 옆 소화기로 문을 부수려 할때에 김기정이 나타나 자신을 범인으로 몰았다면서 팔을 붙잡는다. 때마침 이형사와 경찰이 나타나고 김기정을 체포한다. 경민이 소화기로 도어락을 부수고 집안으로 들어가자 효주가 중상을 입은채 쓰러져 있다. 효주는 병원으로 긴급히 이송되어 수술을 받는다.

이형사는 범인이 미리 찍은 동영상을 재생하면서 효주의 폰으로 보낸 것이라고 말한다. 이형사는 김기정의 공구가방에서 지문을 찾았다. 효주의 수술이 끝났지만 그녀는 사건 단서를 기억을 하지 못한다. 그동안 남자는 경민의 집으로 들어와 키를 복사하고 다시 제자리에 둔 채 유유히 떠난다. 이형사는 병실을 찾아와 경민에게 가정용 펭귄 감시카메라를 집안에 설치하라고 말하고 경민 또한 펭귄카메라를 집안에 설치한다. 경민이 편의점에서 우유 한팩을 사고 계산하는 순간 오피스텔 관리인이었던 "한동훈"(이기섭역)이 인사를 하며 안부를 묻는다. 경민이 계산을 끝내고 남자가 계산할 때 금액이 3200원이었다. 그에겐 지난번 추적하던 남자의 시계와 동일한 것을 착용하고 있다. 겁에 질린 경민이 집으로 도망쳐 문을 잠근다. 그때 이형사가 전화를 걸어와 DNA가 달라 김기정이 다시 석방되었으니 조심하라는 연락이었다. 경민이 전화를 끊은 후 침대에 앉아 펭귄카메라를 돌려 보는 순간 영상에 한동훈이 집안으로 들어와 침대밑에 숨는 모습이 담겨져 있다. 경민이 조심스럽게 현관문으로 도주하지만 남자가 나와 경민을 넘어 뜨린다.

그 시간, 경찰은 김기정이 사라진후 한동훈이 사직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수사를 시작한다. 한동훈은 경민에게 편의점에서 자신을 모르는체 하였다고 화를 낸다. 남자는 문을 가르키며 도망쳐도 상관없으나 대신에 잡히면 용서하지 않겠다고 협박한

다. 경민은 침대옆 주사기로 남자를 공격가고 도주하려 하지만 건물은 사방으로 막혀 있다. 이형사는 한동훈이 오피스텔 관리소에서 근무하기 전 양평 관광호텔에서 근무한 이력을 찾아 양평으로 향한다. 한동훈은 경민이 숨어있는 101호 키를 가져와 문을 열려고 하자 창문 깨지는 소리가 들린다. 이형사가 건물내부로 들어와 경민을 찾고 있다. 경민은 이형사의 목소리를 확인하고 구조를 요청한다. 그때 뒤편에 있던 한동훈이 나타나 이형사와 격투를 벌인다.

경민이 밖으로 나와 주위를 살펴보지만 이형사가 보이지 않는다. 호텔로비에서 한동훈과 이형사가 격투 끝에 이형사가 쓰러진다. 한동훈이 일어나자 경민이 카페트를 당겨서 남자를 넘어 뜨린다. 경민이 총을 들어 방아쇠를 당기지만 총알이 없다. 경민과 한동훈이 서로 격투를 하게 되고 벽면 책장이 무너지면서 한동훈의 손이 못에 박힌다. 경민은 권총 손잡이로 남자를 가격하고 남자는 손을 억지로 빼내어 경민을 죽이려 할 때, 남자가 튀어오른 못에 머리를 찔려 죽게된다. 사건은 종결되고 경민은 정당방위로 석방이 된다. 경민은 또다시 이사를 가고 침대맡과 주변을 확인한 후에야 안심을 한다.

영화는 끝이 났다. 그리스도인은 이 영화에서 불신의 도어락을 발견한다. 사람들은 서로 의심하고 믿지 못하며 이제 모든 이웃은 사촌과 같은 이웃이 아니라 어쩌면 가해자가 될 수 있는 위험성의 존재가 되고 있다. 도어락이 내부자들에게는 신뢰를 주는 것이지만 이제 그마저도 의심해 볼 여지를 남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은 신뢰를 잃지 말아야 한다. 불신으로 신뢰를 담보하지 못하고 불신으로 신앙을 회복하지도 못한다. 세상의 모든 정황들이 불신을 향한다 해도 그리스도인은 끝까지 신뢰와 신앙을 이어가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

31. “국가부도의 날”Default

한국영화, 장르:드라마, 개봉:2018.11.28.

감독:최국희, 제작:영화사집, 주연:김혜수,유아인,허준호,조우진,뱅상카셀,
관객:3,748,511명(2019.01.01.현재)

1995년, GDP(국내총생산) 9.6% 성장,

1996년, 실업률 2%에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 그리고

1997년 1월23일, 재계서열 14위 한보그룹 주력기업 한보철강 부도.

1997년 11월5일, 미국 월스트리트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한국을 떠날 것을 권고하는 메일을 발송한다.

1997년11월15일, 외환보유고 158억달러로 경제성장율은 7%로 상향조정되었다. 한국은행 통화정책팀장 “한시현”(김혜수역)은 한국은행으로 출근한다. “갑수”(허준호역)가 공장으로 출근해 그릇을 제조하고 있다. 갑수는 “영범”(전배수역)과 점심을 먹다가 미도파백화점의 납품요청에 기뻐하고 있다.

고려종합금융의 “윤정학”(유아인역) 과장은 신입사원과 함께 연수를 떠난다. 신입사원들이 버스안에서 다른 회사는 타회사 면접을 못보도록 연수수당도 준다는 말을 하자 윤과장이 가방에서 돈봉투를 꺼내어 신입사원들에게 나누어 준다. 윤과장은 버스 앞좌석에서 미국 투자자 존슨에게 투자철수 문제로 통화를 하던중 여성시대 라디오 방송을 듣는다. 라디오를 타고 들려오는 사연은 며칠동안 손님이 없고, 월급도 제대로 못받고, 거래처의 부도로 사업이 너무나 어렵다는 내용이었다.

한국은행 “총재”(권해효역)는 한시현의 보고서를 읽다가 한팀장을 호출한다. 총재는 한팀장에게 위기보고서가 늦은 이유를 묻자 이미 6차례에 걸쳐 올린 것이라고 답한다. 한팀장은 경제수석과 실무담당자 긴급소집을 건의하고 팀원들에게 보고서를 최신화 할 것을 지시한다. 한국은행 총재와 함께 “경제수석”(엄효섭역)을 만나는 자리에서 경제수석은 때늦은 보고에 짜증을 낸다. 한팀장은 재정국 “차관”(조우진역)과 “금융실장”(김형묵역)을 불러 함께 회의를 하고자 하는데 재정국 차관은 한가하게 골프연습을 하고 있다. 한팀장이 동남아위기 이후 달러가 유출하고 한보철강 부도 이후 외국 투자자들이 투자 철수를 서두르고 있다고 보고한다. 특히 환율 800원대 유지를 위해 환율방어비용으로 막대한 달러가 소요되고 있다. 채권과 계약에 관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만기연장을 의논하는 롤 오버(Roll-Over)비율이 저하되어 값아야 할 자금이 158억달러에 달한다고 보고한다. 한팀장은 외환보유고가 90억달러 미만이면 수출과 수입에 관한 정부보증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도달한다고 말한다. 국가부도 1주일전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한팀장이 보고한다. 비서실장이

대통령 보고를 하지만 “YS”(이호재역) 대통령은 달리 부족은 되사들여서 채워라는 지시를 하고 한팀장은 사는 속도에 비해 유출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말함으로써 실효성이 없음을 지적한다.

윤정학 과장은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동료들에게 난파선에서 먼저 탈출하는 사람이 생존율이 높다고 말한다. 국가 파산을 경고하는 윤과장을 보며 부장은 음모론자라고 일축하며 사직서를 수리한다. 위기속에서 기회를 찾는 윤과장은 개인 사무실을 창업하고 투자자들에게 여신으로 말미암아 국가부도 1주일전이라고 경고하며 역 투자를 제안한다.

그릇제조사장인 갑수는 “이부장”(김민상역)을 만나 미도파 백화점 납품계약을 체결하려 하지만 이부장이 어음결재를 원하여 망설이고 있다. 그러나 갑수는 어음을 받고 자재 거래업체 대금결재에 대한 고민을 한다.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한 갑수는 결국 납품을 결정하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다. 미도파 백화점 납품을 결정한 갑수는 아내 “희원”(엄혜란역)에게 납품대금 5억 소식을 전하며 직장생활을 그만 둘 것을 제안한다. 윤정학은 투자자들에게 은행이 아닌 종합금융사에서 어음으로 대출받고 어음은 다시 중소기업으로 흘러가는 부실구조의 여신으로 폭탄 폭발이 임박했음을 말한다. “노신사”(송영창역)가 정부가 대책을 내놓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고 되묻지만 정부도 답은 없다.

경제수석, 한국은행 총재, 재정국 차관, “금융실장”(김형묵역), 통화정책팀장이 위기 대책 사무실에서 회의를 하면서 한팀장이 금융위기를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말하지만 재정국 차관은 시장경제가 무너지면 약도 없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한다. 특히 정무적 판단을 고려한 재정국 차관은 야당후보들에게 시비거리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비밀유지를 고려하고 있고, 경제수석은 우왕좌왕을 거듭한다. 경제수석마저 비공개를 결정하자 한팀장은 건전한 중소기업이라도 살리려면 속히 알려져 대비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역시 거절 당한다.

윤과장의 투자사무실에서도 모든 투자자들이 떠나고, 돌아온 노신사는 국가 위기관리능력이 없다는 말에 투자를 결정한다. 그후 “오렌지”(류덕환역)가 들어와 무능과 무지에 투자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윤정학은 24세 초년생 오렌지에게 돌아가라고 말하다가 통장잔고 10억 얘기를 듣고 자리를 배정한다.

1997년 11월18일, 외환보유고 108억 달러로 감소, 한팀장은 미국 증권가에서 악성 루머가 들린다는 보고를 듣고 VIP를 움직일 증거를 찾기 위해 은행으로 간다. 재정국 차관은 금융실장과 함께 동문인 “남자”(김홍파역)를 소개한다. 그후 일성그룹 회장의 막내아들 “이동현”(동하역)과 인사를 나누며 차관은 이동현에게 며칠후 국가부

도 상황이 올 것을 귀뜸해 준다. 통화 정책팀은 은행에 들어가 긴급점검을 시작한다. 제일은행이 한보철강에 1조8천억원을 대출해 주는 바람에 보유금액은 8천억에 지나지 않았다. 한보철강 본사 소재지가 아파트 단지안에 있는 이유를 묻자 유명한 철학관이 터가 좋다는 말을 듣고 고집한 것이라고 전한다. 한팀장이 한보철강이 받은 대출금을 묻자 제일은행 임원들은 여자라는 이유로 무시한다. 화가 난 한팀장은 사태의 심각성을 알지 못하는 시중은행들 때문에 국가부도가 도래한다고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다.

윤정학은 투자자의 돈으로 달려부터 매입한다. 현재 환율이 800원이지만 2000원까지 올라갈 것을 예측하고 있다. 환율상승과 함께 주식이 급락하면 투자하는 풋옵션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한다. 담당자가 이러한 조건은 국가가 망해야 가능하다고 아연실색하자 윤정학은 그대로 해 달라고 요구한다.

1997년 11월19일, 외환보유고 80억달러로 다시 감소, 한보그룹의 부실채권 5조원으로 주가는 폭락하고, 환율은 급등, 기업 어음금리마저 폭동하는 대신 주가는 최대치로 폭락한다. 대책회의실로 상황을 문의하는 전화가 폭주하고 재정국 차관은 수습중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반복할 뿐이다. 같은 시간, 그릇 납품을 시작한 갑수가 TV를 통해 미도파 백화점이 부도위기라는 소식을 듣고 이부장을 만나러 가지만 이부장 사무실앞에는 많은 인파들로 아수라장이다. 후문으로 도망치는 이부장을 붙들어서 사정을 듣지만 대책은 전혀 없다. 결국 미도파백화점은 부도처리 되고 법정관리 신청을 한다.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이 특별면담을 요청하고 한팀장이 대책회의실로 돌아오는 길에 한강다리위에서 투신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충격을 받는다. 순식간에 해태제과, 기아그룹이 부도처리되고 법정관리에 들어간다. 종합금융회사도 순차적으로 부도되고 하루만에 200여개사가 부도신청을 한다.

윤정학은 환율상승으로 부자의 반열에 올랐다고 좋아하는 오렌지의 얼굴을 때리면서 지금 달려와 주식을 매입할 때가 아니라고 지적한다. 윤정학은 오렌지에게 이제부터는 자신에게 존대어를 사용하라고 말하고 투자금을 더 가져오라고 지시한다.

재정국 차관은 마지막 대안으로 IMF를 제안한다. 한팀장은 경제주권을 탈취당한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한다. 재정국 차관은 IMF외에 대안을 물어본다. 한팀장은 미국과 일본의 국책은행으로부터 100억달러를 차관하고, ABS발행해서 만기채권을 갚자고 역제안한다. 그러나 차관은 국가 부채가 1000억달러인데 100억달러씩 차관하고 ABS로 해결 가능한지 의문을 품는다. IMF구제금융신청도 적기를 놓치면 아무것도 안된다고 강한 우려를 표시한다. 금융실장이 재정국 차관에게 IMF는 과한 조치라고 건의하지만 차관은 금융실장에게 IMF 총재의 입국요청 서한을 보내라고 종용한다. 그때 회의실로 복귀한 경제수석이 선진국 국책은행으로부터 긴급자금을 수

혈받고 ABS발행 검토를 제안한다.

한편, 갑수는 영범과 술을 마시며 거래처에 주어야 할 돈 걱정을 하고 있지만 대안이 없다. 반대로 윤정학은 부동산에서 아파트 매물을 확인중이다. 공인중개사는 중소형아파트 매물이 폭주하고 있음을 전한다. 윤정학은 시세가 10~15%이상 더 하락하면 모두 매입하겠다고 약속한다. 윤정학은 정부가 IMF구제금융신청으로 갈 것이라고 예측하고 노신사가 IMF여부를 묻는다. 윤정학은 반드시 IMF로 갈 것이라고 확언한다. 만약에 가지 않으면 윤정학의 프로젝트는 산산조각이 난다. 윤정학은 국가가 어떤 식으로든 재벌과 대기업중심으로 살리려 할 것이고 대기업은 그와 함께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한다. 모든 책임을 해외여행과 과소비라는 국민에게 돌리게 될 것이라는 윤정학의 말대로 뉴스에서 똑같은 앵무새 소리가 들려온다.

1997년 11월20일, 외환보유고 51억달러로 급 추락, 경제수석이 다른 전문가(김홍파 역)로 대체 투입되었다. "이대환"(조한철 역)은 IMF로 가기 위해 경제수석을 교체한 것이냐고 차관에게 묻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사이 경제수석이 입장한다. 경제수석 교체와 함께 대책회의팀은 IMF협상팀으로 전환되었고 IMF구제금융 신청이 임박한다. 한국은행 총재가 한팀장에게 "IMF총재"(뱅상카셀 역)가 언제 입국하는지 물어보자 이미 입국했다고 전한다. 모든 협상은 비공개로 원칙으로 하며 모든 때가 되었을 때 발표하기로 합의한다. 노신사는 IMF로 가지 않을 것이라는 뉴스를 보고 윤정학에게 전화를 걸어 소란을 피우지만 윤정학은 조금만 기다리면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한다.

갑수는 부동산중개소를 찾아 1억5천에 구입한 아파트를 매물로 내 놓지만 매물이 많아서 쉽지 않음을 전한다. 갑수는 공장가동을 중단한 채 사무실에 멍하니 앉아 있다. 직원들은 아직 월급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아우성을 친다. 갑수는 곧 입금될 것이라고 안심시키지만 답은 전혀 없다. 거래처 "정사장"(정규수 역)이 음료수를 들고 찾아와 갑수와 영범을 위로하지만 이미 의욕상실이다.

1997년 11월20일, 1차 협상단 비공식 회의, 한팀장은 협상장인 호텔로 향한다. IMF 총재는 한국경제를 심각한 수준으로 보며 대선후보 1,2,3의 각서를 받아오라고 제안하고 경제수석은 이에 응한다. 다음날인 11월21일, 경제수석은 IMF구제금융 200억 달러 요청을 공식 발표한다.

1997년 11월22일, 2차 협상단 비공식 회의, IMF총재는 A에서 F까지의 조건을 제시하면서 선결조건으로 11개 종합금융사의 부도처리를 요구한다. 경제수석은 즉시 종금사 영업정지를 지시한다. IMF총재는 구제금융을 받은 후 금리를 30%까지 인상할

것을 요구한다. 외국인 투자제한을 7%에서 50%까지 개방하고 인수합병할 수 없는 법안은 98년 6월까지 개정할 것을 추가로 요구한다. 당시 한국의 신용등급은 이미 B+로 강등되어 휴지조각 직전에 이르렀고 협상은 급격히 불리해진 상황이었다.

재정국 차관은 경제수석에게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를 살리는 것은 이미 불가능하다고 전한다. 종합금융회사 발행 어음에 관한 책임을 면책하는 것으로 일괄 부도 처리한다. 그때 일성그룹 회장 이동현이 방으로 들어온다. 한팀장은 협상장에 남아 서류를 검토하며 미국 재무부 차관 마틴을 상기한다.

1997년 11월22일, 3차 협상단 비공식 회의, IMF는 금융기관 조정, 기업지배구조 개혁, 노동시장 유연화 등의 추가 조건을 제시한다. 한팀장은 노동시장 유연화는 해고 조건을 쉽게 하는 것인가 하고 되물어 본다. 또한 미국 재무부 차관과 IMF직원들이 무슨 이유로 같은 층에 위치하고 있는가 하는 의구심을 드러낸다. IMF의 배후에 미국정부가 있음을 간접적으로 전한 것이었다. 그러자 IMF총재는 협상을 위태롭게 하는 실무자를 테이블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구한다.

갑수는 영범의 구속소식을 듣고 찾아 간다. 영범은 환율상승으로 자재가격이 두배로 급상승했다고 하소연한다. 영범은 갑수에게 이부장이 준 어음을 가지고 있는지 물어본다. 갑수는 이부장이 발행한 상호유통은 이미 폐업해서 어음은 휴지조각이 되었다고 망연자실한다. 갑수의 공장도 압류되고 거래처 정사장에게 전화를 해 위로의 말을 듣지만 대책이 없다. 그러나 직원들의 급여를 주기 위해 그들을 보내 줄 것을 요청한다. 한편, 윤정학이 오렌지와 함께 새로 구입한 아파트를 둘러보다가 한 쪽 방에서 자살한 사람을 발견하고 놀라지만 경찰에 신고를 할 뿐 의연한 모습을 한다.

한팀장은 처음 한국은행 입사때를 상기한다. 건전한 통화경제의 수립과 집행,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하겠다고 다짐하면서 IMF협상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한팀장은 차라리 모라토리엄(Moratorium)을 선언할 것을 말한다. 모라토리엄은 국가단위 채무의 지불유예로서 지불을 거절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경제공황과 전쟁 등의 긴급한 상황으로 채무를 지불할 여력이 되지 않을 때 공식적으로 지불유예를 선언하는 것이다. 통화정책팀은 국가부도후 한국경제예측보고서를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한팀장은 기자들에게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부자만 더 부유해 지는 IMF세상으로 가서는 않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IMF는 정리하고, 금리인상, 노동시장 개방으로 국가는 초토화 될 것이라고 염려를 털어 놓았다.

1997년 12월3일, 외환보유고 20억달러, 이대환이 시중에 나온 모든 신문을 구입해 찾아 보지만 기사는 없었다. 결국 IMF는 타결되었고 550억달러의 차관이 들어온다.

갑수의 아내 희원의 회사에도 구조조정의 바람이 불어오고 명예퇴직과 비정규직 전환이 예고되었다. 갑수는 거래처에서 받은 어음문제를 극복하지 못한채 자살을 한 정사장의 장례식을 찾는다. 귀가한 갑수가 스스로의 무거운 짐을 내려 놓으려 자살을 생각하지만 남은 처자식을 생각하며 오열을 할 뿐이다. 윤정학은 노신사와 오렌지와 함께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며 흥에 겨워 한다. 뒷풀이가 끝난 윤정학이 거리를 걸으며 답답한 웃음을 짓는다. 한시현 팀장은 협상타결소식을 듣고 화장실에 앉아 생각에 젖어 있다. 화장실 밖 이대환은 태국과 인도네시아 사례를 이야기하며 IMF의 뼈아픈 전철을 되새긴다. 사무실로 돌아온 한팀장은 "IMF협상기록 보고서"를 남기며 사직서를 제출한다. 갑수는 한국은행을 찾아와 친동생인 한시현 팀장을 만난다. 갑수는 은행 지인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애원한다. 한시현은 오빠가 돌아 간 후 차 안에서 못내 슬픔을 이기지 못한다. 1997년 12월3일, IMF 협정서에 최종 서명이 되었다. 그후 130만명의 실업자와 42%의 자살율이 증가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1월에서 4월까지 금모으기 운동을 전개하였고 모금액은 22억달러에 달하였다.

IMF 그후 20년이 지난 어느날, 윤정학은 오렌지와 함께 JH홀딩스를 운영하며 투자강연회를 개최하고 있다. 재정국 차관은 베스트 투자회사를 운영하고, 갑수의 아들이 그 회사에 면접을 보러 간다. 갑수의 그릇공장에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있고 한시현은 금융자본감시센터의 대표로 경제분석을 하고 있다. "이아람"(한지민역)이 한시현이 기록한 IMF보고서를 읽고 한시현 대표를 찾는다. 다시 폭탄이 도는 한국경제, 한시현은 위기는 반복되는 것이라면서 항상 깨어 경제의 흐름을 살펴야 한다고 권면을 한다.

영화는 끝이 났다. 민주화의 첫출발 YS는 훌륭한 나라를 건설하고 싶어 했지만 IMF라는 원치않는 비극을 초래하였다. 그리스도인은 국가부도의 날에서 무엇을 고민해야 했을까? 세상 가운데 황금알을 잡으려고 애쓰는 보통 사람들의 그림자에는 항상 위기가 존재한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지 않을 때 빛나는 황금은 언제나 우리를 유혹한다. 여전히 경제위기를 말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다. 그리스도인은 진정한 회복과 평화를 생각하며 영생의 천국을 소망하는 것이 가장 위대한 투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32. “아쿠아맨”AQUAMAN

미국,오스트레일리아영화, 장르:액션,모험,SF, 개봉:2018.12.19.

감독:제임스 완(James Wan), 제작:워너브러더스

주연:제이슨모모아(Jason Momoa),앰버허드(Amber Heard),니콜키드먼(Nicole Kidman), 패트릭 윌슨(Patrick Wilson),윌렘다포(Willem Dafoe).돌프룬드그렌(Dolph Lundgren),

관객:3,981,119명(2019.01.02.현재)

태풍이 몰아치는 등대를 지키던 “토마스 커리”(테무에라 모리슨역)는 해변에 쓰러져 있던 “아틀라나 여왕”(니콜키드먼역)을 발견하고 집으로 데려간다. TV소리에 놀란 아틀라나 여왕은 창을 던져 TV를 깨뜨리고 다시 쓰러진다. 깊은 잠에서 깨어난 아틀라나 여왕은 토마스가 자신의 상처를 치료한 것을 알고 고마워 한다. 토마스는 여왕에게 차를 건네며 안정감을 갖게 한다. 아틀라나는 아틀란티스의 여왕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토마스는 등대지기라고 소개하며 조금씩 가까워 진다. 아틀라나는 정략결혼을 피해 도주한 것이라고 말한다. 아틀라나와 토마스는 사랑에 빠졌고 두사람 사이에 “아서”라는 아들이 태어난다. 수년이 흐른 후, 아틀라나는 아서에게 “아틀란” 왕(그레이엄 맥티비쉬역)이 삼지창으로 아틀란티스를 구한 극적인 이야기를 들려준다. 때마침 아틀란티스 왕이 보낸 친위대가 아틀라나 여왕을 데려가기 위해 토마스의 집을 공격한다. 아틀라나는 삼지창으로 군인들을 공격한다. 아틀라나는 왕이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자신이 돌아가야 토마스와 아서가 살 수 있다고 전한다. 모든 상황이 안전해 지면 다시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남긴 채 바다로 향한다.

보스턴수족관을 견학중인 아서가 다른 아이들 틈에서 물고기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그때 키가 큰 아이들이 아서를 밀치며 조롱을 하자 수족관 상어가 수족관 유리를 들이받으며 공격성을 드러낸다. 다른 아이들이 모두 놀라서 뒤로 몸을 피하였지만 아서는 상어를 진정시키며 대화를 이어 간다.

러시아 잠수함이 깊은 심해에서 잠항중이다. “제시 케인”(마이클 비치역)의 해적선단이 스텔스 잠수함을 이용해 러시아 잠수함을 공격한다. 제시 케인은 조부가 사용하던 칼 “만타”를 아들인 “스케빈저”에게 건낸다. 그때 레이더에 무엇인가 다가와 공격을 하는데 그것은 잠수함이 아니라 사람이었다. “아서 커리”(제이슨 모모아역)는 수중의 잠수함을 수면위로 끌어 올린 후 잠수함 내부로 들어가 해적들을 제압하고 어뢰실에 숨어 있던 승조원들을 밖으로 탈출시킨다. 스케빈저는 아쿠아맨을 기다렸다고 말하며 공격하지만 칼로 찔러도 소용이 없다. 제시 케인이 유탄을 쏘며 나타나자 아쿠아맨(아서 커리)이 뒤로 밀려나며 쓰러진다. 아쿠아맨이 정신을 차리고 다

시 일어나자 제시 케인이 다시 유탄을 날리려 하지만 아쿠아맨이 파이프를 선방을 날려 이번엔 제시 케인을 날려 버린다. 아쿠아맨이 파이프를 뽑고 잠수함을 탈출하자 제시 케인이 다시 유탄을 날린다. 아서가 먼저 피하자 유탄이 폭발하며 제시 케인이 반대로 어뢰에 깔린다.

스케빈저는 아서에게 아버지를 구해 달라고 요청하지만 아서는 잠수함에서 무고한 사람들을 죽였다면서 바다에 자비를 구하라는 말을 남긴채 돌아선다. 제시 케인은 아들에게 도주하라고 하면서 수류탄을 던진다. 스케빈저는 복수를 생각하며 스텔스 잠수함으로 탈출하고 잠수함은 깊은 바다속으로 침몰해 버린다. 아쿠아맨은 구명보트에 생명을 의존한 사람들을 이끌고 해안으로 탈출한다. 토마스 커리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바다에 나와 아내를 기다리고 있다. 아서는 아버지에게로 다가가 포옹을 한다. 술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눈다. TV에는 스텔스 잠수함을 탈취한 해적들이 러시아 잠수함을 공격한 뉴스가 나오고 이를 본 토마스가 아서에게 언젠가 두 개의 세계를 통합할 것이라고 말한다. 아서는 놈들이 어머니를 죽였을 것이라고 말하며 비장한 결심을 한다.

대서양 심해속, 아틀란티스의 "옴"(페트릭 윌슨역) 왕과 제벨 왕국의 "네레우스"(돌프 룬드그렌역) 왕이 약속장소에 함께 있다. 옴 왕은 네레우스 왕에게 7개 바다왕국이 하나되었던 고대 아틀란티스왕국 이야기를 하며 이제 아틀란티스가 일어나 육지와 전쟁을 할 때라고 말한다. 네레우스 왕은 아틀란티스, 제벨, 브라인, 피셔맨 등 4개 왕국의 충성을 받으려는 것인가 되묻는다. 옴 왕은 오션 마스터가 되었을 때 최강 군대를 가질수 있다고 말하고 네레우스 왕은 육지에 아틀란티스 왕족이 아직 살아 있다는 것을 전한다. 대화도중 잠수함이 어뢰를 발사하여 폭발하면서 바위가 무너지고 네레우스 왕이 바위밑에 깔린다. 옴 왕이 네레우스를 구하고 잠수함을 파괴시켜 침몰시켜 버린다. 옴 왕은 네레우스 왕에게 육지와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다고 말한다.

아서가 아버지 토마스와 함께 귀가 중이다. 그 순간 "메라"(엠버 허드역)가 아서를 찾았다고 전하면서 아틀란티스의 옴 왕이 전쟁을 준비중이라고 말한다. 아서에게 스테픈 울프를 이겼고, 아틀라나 여왕의 첫째 아들인 아서가 왕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메라는 "누이디스 벌코"(윌렘 대포역)가 아서를 믿는다고 전하고 사라진 아틀란 왕의 삼지창에 대한 단서를 이야기 한다. 아서는 자신에 대한 모든 권리는 아틀라나 여왕의 죽음으로 종결되었다고 전하며 귀가를 서두른다.

북해지역, 스케빈저는 스텔스 잠수함위에 앉아 누군가를 기다린다. 잠시후 바다 아래에서 불빛이 오르고 옴 왕의 친위대가 수면위로 올라온다. 옴 왕의 홀로그램이 나타나 제 역할을 충분히 하였다고 고대 금화를 건넨다. 스케빈저는 금화 대신에

아쿠아맨을 원한다고 말한다.

해변가 도로를 달리던 중 갑자기 해일이 덮치며 아서의 자동차를 날려 버린다. 아서는 아버지 토마스를 구하기 위해 자동차를 찾자 메라가 나타나 에어포켓을 만들어 자동차를 구하고 아서는 아버지를 차에서 꺼낸다. 메라는 토마스의 폐속에서 물을 모두 끌어내고 숨을 쉬도록 해 준다. 메라는 제벨왕국의 공주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메라라고 부를 것을 말한다. 메라는 해일이 분명 옴이 육지에 포고하는 경고장이라고 전한다. 해안가 마을은 해일로 인해 쓸대밭이 되고 전함들과 잠수함이 밀려와 아수라장이다. TV에서는 "스티븐 신"(랜든 파크역) 박사가 아틀란티스에서 일으킨 고의적 사고라고 말한다. 아서는 메라와 함께 아틀란티스로 가는 절벽위에서 있다. 아서는 이곳에서 벌코에게 수영을 배웠다. 아서는 전쟁을 막은 후 아틀란티스를 떠날 것이라고 말하고 바다로 뛰어 내린다. 메라는 숨겨둔 배가 있다고 전하며 배가 있어야 아틀란티스로 갈 수 있다고 말한다.

아서의 어린시절, 벌코는 아서에게 창 공격법을 가르쳤다. 벌코는 삼지창을 다루지 못하면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말한다. 아서는 삼지창 훈련을 하며 어머니를 그리워 한다. 벌코는 아틀라나 여왕은 정략결혼으로 옴을 출산하였지만, 아서를 낳은 것이 알려지면서 트렌치 괴물에게 제물로 희생되었다고 말한다.

아틀란티스 옴 왕은 메라를 만나 팔찌를 선물한다. 메라는 옴 왕에게 아틀라나 여왕은 두 아들이 싸우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옴은 벌코에게 약혼녀인 메라를 로열박스로 데려 갈 것을 지시한다. 옴이 결투장으로 가기전 아서에게 고대괴물 이야기를 한다. 아서는 동생을 만날 기약을 했었는데 실망했다고 말한다. 옴은 형을 죽이기 싫으니 지금이라도 돌아갈 것을 요구한다. 옴은 불의 고리 결투장으로 들어가 도전자를 고대방식으로 처리하겠다고 말한다.

메라는 아버지 네레우스 왕에게 옴 왕에게 항복한 이유를 묻는다. 네레우스 왕은 옴 왕이 육지인들을 공격하는 것을 직접 목격했고, 육지인들이 깨달을 방법은 오직 전쟁뿐임을 전한다. 메라는 네레우스 왕이 꼭 전쟁을 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직감한다.

결투가 시작되었다. 옴은 아서가 사용하는 아틀라나의 삼지창을 보고 강하지만 약점이 있다고 말하며 아버지의 창이 더욱 강한 것이라고 말한다. 벌코는 두사람의 결투를 보며 분노하고 메라는 결투중에 밖으로 나가 버린다. 아서가 밀리는 형국에서 아틀라나의 삼지창으로 방어를 하던중 옴의 공격으로 창이 부러져 버린다. 옴이 아서를 공격하자 에어포켓이 날아와 옴은 결투장 중앙으로 떨어진다. 때마침 메라가 배를 타고 나타나 아서를 태우고 결투장을 나간다. 메라의 배를 친위대가 추적

하고 메라는 하이드로 캐논의 절벽을 넘어가기 위해 이동한다. 메라는 옴이 자신들이 사망하였다고 믿게 하기 위해 용암에 배를 추락시키고 도주한다. 아서는 고래와 대화하며 고래의 입속에 몸을 숨긴다. 아서는 고래에게 안전하다는 말을 듣고 메라는 사하라로 불리는 모래바다로 갈 것을 제안한다.

아서와 메라가 비행기로 서사하라로 이동한다. 메라에게는 모든 것이 처음이다. 메라는 아틀란티스는 아름답지만 배신자에게 용서라는 것은 없다고 말한다. 메라는 왕국의 결속을 위해 정략결혼을 계획했지만 더 이상 돌아갈 수도 없게 되었다고 말한다. 탐지기의 위치를 관찰한 메라가 비행기에서 먼저 뛰어 내리고 아서도 함께 뛰어 내렸다.

옴 왕은 메라 공주가 아직 살아있음을 확인한다. 네레우스 왕은 메라를 체포하면 제벨왕국으로 즉시 데려올 것을 명령한다. 옴은 메라공주를 찾기 위해 바로 출발하려 하지만 벌코가 피셔맨 왕국지역으로 가려면 동맹관계를 우선 맺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옴의 친위대가 스캐빈저를 찾아간다. 옴 왕의 홀로그램이 아쿠아맨을 죽이기 위해 아틀란티스 무기를 전해 준다. 옴은 스캐빈저에게 친위대를 지휘해 아서와 메라를 모두 죽이라고 명한다. 친위대는 물을 플라스마로 교체하는 무기를 준다. 스캐빈저는 아틀란티스 무기를 자신의 몸에 맞게 개조하고 테스트를 하지만 헬멧이 플라스마를 이기지 못하고 산산조각나 버린다.

메라는 고대 아틀란티스 왕국지역이 사막화 하면서 멸망하였다고 말한다. 아서는 메라가 육지에 대한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편견을 버릴 것을 요구한다. 아서는 탐색기를 보면서 탐색기 때문에 비행기에서 내리고 사막에 갇힌 것이라고 말한다. 그때 아서가 지하로 빨려 들어가 사라지고 메라도 뒤를 이어 뛰어 내린다. 아서는 절벽으로 추락하는 메라를 구조한다. 메라는 여기가 전설의 삼지창이 제작된 곳이라는 벌코의 말은 모두 진실이었다고 감탄한다. 메라가 1대왕의 메시지를 틀에 꽂지만 작동을 하지 않는다. 메라는 물이 없어서 그런 것이라고 말하고 아서가 물을 모아 장비위에 떨어뜨리자 장비가 작동하며 아틀란 왕의 모습이 나타난다. 아틀란 왕은 세상끝에서 진정한 왕의 손에서만 병속의 메시지가 보일 것이라고 말한다. 메라는 옴이 메시지를 보면 앓된다고 즉시 깨뜨려 버린다. 바닥에서 문이 열리고 그 속에 병이 나타난다. 아서가 병속에서 지도를 꺼낸다. 아서와 메라는 이탈리아 시칠리아에 도착한다.

옴은 피셔맨 왕국 "이코우"(디몬 하운수역) 왕을 만나 전쟁을 이야기 하지만 늙은 겁쟁이로 치부하며 죽여 버린다. 옴은 왕이 죽었으니 공주가 통치해야 한다고 전하며 공주에게 즉시 군대소집을 명한다. 아서와 메라는 세상 끝에 도착하고 아틀란 왕의 메시지를 상기한다. 아서는 지도가 있는 병으로 망원경처럼 바라보고 병속에

서 표시지역과 동상을 본다. 동상은 로물로스가 로마의 초대왕이라고 말하면서 그의 손에 병을 올려 놓고 위치를 확인한다. 그 순간 스캐빈저가 친위대를 이끌고 아서를 공격한다. 스캐빈저는 자신을 "블랙만타"라고 소개하고 아서는 해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한다. 블랙만타의 공격으로 건물은 파괴되고 아서는 광장의 사람들을 구조한다. 블랙만타는 아서가 자신의 아버지를 죽게 했다는 이유로 맹공격을 퍼붓는다. 도주하던 메라가 와인을 발견하고 술로 공격하여 친위대를 모두 제거한다. 블랙만타도 하늘위로 도주하려 했지만 아서가 던진 쇠사슬을 맞고 절벽에 부딪힌 후 바다에 추락한다. 메라는 칼에 상처를 입은 아서를 발견하고 달려온다. 아서는 메라가 움에게서 받은 팔찌가 추적장치라면서 파괴해 버린다. 메라는 항구에 묶여있는 타인의 배를 이용해 트렌치 왕국으로 향한다. 아서는 여왕이 제물로 바쳐진 곳이라는 것을 알고 자신은 아무런 자격이 없된다고 말하지만 메라는 아서에게 육지와 바다를 이어주는 다리로서 자격이 있다고 말한다.

별코는 움에게 메라 공주의 추적장치가 꺼졌다고 보고한다. 움은 별코에게 전쟁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고 별코는 왕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말한다. 움은 별코가 자신을 배신한적이 있다고 말하고 감옥에 가둔다. 별코는 아서가 혼혈이지만 움보다는 위대한 왕이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트렌치 왕국에서 트렌치가 나타나 아서와 메라를 공격한다. 아서는 트렌치가 심해에 살아서 빛을 무서워 한다고 생각하고 조명탄으로 맞선다. 아서와 메라를 추적하던 트렌치가 조명탄에 두려워 하며 추적을 포기한다. 아서는 메라의 손을 잡고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지만 메라가 아서의 손을 놓치고 포탈안으로 빨려 들어간다. 대형 물고기가 메라를 삼키려 하자 누군가 나타나 메라를 구하고 수면위로 상승한다. 아서도 메라를 찾아 수면위로 올라온다. 메라를 구한 자는 누구일까? 그는 아틀라나 여왕이었다. 메라를 추적하던 아서도 어머니 아틀라나 여왕을 보고 매우 놀란다. 아틀라나 여왕은 제물로 바쳐 졌지만 우여곡절 끝에 생존하였고 이곳에서 20년간 살았다고 전한다. 아틀라나는 아서와 토마스를 살리기 위해 떠난 것이라고 말하며 미안하다고 눈물 짓는다. 아서는 토마스 아버지가 매일 바다로 나가서 어머니를 기다린다고 소식을 전한다. 아틀라나는 여기서 나가려면 아틀란 왕의 삼지창이 필요하지만 카라텐이 지키고 있다고 말하며 진정한 왕만이 카라텐을 움직일 수 있다고 말한다. 아틀란티스에는 왕이 필요하지만 지금은 그 이상의 영웅이 필요한 시대라고 말한다. 아서가 카라텐의 옆에 있는 삼지창을 발견한다. 카라텐은 아서에게 수많은 가짜왕이 있었지만 아서처럼 더러운 피를 가진 자는 없었다고 말한다. 아서는 카라텐에게 자신에게 어떤 자격이 있어서 온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카라텐은 아틀란 왕을 존경했다. 아서는 단지 세계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일 뿐이라고 전한다. 아서의 말을 들은 카라텐은 그동안 아틀란 왕의 삼지창을 뽑았던 자가 없었지만 아서에게 기회를 준다. 아서가

삼지창을 들자 삼지창이 위로 들려지고 아틀라나 여왕과 메라의 곁으로 돌아온다.

옴은 아틀란티스, 제벨왕국, 피서맨왕국 군대를 동원하여 브라인 왕국으로 향한다. 네레우스 왕은 브라인 왕을 복속시키면 자신도 복종할 것을 약속한다. 옴은 브라인 왕국군대와 전투를 벌이며 자신이 오션 마스터라고 의기양양해 한다. 그때, 지축이 흔들리면서 심해에 있던 카라텐이 아서와 함께 올라온다. 옴은 군대에게 집중공격을 명하지만 아서가 손을 뻗어 물고기들에게 명령하고 옴의 군대를 향하여 돌진해 간다. 메라는 이러한 전쟁은 피해가 너무나 크다고 생각하고 전쟁을 중지할 것을 요구한다. 메라는 아서에게 옴을 지상으로 유인해서 일대일로 결투하라고 요구하고 네레우스 왕을 만나 설득한다. 네레우스 왕은 아서가 혼혈이지만 삼지창을 가졌다면 그가 진정한 우리의 왕이라고 선언한다. 그후 메라는 감금되어 있는 별코를 구출하고 아서를 도와 줄 것을 요청하였지만 별코는 우리 모두가 함께 아서와 옴의 결투를 지켜 보아야 한다고 말한다. 결국 아서와 옴이 수면위로 올라가 전투를 하게 되고 모든 왕국들의 왕들도 수면위로 올라와 전투의 결과를 지켜 본다. 아서와 옴의 전투는 옴의 창이 깨지면서 아서의 승리가 주어졌다. 아서는 옴을 창으로 찌르려다 자신은 옴과 다르다는 것을 확신하듯 죽이지 않는다. 아틀라나 여왕이 배위로 올라와 더 이상의 희생을 멈추라고 말한다. 아틀라나 여왕은 아서가 자신을 구해 주었다고 말하면서 옴에게 육지와 바다는 두 개의 적이 아니라 하나의 세계라고 말한다. 별코는 아틀라나 여왕에게 인사를 하고 옴을 감옥에 가두라고 지시한다. 메라는 새로운 왕 아서를 소개하고 모든 사람들은 대 환호를 외친다.

토마스는 언제나처럼 바다를 보기 위해 부두로 나온다. 아틀라나 여왕이 부둣가에서서 토마스를 기다리고 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깊은 포옹을 한다. 아서는 아틀란티스의 여왕과 보통사람 등대지기의 어울리지 않는 만남이 세상을 구원하였다고 말하면서 영화는 끝이 난다.

2시간 23분의 아이맥스급 영화 아쿠아맨은 전설과 어드벤처와 SF가 결합된 신개념의 액션영화이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다소 생소하고 의아스러운 아쿠아맨에서 무엇을 고민해 볼 수 있을까? 사실 모든 세상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통치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기 때문이다. 누군가 위대한 왕이 나타났다면 그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을 뿐이다. 그러나 바다와 육지를 자유하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사람은 유한하고 그 외에 모든 세상은 더욱더 유한하다. 그러나 악과 결탁하거나 교류하지 않고 오직 진실을 위해서 전진하는 아쿠아맨의 정신 만큼은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임에는 틀림이 없다.

33. "출국"Unfinished

한국영화, 장르:드라마, 개봉:2018.11.14.

감독:노규엽, 각본:노규엽,김수진,정태진, 제작:DseeD디씨드

주연:이범수, 관객:81,880명(2019.01.02.현재)

영화 "출국"은 1986년 분단의 도시 독일 베를린에서 다른 목표를 추종하는 이들이 가족을 되찾기 위한 남자의 사투를 그린 실화를 배경으로 제작되었다. 1986년, 독일 베를린에 유학중인 경제학자 "오영민"(이범수역)은 가족을 위한 명분으로 복송을 선택한다. 오영민은 이것이 곧 자신의 과오임을 깨닫는다. 오영민은 관련하여 서독 연방정보국으로부터 스파이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다. 오영민은 서독교민 2명을 포섭하라는 지령을 받고 독일에 입국하였다고 말하지만 "취조팀장"(파스칼역)은 북한으로 간 이유를 묻고 오영민은 단순한 실수라고 답한다.

이틀전, 오영민과 가족은 덴마크 코펜하겐 공항으로 가기 위해 비행기를 타고 있다. 이들을 감시하는 "백경수"(정석원역)가 후미에서 지켜보고 있다. 오영민은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책을 찢어 주머니에 넣고 화장실로 가서 도와 달라는 글을 쓰지만 난기류로 인해 비행기가 흔들리면서 종이가 물에 젖어 버린다. 다시 급하게 화장지에 구조요청을 쓰고 주머니에 넣는다. 입국심사대에 서 있는 오영민 가족을 지켜보는 백경수를 의식하며 오영민은 아내 "신은숙"(박주미역)과 "오규원"(김보민역)이 통과한 후 여권사이에 "저는 북한 스파이입니다. 도와주세요"라는 종이를 제출한다. 담당직원이 메시지를 보고 보안요원을 호출한다. 그때 규원이 가지고 있던 장난감 비행기가 백경수 쪽으로 흘러가고 백경수가 비행기를 손에 잡는다. 신은숙은 딸 "오혜원"(이현경역)의 손을 놓고 규원에게 달려간다. 오영민이 혜원에게 가려 하자 보안요원이 그를 체포한다.

서독연방정보국에서는 오영민을 조사중에 있다. 서독정부에서 오영민에 대한 신원조사 결과를 확인하며 경제학자인 오영민이 민실험 활동으로 한국입국이 거부되어 서독에 망명하였다가 1년전 서독에서 사라진후 코펜하겐에 나타난 것이다. 오영민은 경제학자로서 북한에 입국하였지만 북한은 공작원 훈련을 교육하고 통일전선부 "최기철"(이종혁역) 과장의 지시를 받게 된다. 오영민의 정보를 취득한 미국 CIA독일지부 부국장 "샘"(로버트 마카역)은 북한망명 대상자로 핫한 인물로 평가하며 오영민의 이중간첩설을 일축하고 석방을 요구한다. 샘은 오영민이 가족을 찾기 위해 누군가를 접선할 것이라고 미행을 지시한다. 조사실을 나온 오영민이 딸 혜원을 만났으나 혜원은 아빠를 밀어내며 냉담한 반응을 보인다. 때마침 취조팀장에게 여자와 아이가 동베를린에 있다는 메모를 받고 오영민은 그 메모의 흔적을 뜯어 밖으로 간다. 오영민은 서독에서 알고 있던 안기부요원 "최무혁"(연우진역)에게 연락하고

최무혁은 갑자기 사라졌다 나타난 오영민에게 화를 낸다. 식자재 납품업을 하게 된 최무혁은 오영민과 혜원을 데리고 집으로 향한다. 최무혁의 집으로 온 오영민은 은숙과 규원이 독일에 체류중일 때 찾아야 한다고 말하며 정보국에서 가져온 메모지의 흔적을 따라 리히텐베르크라고 적힌 내용을 확인한다.

2년전, “강문환”(전무송역)은 오영민을 만나 타지에서 공부하며 박사학위까지 받았다고 대견해 한다. 강문환은 학문은 세상 어디에서나 환영한다고 말하면서 오영민을 유혹한다. 서독에서는 박사학위가 무용지물이지만 북에서는 대학교수직과 아파트, 벤츠 승용차를 무상으로 준다고 더 강한 유혹을 내민다. 이에 오영민은 한나라의 경제가 자신으로 인해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북송을 결정한다.

백경수는 은숙과 규원을 리히텐베르크의 납북공작책임자 “김참사”(박혁권역)에게 데리고 가지만 일처리 미숙으로 뺨을 맞는다. 백경수는 사건이 확대 되기 전에 최과장에게 보고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간다. 오영민은 평소 알고 있던 베를린 브레멘 대학의 교수를 찾아가 은숙과 규원의 소재를 추궁하지만 “이충근”(조승연역)을 소개할 뿐 다른 답을 듣지 못한다. 오영민은 혜원에게 엄마와 규원을 찾으려면 딸이 도와줘야 한다고 부탁한다. 오영민이 이충근의 집을 찾아가자 당황한 이충근은 한국으로 귀국한 것으로 알았다고 하며 도주를 하려 하지만 오영민이 재빠르게 그를 붙든다. 이충근은 리히텐베르크에 가족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면서 김참사가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동베를린에 갈 수 있는 여권을 건네준다. 최무혁의 집에서 혜원은 꿈에서 큰 돌이 굴러와 계속 달리는 악몽을 꾸다면서 아빠에게 앞으로는 절대로 자신의 손을 놓지 말라고 말한다. 오영민은 공항에서 있었던 일을 상기하며 딸을 위로 한다.

리히텐베르크의 김참사는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는 가운데 오영민이 원하는 것은 가족이라면서 스스로 찾아 오도록 만들 것을 말한다. 오영민은 동베를린으로 향하는 국경검문소를 무사히 통과하며 아내와 딸이 감금되어 있는 표적지로 향한다. 한 대의 자동차가 건물을 떠나는 것을 발견한 오영민은 딸에게 준 전화번호를 확인시킨 후 절대로 차에서 내려 들어오면 안된다고 약속을 받고 건물내부로 진입한다. 건물 안에서 오영민은 백경수의 사체를 발견하고 놀란다. 나갔던 자동차가 다시 건물로 돌아오고 차에서 내린 사람들이 건물내부로 들어가자 혜원이 차에서 내려 건물쪽으로 간다. 북한 요원들이 오영민을 발견하고 공격하고 오영민은 은숙과 규원의 이름을 부르며 요원들과 힘겨운 격투를 벌인다. 때마침 혜원마저 건물안으로 들어오고 북한요원이 혜원을 잡으려 가려하자 오영민이 바닥에서 칼을 집어 북한요원의 다리를 가격한다. 어디선가 오영민의 음성을 들은 은숙이 유리창을 깨고 애타게 소리를 지르지만 오영민에게는 들리지 않는다. 북한요원이 오영민을 기절시킨 후 혜원에게 다가가는 순간, 최무혁이 등장하여 북한요원을 암살하고 오영민과 혜원을 데리고

귀가를 서두른다.

평양 칠보산 연락소 최기철 과장은 김길중 참사에게 전화를 해 오영민이 서독에 갔는데 그후 보고가 없다면 다그친다. 김참사는 아직 한달 기한이 남아있고 오영민과 가족은 안가에서 잘 지내고 있다고 허위보고를 한다. 최기철 과장은 김길중을 미꾸라지에 비유하며 못마땅해 하고 있다.

CIA독일지부에서는 오영민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확인하며 어떤 사람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최무혁을 확인한 요원이 남한의 안기부요원이라면서 위치를 변경한다. 한편, 안기부 독일지부 "박무석"(남문철역) 과장은 최무혁에게 오영민과 혜원 보호에 신중을 기하라고 하면서 북한 요원을 동독에서 살해하면 피곤해 진다고 다그친다. 최무혁은 오영민이 가족을 찾도록 도와야 한다고 주장하고 정치적인 고려를 검토하는 박과장은 최무혁 자신의 안위와 기회만 생각하라고 주지한다.

최무혁의 집에서 기력을 회복한 오영민은 최무혁에게 어떻게 그곳에 오게 되었는지 궁금해 한다. 최무혁은 자신이 안기부 요원임을 밝히고 오영민이 민실협 활동기부터 감시해 왔다고 설명한다. 또한 베를린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동시 감시하는 체제라면서 위장 여권으로 동베를린까지 간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말한다. 최무혁은 남이든 북이든 어느쪽에서든지 오영민을 도와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오영민은 어떻게 하든지 아내와 딸을 찾고자 한다. 오영민이 혜원과 함께 최무혁의 집을 떠나려 하자 다른 곳은 더욱 위험할뿐 이곳에 계속 은둔하라고 요청한다. 오영민은 불안한 마음으로 담배를 꺼내고 그때 은숙이 하던 말을 잠시 떠올린다. 다음날 오영민은 이충근을 다시 만나고, 이충근은 김참사가 만남을 원한다는 쪽지를 건넨다. 북에서는 오영민이 탈출한 것을 아직 모르고 있다고 귀뜸한다. 김참사가 무슨 이유인지 평양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조심할 것을 전한다. 오영민은 김참사와 약속한 광장으로 나간다. 오영민은 가족의 상황을 물어보고 김참사는 광장카페와 분수대에서 사진을 찍고 있는 CIA요원과 광장호텔 3층에 있는 안기부요원과 대동하였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다. 김참사는 CIA독일지부 부국장까지 모두 보고 듣고 있다고 말한다. 모두가 오영민을 풀어놓고 어떻게 하는지 보는 것이라고 말한다. 김참사는 아내와 딸을 만나려면 서베를린 "이문호"(정승길) 교수를 포섭할 것을 지시한다. 김참사의 말대로 오영민을 중심으로 베를린 정보국들이 모두 함께 주시하고 있음을 발견한다. 오영민은 딸에게 엄마와 동생을 반드시 찾아 주겠다고 약속하며 찾으려면 어디로 가겠다고 귀속말을 한다.

오영민은 이문호 교수를 찾아가 김참사의 말대로 전한다. 이문호 교수는 오영민의 아내와 아이들이 잘 적응하는지 물어보았고 오영민은 거짓말로 너무나 잘 지낸다고

답한다. 이문호는 자신의 화학기술논문을 극찬하는 북측의 평가에 고무되어 있었다. 오영민은 이문호의 모습에서 자신의 과거를 떠올려 본다. 오영민은 전혀 다른 사회에서 적응하는 것이 말처럼 쉬운일이 아니라고 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고, 이문호 교수는 북송을 바로 결정한다. 이문호 교수를 만나고 나오는 길 딸 혜원이 보이지 않는다. 다행히 딸은 놀이터에서 다른 아이들과 즐겁게 놀고 있다. 오영민이 북의 지령을 받고 평양을 떠나기전 자신과 남의 인생을 망치는 일이라고 거부한 은숙의 말을 되새기며 진정 가족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 본다. 오영민은 딸을 업고 딸은 아빠냄새가 좋다고 하며 두사람의 관계는 회복의 기운을 맞는다.

오영민은 김참사에게 이문호 교수 포섭을 완료했다고 말한다. 가족을 만나게 해달라는 요구에 김참사는 전화를 끊어 버린다. 김참사는 오영민이 거주하는 곳이 최무혁의 집이라는 것을 알고 보험을 들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오영민이 길을 걷는데 CIA요원들이 미행을 하고 오영민이 샘에게 다가가 담뱃불을 빌리면서 가족이 있는가? 가족과 자주 만나고 있는가?하는 인사를 한다. 무슨 생각을 하게 된 것일까? 샘은 CIA요원들에게 미행을 중단할 것을 지시한다.

오영민은 동독 리히텐베르크에서 건물을 지켜보고 있다. 요원들이 나와 자동차로 이동하는 순간 그들을 미행해 일거에 제압하고 서류를 뒤진뒤 김영호의 우편물에서 나온 주소지와 트렁크에 실려있는 백경수의 사진을 찍고 돌아온다. 혜원이 잠에서 깨어나 아빠를 찾다가 교회에 다녀오겠다는 메모를 남긴채 교회로 간다. 최무혁은 교회밖에서 아빠가 엄마와 규원을 찾게 해 달라는 기도소리를 들으며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순간 북한 요원들이 들이닥쳐 혜원을 납치해 가고 최무혁이 삼촌을 부르는 혜원의 소리에 뒤쫓아 가지만 이미 끌려간 뒤다. 집에 도착한 오영민은 메모를 보고 교회로 가다가 납치되는 딸을 발견하고 뒤쫓지만 실패하고 최무혁의 총을 빼앗아 남이든 북이든 자신과 가족의 앞길을 막으면 적일 뿐이라고 말한다.

최무혁은 안기부 독일지부 박과장을 찾아 오영민의 가족을 구하고 자수를 권하자고 제안하지만 관망을 주장한다. 최무혁이 동포가 곤경에 빠졌다고 말하지만 박과장은 엄밀하게 오영민은 서독국민이라고 말한다. 최무혁은 이제 자신의 방식대로 가족을 구하겠다고 말하며 사무실을 나간다.

오영민은 편지에 적혀있는 주소지를 찾아간다. 오영민은 자신을 포섭한 강문환이 북한 서열 40위의 "김영호"(전무송역)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때마침 귀가한 김영호와 만나게 된다. 오영민은 사람을 너무 쉽게 믿었다고 말하고, 김영호는 오영민에게 다시 시작하는 기회를 붙들라고 말한다. 오영민은 그의 신분을 증명할 편지들을 던지며 거짓이라고 말한다. 방으로 들어오는 경호원에게 총을 쏘고 김영호를 끌고 밖

으로 나간다.

김참사는 리히텐베르크 사무실에서 오영민의 메시지와 백경수의 사진을 본다. 오영민은 김참사에게 전화를 하여 은숙과 딸의 안전이 담보되지 않으면 최기철에게 사진을 보낼 것이라고 협박한다. 김참사는 오영민이 사진을 보내는 순간 아내와 딸은 죽을 것이라고 말한다. 오영민은 서열 40위인 강문환(김영호)을 확보하고 있으니 가족들과 맞교환할 것을 제안한다. 이제 모든 지시는 내가 내린다고 말하고 가족의 안전여부 확인을 위해 가족들을 역으로 데려 오라고 말한다.

최무혁은 안기부의 상황을 전화로 확인한다. 안기부에서는 오영민 가족과 강문환을 교환할 것으로 추측한다. 각국 정보국에서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오영민은 리히텐베르크행 열차역에서 가족을 기다리고 있다. 기차안에서 은숙을 발견하고 은숙 또한 남편인 오영민을 발견하고 눈물을 흘린다. 기차가 떠난후 오영민은 김참사를 만나 지시는 자신이 한다고 말하며 교환장소는 사람도 건물도 없는 동서독 경계에서 할 것이라고 말한다. 최무혁의 집을 찾은 오영민은 강문환에 대한 자료를 모두 넘겨주며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최무혁은 자료확인후 안기부 사무실에 계획을 물어보자 오영민이 검문소 통과를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최무혁은 CIA독일 지부를 찾아가 강문환과 오영민 가족을 교환할 것을 말한다. 그런데 안기부가 중간에서 강문환을 가로채려 한다는 첩보를 전하며 오영민을 도와 달라고 간청한다.

서베를린검문소에서 오영민은 트렁크에 강문환을 태운채 지나려 한다. 지키고 있던 안기부 요원들이 오영민의 차를 포위 할 때 CIA요원들이 나타나 안기부 요원들을 데려간다. 오영민의 차가 무사히 빠져 나가고 안기부 박과장이 추적하러 하나 검문소 헌병이 길을 막는다. 최무혁은 검문소 상황을 듣고 약속장소를 물어 본다.

약속장소에는 김길중 참사와 경호원들이 먼저 도착해 기다리고 있다. 오영민의 자동차가 도착하고 강문환을 트렁크에서 데리고 나온다. 오영민은 아내와 아이들을 먼저 데리고 떠났다가 10분후에 다시 강문환을 데리고 돌아오겠다고 전한다. 김참사는 경호원들에게 오영민의 아내와 아이들을 보내며 강문환 확보 동시에 총으로 저격하라고 지시한다. 그 말을 옆에서 들은 아내가 걸음을 멈추고 멀리서 차량 한대가 질주하고 있다. 차에서 최기철과 부하들이 내리고 김참사를 만난다. 며칠전 오영민은 최기철에게 백경수의 사진을 보낸후 통화를 한 것이다. 오영민은 강문환을 확보중인데 자신은 가족과 함께 독일에서 살겠다고 말한다. 최기철은 김길중을 제거하고 김영호를 확보하는 일거양득을 얻게 된 것이다.

최기철의 부하가 김길중을 총으로 저격하고 김영호와 오영민을 데리고 오는 순간 최무혁이 총을 쏘며 나타나 상황은 역전된다. 오영민은 가족을 되찾는 절호의 기회

를 놓쳤다고 최무혁을 원망하고 최무혁은 그들이 살려 두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한다. 강문환이 최기철쪽으로 달려가자 최무혁이 다리를 쏘아 쓰러 뜨리고 최기철은 부하들에게 강문환을 데려 오라고 지시하지만 멀리 CIA독일지부장이 샘이 강문환에게 접근하는 자를 저격하라고 지시한다. 최무혁은 오영민에게 독일은 이제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남한으로 가자고 전한다. CIA는 동독에서 총격신고를 접수받고 현장 출동을 접한다. 다급한 CIA가 강문환을 확보하려 하자 최기철이 강문환을 저격하여 CIA쪽으로 넘어가는 최악의 상황을 막는다. 샘은 강문환이 사망하자 작전종료지시를 내리고 철수를 명령한다. 서독에는 오영민이 이중간첩이 아니라는 보고를 지시한다. 최기철은 오영민으로 인해 발생한 사건이라면서 그에게 주먹을 날린다. 오영민은 가족을 살려 달라고 사정하며 북으로 되돌아 가겠다고 하지만 최기철은 가족 모두를 살려두되 오영민을 제외한 아내와 아이들 모두를 북으로 데려가 버린다. 이후 독일은 통일이 되고 베를린장벽은 무너진다. 오영민은 독일 첩보원으로 자수하고 한국으로 귀국한다.

2009년, 혜원은 평양 대동강 선착장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을 안내하는 안내원으로 일하고 있다. 유람선을 타고 가던 외국인들은 그녀와 함께 사진을 찍는다. 한편, 서울 국가정보원 최무혁과장은 오영민의 가족사진과 유람선안내원 사진을 비교한 보고를 받는다. 오영민은 서울에서 독신으로 여생을 보낸다. 집배원이 보낸 평양사람들 전시회 초청 우편물을 보고 전시회를 찾는다. 그곳에서 혜원의 사진을 바라본다. 딸의 귀에 속삭이던 베를린 시절을 기억하며 영화는 끝이 난다.

분단의 비극적 상황을 그대로 보여준 현실적 민낯이 드러나는 영화다. 출국은 한때의 아주 작은 실수가 빚은 결과물이 얼마나 참담한 것인지를 현실적으로 그려낸다. 남북관계의 평화무드속에서 흥행에는 실패했지만 이 영화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교훈한다. 그리스도인은 영화에서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 우리에게도 인생의 과정에서 수많은 허점과 실수가 반복된다. 그러나 가족과 인생과 영원한 것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우리는 인간의 생각이 아닌 신의 생각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에게겐 하나님이라는 실재적이고 영원한 실존재가 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며 모든 진리가 된다. 그 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의 시간을 보낸다면 끝은 늘 해피엔딩이 될 것이다. 이것이 이 영화에서 만난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다.

34. “마약왕”THE DRUG KING

한국영화, 장르:범죄,드라마, 개봉:2018.12.19.

감독,각본:우민호, 제작:하이프미디어코프

주연:송강호,조정석,배두나, 관객:1,839,651명(2019.01.02.현재)

1972년 부산, 대학교 입학계만 제출하고 금세공업자로 살아가던 “이두삼”(송강호역)이 선상에서 마약거래 조직 “유엔파”의 금괴에 대한 진품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에 참여하면서 마약계에 진입한다. 아내인 “성숙경”(김소진역)과 함께 3남매를 키우면서 겨우 밥만 먹고 살았던 이두삼은 사촌동생인 “이두환”(김대명역)을 위해 양주와 오줌을 섞은 물까지 받아먹는 하층민이었다. 어느날 이두삼은 유엔파를 매개로 오사카에 히로뽕 수출을 하면서 만주출신 야쿠자 “김순평”(윤제문역)과 관계를 맺는다. 그러나 유엔파의 배가 정부소유로 밝혀지는 가운데 국가정보부의 수사선상에 오르자 유엔파는 이두삼을 먹이감으로 중앙정보부에 던져준다. 중정의 “백운창”(김해곤역)으로 부터 모진 고문 끝에 이두삼은 감옥으로 들어간다.

1973년 부산, 감옥에서 백그라운드가 팡팡한 “최진필”(이희준역)을 만난 이두삼은 아내인 성숙경을 통해 폐병환자를 이유로 출소를 한다. 가족의 얼굴조차 보지 않은 이두삼은 최진필을 찾아 거액을 투자하면서 새로운 마약사업을 제안한다. 화교출신 원료운반책 “왕문호”(박지환역)와 전직 은행원 “이두숙”(이봉련역) 경리, 사촌동생 이두환, 명망있는 히로뽕 제조자 “백교수”(김홍파역)로 이루어진 조직을 결성하고 일본 고베에 히로뽕을 수출하는 사업으로 막대한 자금과 부를 누리게 된다. 교회등록자 가운데 장애인의 신분증을 이용해 신분세탁을 하며 이중생활을 하는 이두삼은 검찰청에 뇌물을 먹여 수사망을 차단한다. 그 후 최진필과 수입 배분 문제로 갈등이 발생하자 차선책으로 성강파 보스인 “조성강”(조우진역)과 친분을 쌓는다.

1974년 부산, FBI출신 수사관 “김인구”(조정석역) 검사가 부산의 마약단속부로 발령을 받아 새롭게 부임한다. 현재의 수사팀이 이미 마약조직과 결탁되어 있다는 것을 직감한 김인구는 미싱공장에 새로운 조직을 창설한 뒤 대대적인 비밀단속을 시작하여 이두삼의 조직원들이 체포될 위기에 봉착한다. 결국 이두삼은 사촌동생인 이두환에게 모든 죄를 대속시키고 돈을 챙겨 서울로 상경해 버린다. 수많은 돈과 히로뽕으로 여의도 “구사장”(최덕문역)의 환심을 산 이두삼은 상류층 사교계로 사업을 확장해 간다. 이두삼이 약과 여자에 취한 삶을 계속 하던 중 엘리트 출신 로비스트 “김정아”(배두나역)를 유심히 관찰하게 된다. 눈이 높은 김정아가 이두삼을 배척하자 이두삼은 스포츠카 등으로 김정아의 마음을 사로잡고 히로뽕도 직접 제조하는 기술을 취득하며 새로운 마약사업에 진출한다.

1975년 도쿄, 이두삼은 여자배구단 교류식에서 김정아의 소개로 “진회장”(와타나베 테츠역)을 알게 되고 불상에 담긴 히로뽕으로 환심을 얻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3년전 자신을 체포하였던 백운창을 연회장에서 만나 협박을 당하게 되자 결국 김순평과 함께 백운창을 살해하게 된다. 이두삼은 마약을 위해 불상을 톱으로 자르는 과성을 드러내고 김순창이 백운창을 토막살해 하는 등 두사람은 히로뽕에 점점 중독되어 가고 있다.

1976년 부산, 사업이 대성공을 하며 이두삼은 철옹성같은 호화 저택으로 이사를 하고, 새마을운동 고문직에 오르는 부와 명예를 거머쥔다. 그러나 히로뽕 투약으로 정신이 혼미해진 이두삼의 인간관계는 천박하기 그지 없다. 이두환은 정신병에 걸려 있고, 본처인 성숙경은 김정아와의 갈등으로 이두삼과도 마찰을 빚는다. 이러한 갈등구조속에서 김인국은 이두환을 회유하는데 성공하고 이두삼을 체포하지만 김정아의 백그라운드로 다시 석방되기에 이른다. 석방된 후 더욱더 자만심에 빠진 이두삼은 김정아마저도 내팽겨치고 백운창을 제거하면서 의형제였던 김순평까지 배신하는 치졸함을 보여준다. 자신의 뒷배를 봐주던 성강파 보스 조성강을 조직적으로 살해하는 등 이두삼의 일탈은 양아치 수준을 넘어선다.

1979년 부산, 이두삼을 추적하던 김인국은 김순평의 정보를 취득하고 추적하지만 부림사건으로 시위대 진압과정에서 쓰러진 김순평을 보며 망연자실해 한다. 자신의 짐을 챙겨 떠나는 김정아,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지면서 대저택에 외롭게 남은 이두삼은 TV스크린으로 10.26사태를 바라본다. 상류사회에 히로뽕을 팔며 희대의 탐위에 올랐던 이두삼은 세상의 몰락과 변화에 모든 관계가 단절되고 스스로도 미쳐가고 있다.

1980년 부산, 이제 스스로 히로뽕을 맛아가며 하루하루 버티는 이두삼은 3년전 연락두절된 성숙경과 통화하면서 신세를 한탄하고 있다. 전화기를 도청한 김인국은 수사관들을 대동하고 이두삼의 저택을 습격한다. 그러나 장총을 쏘며 저항하는 이두삼에게 결국 군대까지 동원하는 총격전을 벌인다. 우여곡절 끝에 김인국과 이두삼은 일대일 구도로 충돌하고 권총자살을 시도하던 이두삼을 제압한다. 바로 그 순간, 스피커에서 클래식 음악과 함께 박수소리가 터져 나오면서 이두삼의 고독한 최후를 대변하듯 한다. 마약수사과에 체포된 이두삼은 김인국의 온갖 회유와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자신이 히로뽕을 배포했던 정관계, 재계인사들의 명부를 넘겨준다. 이두삼과 관계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씩 체포되고 이두삼은 징역 15년형을 선고받는다. 이로서 대검찰청에 마약과가 신설되고 영화는 끝이 난다.

1970년대 마약도시 부산의 마약유통을 모티브로 제작한 영화 마약왕은 마약이 주는 중독성의 폐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충격이다. 그 어느 것도 배울것이 없는 스

케일에서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고민해 볼 수 있을까? 여전히 음지에서 공급유통되고 있는 마약은 유통자 자신과 가족과 이웃들을 파멸로 이끄는 악의 먹거리임에는 틀림이 없다. 근절하려는 수없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회 깊은 곳에서 끝없이 돌고도는 유혹처럼 다가온다. 모두가 만족을 느끼지 못할 때, 외롭고 고독한 그림자속에 숨어 있는 달콤한 유혹은 반드시 모두를 파멸로 이끄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가운데에서 기쁨과 만족을 찾지 말아야 한다. 세상 유혹이 무엇인지 소돔과 고모라, 이세벨과 애굽과 제국들로부터 끝없이 학습해 왔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흔들림없는 신앙으로 세계관을 바르게 세우며 진일보하는 일에만 매진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중독으로부터의 도전에 승리하는 길이 될 것이다.

35. “스윙키즈”Swing Kids

한국영화, 장르:드라마, 개봉:2018.12.19.

감독,각본:강형철, 제작:안나푸르나필름

주연:디오,지레드그라임스,박혜수,오정세,김민호,

관객:1,348,101명(2019.01.02.현재)

1951년, 한국전쟁 당시 남부지역 최대의 거제 포로수용소, 종군기자 “베르너 비숍”(Werner Bischof)이 포로수용소내에서 복면을 쓴 채로 자유의 여신상앞에서 춤을 추고 있는 포로들을 촬영한 한 장의 사진에서 시작된 창작 뮤지컬 “로기수”를 모티브로 스윙키즈는 제작되었다. 각기 다른 이유로 댄스단에 합류한 남한과 북한과 미국과 중국의 다섯 캐릭터가 전면에 등장하여 동북아의 평화를 암시한다.

“로기수”(도경수역)는 북한 인민군 포로로 인민영웅 로기진의 친동생이다. 호기와 반항아적 기질로 학창시절 소련무용학교에서 카자크 춤을 배운 이력이 있다. 포로수용소내 트러블 메이커로 지내던 중 미국춤인 탭댄스에 매력을 느끼고 스윙키즈 댄스단에 합류한다. 제국주의의 탭댄스를 배우는 것 자체가 반동임에도 불구하고 로기수는 탭댄스의 열정과 매력을 마술처럼 느낀다.

“양판래”(박혜수역)는 한국인으로 영어를 비롯하여 4개국어에 능통한 무허가 통역사다. 무너져 내리는 집안의 가장으로서 생계를 책임지게 된 양판래는 포로수용소 내 스윙키즈 댄스단의 통역사가 되었다. 그후 댄스단에 합류하여 통역사 겸 댄서가 되는데 로기수보다 두 살 많은 스무살 미혼녀다.

“잭슨”(자레드 그라임스역)은 스윙키즈단의 리더로 미군 하사다. 전직 브로드웨이 탭댄서로 춤으로서 평화를 구현하고자 한다. 포로들인 로기수를 비롯하여 스윙키즈단원들에게 탭댄스를 교육하면서 로기수의 심경에 변화를 주는 키워드가 된다. 미국인이지만 인종차별을 겪으면서 이들과 동질감을 느끼게 되는 순간이다.

“강병삼”(오정세역)은 한국의 민간인으로 전쟁중 아내와 뜻하지 않는 이별을 하게 되었다. 거기에다가 군인으로 오해를 받아 긴급 체포까지 된 것이다. 실종된 아내를 찾기 위해 스윙키즈 댄스단에 합류하여 유명세를 띄우고자 한다. 댄스단내 웃음을 주는 캐릭터이지만 내면에는 큰 슬픔이 담겨진 의외의 깊은 인물이다. 양판래보다 세 살위의 스무세살이다.

“샤오팡”(김민호역)은 인쇄전술로 밀려 내려온 중공군 포로로 체구가 풍요로운 것은 영양실조가 주원인이라고 한다. 반전에 가까운 유연성과 춤 실력을 보유한 개그담

당 캐릭터로 스윙키즈 댄스단의 감초역할을 한다.

1951년, 한국전쟁의 거제포로수용소, 신임 "로버트"(로스케틀역) 수용소장은 수용소의 대외적 이미지 개선과 흑색선전을 위해 전쟁포로 중심의 댄스단을 결성할 프로젝트를 계획한다. 로버트 소장은 과거 브로드웨이 댄스단원이었던 잭슨하사에게 일 본으로 발령한다는 전제조건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할 것을 지시한다.

잭슨 하사는 소련 무용에 탁월한 재능을 가진 북한군 포로 로기수, 춤꾼이며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4개국어에 능통한 민간인 양판래, 전쟁도중 헤어진 아내를 찾기 위해 유명세를 타고 싶은 한국인 포로 강병삼, 풍만한 외모와 달리 매력적인 춤숨씨를 구사하는 중공군 포로 샤오팡을 극적으로 소집해 댄스단을 구성한다. 그러나 각기 다른 이념과 사상을 지닌 초보춤꾼들에겐 잦은 다툼과 분쟁만 있을뿐 진일보한 댄스가 나오지 않는다. 이 와중에 잭슨하사도 백인 부하의 하극상과 흑인이라는 이유로 인종차별을 당하는 수모를 겪는다. 특히 미군들로부터 댄스단원을 보호하려다가 앙심을 품은 미군의 함정에 의해 영창까지 가는 억울함을 당한다.

절망적인 상황에 부딪히자 팀원들은 하나가 되어 움직이기 시작한다. 영창에서 기습적으로 데려온 잭슨 하사와 함께 적십자 방문 당일 예고없는 공연을 개최한다. 진흙바닥이라는 열악한 환경속에서 매끄럽지 못한 공연을 개최했지만 공연으로 인정한 군중과 기자들과 적십자단으로부터 큰 호응을 받는다. 로버트 소장은 이러한 호응에 부응하며 성탄절에도 공연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잭슨을 조기에 영창에서 석방하여 팀은 정상적으로 추진된다.

그러나 새로 들어온 북한군 포로 "광국"(이다윗역)이 북한을 찬양하는 선동과 함께 인민영웅 "로기진"(김동건역)의 등장으로 인해 북한군 포로내 폭동분위기가 극에 달한다. 더 나아가 북한군 포로사이에서 음모까지 진행되기 시작한다. 이때 로기수는 미제국주의자들과 함께 어울려 춤을 춘다는 이유로 같은 북한군 포로들에게 비난을 받는다. 북한군 연락책이면서 수용소내 북한군 두목인 "삼식"(송재룡역)은 로기진의 목숨을 담보로 공연 당일 무대위에서 로버트 소장을 암살하라는 지령을 받는다.

크리스마스 당일 팀 스윙키즈는 로버트 소장과 적십자단 앞에서 훌륭한 무대를 진행한다. 공연이 끝난후 다른 멤버들이 퇴장하는 순간에도 로기수는 무대위에 혼자 남아 삼식을 주시하며 탭댄스를 계속한다. 탭댄스를 추다가 무대 후면에 은밀히 숨겨둔 총으로 암살을 실행하려던 로기수는 로기진에게 제압당하고 로기진이 소장을 저격한다. 소장을 호위하던 헌병들과 총격전에서 로기진이 사망하지만 소장은 다행히 목숨을 건졌다. 분노가 극에 달한 로버트 소장은 헌병들에게 동양인들을 모두 사살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스윙키즈 단원 전원이 총살을 당한다. 잭슨하사가 다른

수용소로 발령을 받아 떠나는 순간 거적에 덮인 단원들의 시체속에서 탭댄스 슈즈를 발견한다.

수십년이 흐른 후 UN참전용사 한국방문의 해 행사에 참여한 잭슨은 거제 포로 수용소의 관광안내중에 과거 스윙키즈 단원들이 연습하던 강당으로 들어가 그때를 회상하며 영화는 끝이 난다. 음악으로 이념적 갈등을 극복하려 했던 영화 스윙키즈는 그 이념을 극복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의해 비극으로 종결된다. 그리스도인은 이 영화에서 무엇을 보아야 했을까? 사실 찬양은 그리스도 공동체를 가장 일치단결하게 한다. 찬양을 통하여 사람들은 하나가 되고 울동을 통하여 사람들은 영적 에너지를 충전한다. 이 가운데 이념이나 개인적 생각은 들어오지 않는다. 단지 찬양해야 할 하나님만이 있을 뿐이다.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이어갈 때 그리스도 공동체도 갈등을 극복할 수 있다는 단순한 진리를 배운다.

36. “보헤미안 랍소디”Bohemian Rhapsody

미국,영국영화, 장르:드라마, 개봉:2018.10.31.

감독:브라이언싱어(Bryan Singer), 제작:20세기폭스

주연:라미말렉(Rami Malek),루시 보인턴(Lucy Boynton),귄림리(Gwilym Lee),벤 하디(Ben Hardy),조셉 마젤로(Joseph Mazzello),

관객:9,434,316명(2019.01.03.현재)

1985년7월13일, 라이브 에이드(LIVE AID), 잠에서 깨어난 “프레디 머큐리”(라미말렉 역)는 공연준비를 하며 라이브 에이드 공연장인 웬블리 경기장으로 향한다. 록 밴드 퀸의 멤버들과 함께 열광적인 공연을 한다.

1970년 런던, 이민자 출신 프레디는 공항 수화물운반원으로 일하고 있다. 귀가길 클럽에서 공연밴드의 노래를 듣는다. 프레디가 대기실 근처에서 “메리 오스틴”(루시보인턴역)과 마주친다. 프레디가 밴드를 만나려 하자 밴드가 밖에 있을 것이라고 알려준다. 프레디가 메리의 코트를 보고 어울린다고 말하고 메리의 친구가 비바에서 옷을 구입했는데 메리는 그곳의 직원이라고 알려준다. 공연이 끝난후 밴드 보컬은 이대로는 않된다는 말을 하고 간다. 프레디는 밖에서 “브라이언 메이”(귄림리역)와 “로저 테일러”(벤하디역)에게 인사를 하며 오랫동안 밴드를 지켜 보았는데 디자인을 전공했지만 곡도 쓰고 있다고 말한다. 로저는 불과 5분전에 보컬이 아웃했다면서 늦었다고 전한다. 그말에 프레디가 보컬을 제안하고 노래를 부른다. 로저와 브라이언이 연락하겠다고 말하고 베이스 기타를 칠 줄 아는지 물어본다. 프레디는 베이스 기타 연주가 않된다고 말하고 돌아간다.

프레디가 메리의 바바에서 옷을 둘러본다. 자신에게 맞는 옷을 달라고 메리에게 말하자 메리가 여성복이라 큰 사이즈는 없지만 스카프가 옷과 잘 어울릴 것 같다고 말하며 목에 코드를 해 준다. 메리는 프레디의 메이크업을 하면서 두사람은 친근감을 보여준다. 밴드는 “존 디콘”(조셉마젤로역)을 새로운 베이스기타로 영입하면서 클럽에서 노래를 계속한다. 이민자출신의 프레디를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노래가 시작되자 모두가 즐거워 하고 가사가 틀린 부분에서는 즉흥적인 센스를 발휘해 잘 소화해 낸다.

1971년, 프레디는 스튜디오 관련내용이 담겨진 신문을 들여다 보며 멤버를 기다리고 있다. 공연을 가기 위해 밴을 움직이려 하자 고장으로 멈춘다. 프레디는 앨범을 만들 것을 제안한다. 녹음을 위해 고물 밴을 팔고 스튜디오를 임대한다. 녹음이 잘 될 때까지 끝없이 연습을 한 후 다양한 음질을 만들며 밴드명을 “퀸”이라고 짓는다. 유명 음반관계자가 퀸이 녹음하는 것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 프레디의 가족과 메

리의 가족과 밴드 멤버들이 함께 식사를 하고 있을 때 프레디의 어머니가 고향이야기를 하며 프레디의 유년시절 사진을 보여준다. 프레디는 퀸밴드를 법적인 명칭으로 개명했다고 전한다. 한 통의 전화가 프레디 머큐리를 찾는다. EMI에서 퀸의 데모 음반을 들었고 "존 리드"(에이단 길렌역)가 밴드 일로 미팅을 제안한다. 밴드 멤버와 가족들은 환호성을 지른다. 프레디는 EMI와 만난 자리에서 퀸을 세상에서 소외된 자들을 위한 특화된 밴드라고 소개한다. 존 리드는 "폴 프랜터"(엘렌 리치역)가 밴드의 일정을 담당할 것이라고 말하고 TV프로그램과 일본투어 일정을 말한다. BBC방송 녹화에서 PD가 립싱크 녹음을 요구하자 멤버들은 걱정을 하고 메리는 프레디에게 카메라에 입모양이 잡히지 않게 부르며 된다고 안심시킨다.

메리가 집에서 프레디에게 무대에서 노래 부를 때의 기분을 물어본다. 프레디는 무대에 있을 때 모든 관심이 집중되고 자신이 늘 꿈꾸던 사람이 된 것 같아 두려움이 사라진다고 말한다. 그것은 메리와 함께 있을때와 같은 기분이라며 미리 준비한 반지를 꺼내 청혼을 한다. 멤버들이 집으로 찾아와 앨범이 미국에서 대히트를 쳐 미국투어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한다. 퀸 밴드의 미국투어가 시작되고 전지역에서 공연매진이 계속되며 공연후 프레디는 메리에게 사랑을 고백한다.

"레이 포스터"(마이클마이어드역)의 사무실에서 퀸밴드의 신규 앨범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레이 포스터는 예전과 같은 히트곡을 원한다. 프레디는 오페라스타일의 로큰롤 앨범을 새롭게 도전하겠다고 하는데 레이 포스터는 반대하며 매니저와 변호사에게 의견을 타진한다. 퀸 밴드의 변호사 "짐 비치"(톰홀랜더역)는 용감한 자에게 행운이 있다는 말로 퀸을 지지한다.

1975년, 앨범녹음을 위해 인적이 드문 농장에서 녹음에만 집중을 한다. 프레디는 "러브 오브 마이 라이프"(Love Of My Life)를 작곡하면서 메리를 위한 노래라고 말한다. 프레디의 작업과 함께하던 "폴 프랜터"(엘렌 리치역)가 프레디에게 키스를 하며 단지 동료관계일 뿐이라면서 관계를 정리한다. 멤버들이 각자 자신이 만든 노래에 관한 대화를 나누며 서로를 비방한다. 프레디는 초원을 거닐면서 새로운 노래를 생각한다. 멤버들은 노래 녹음을 시작하고 프레디는 로큰롤의 기운을 강하게 하자며 기타 솔로와 오페라스타일의 코러스 녹음을 계속한다. 퀸 밴드는 곡을 완성한 후 레이 포스터에게 6분 분량의 "보헤미안 랍소디"(Bohemian Rhapsody)를 들려준다. 레이 포스터는 3분으로 줄여 줄 것을 요청하고 갈릴레오, 피가로, 비스밀라 등 특이한 곡들은 음반 판매량이 거의 없다고 말한다. 프레디는 정규앨범 판매전 싱글 판매를 요구하지만 레이 포스터는 어떤 방송국에서도 거절할 것이라는 부정적 견해를 밝힌다. 프레디는 레이 포스터에게 퀸과의 결별하는 남자로 기억될 것이라고 말하고 나가 버린다. 프레디는 런던 유명DJ 케니 에버릿에게 음반을 건네주고 케니 에버릿은 EMI미발매곡이라면서 라디오 단독 방송을 송출한다.

1976년, 밴드 투어를 하던 중 프레디는 메리에게 전화를 하고 메리는 사랑을 말하지만 프레디는 아무말 없이 전화를 끊는다. 프레디는 한 남자를 보고 지켜본다. 귀가길 프레디는 메리에게 공연실황 영상을 보여준다. 관객들이 메리를 위한 노래라고 말하지만 메리는 프레디의 이상한 행동에 대하여 의문을 갖는다. 프레디는 자신이 양성애자, 게이인 것 같다고 말하고, 충격받은 메리가 반지를 빼려고 하자 메리를 사랑한다면 자신의 인생에서 떠나지 말 것을 요구한다.

1980년 런던, 프레디는 메리의 옆집으로 이사를 한다. 로저는 가족들이 기다린다고 돌아가 버리고 프레디는 창문넘어 메리에게 전화를 하며 대화를 나눈다. 고독한 프레디는 폴에게 전화해 파티개최를 알리고 밴드 멤버들이 프레디와 폴 프렌트가 같은 머리와 콧수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복제품같다고 말한다. 프레디가 파티장에서 메리를 찾아 보지만 메리는 오지 않았고 멤버들도 조기에 귀가해 버린다. 외로운 프레디는 파티장에 고용된 "짐 허튼"(아론맥쿠스커역)의 히프를 만지며 유혹하지만 짐 허튼은 화를 낸다. 프레디가 사과를 하며 두사람은 함께 술을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다 어느 순간 키스를 한다. 짐 허튼은 프레디에게 사랑할 준비가 되면 언제든지 오라는 말을 남기고 나간다. 녹음실에 프레디가 늦게 도착하고 브라이언은 관객 참여도를 높일 방법으로 발구르기와 박수치는 방법을 연구하여 관객과의 교감을 상승하는 공연을 한다. 폴은 존 리드에게 CBS레코드에서 프레디에게 솔로계약 제안을 했다고 말한다. 존 리드는 퀸 멤버들이 한 가족이라면서 거부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메리는 프레디의 공연장을 찾아 남자친구를 소개한다. 귀가길 차 안에서 존 리드는 잭슨 파이브, 마이클 잭슨의 예를 들면서 CBS레코드에서 솔로 제안한 사실을 상기한다. 프레디가 퀸의 멤버는 가족이라고 하면서 분노하지만 존 리드가 멈추지 않자 프레디는 존 리드를 해고해 버린다. 사무실로 돌아온 멤버들이 프레디에게 구체적인 상의없이 매니저를 해고한 것에 반발하자 앞으로 짐 비치가 매니저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프레디가 디스코를 제안한다. 브라이언 메이가 로큰롤 밴드인 퀸이 디스코를 하는 것에 반대하자 프레디는 자신이 하는 음악이 퀸의 음악이라고 잘라 말한다. 존 디콘이 베이스 연주를 하고 다른 멤버들도 연주를 한다. 짐 비치는 매니저를 승인하고 미소를 띄운다.

1982년 런던, 기자회견장에서 기자들은 음악질의 대신 프레디의 사생활에 집중하고 있다. 프레디는 자신이 가사를 쓰지 않았는데 MTV에서 금지곡이 되었다고 화를 낸다. 프레디가 화장실에서 전화번호를 열어 짐 버튼의 연락처를 찾는데 같은 이름이 너무 많이 쏟아진다. 어느날 프레디가 앨범과 투어가 반복되는 것에 지쳤다면 CBS레코드와 솔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말한다. 멤버들이 가족을 떠나는 것은 배신이라고 말하자 400만파운드에 계약했다면서 자신은 독신이지 가족이 아니라고 말한다.

1984년 뮌헨, 프레디는 멤버와 이별하며 폴 프렌트와 함께 음악작업을 한다. 메리가 프레디의 삶이 염려되어 전화를 걸어 보지만 폴이 작업중이라는 이유로 바꿔 주지 않는다. 짐 비치가 자선기금모금 공연 라이브 에이드에 퀸이 초청되었다고 연락했지만 폴이 같은 이유로 전화를 바꿔 주지 않는다. 프레디가 녹음실에서 기침을 하자 피가 섞여 나온다. 프레디가 걱정되었던 메리가 집으로 찾아온다. 메리는 프레디의 물골을 보며 근심에 빠진다. 메리가 꿈에서 프레디와 대화를 하는데 아버지와 대화하는 것 같은 악몽에 지쳐 있다. 메리는 아프리카 기아 아동후원 모금 콘서트가 있는데 전세계 15억명이 시청하는 역대급 공연이라고 말한다. 프레디는 라이브 에이드에 대해 들은 것이 없다고 말한다. 메리는 프레디에게 임신을 했다고 말하자 프레디는 몹시 당황해 한다. 폴이 돌아오자 메리가 밖으로 나가고 프레디도 뒤따라 나온다. 메리는 프레디를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브라이언, 디콘, 로저의 곁으로 돌아오라고 말한다.

프레디는 폴에게 라이브 에이드를 숨긴 것에 화를 내고 떠날 것을 요구한다. 폴은 프레디를 설득해 보지만 집을 떠나 버린다. 그러자 폴이 방송에 출연해 프레디의 사생활을 폭로한다. 프레디는 짐 비치에게 연락해 퀸의 멤버들과 화해의 자리를 갖고 싶어한다는 뜻을 전한다. 짐 비치는 라이브 에이드의 라인업이 이미 발표되었으니 퀸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고 말한다. 퀸의 멤버들이 들어오자 프레디는 그동안 자신이 오만하고 이기적이었음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한다. 브라이언이 퀸의 멤버들과 상의하기 위해 프레디를 밖으로 보내고 프레디의 독단적 결정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은 후 다시 함께 한다. 짐 비치가 라이브 에이드 관계로 밥에게 전화하고 20분 공연을 허락받는다. 프레디는 집에서 에이즈에 관한 뉴스를 접하고 자신의 증상의 심각성을 생각한다. 병원을 찾은 프레디는 에이즈 진단을 받는다. 라이브 에이드 공연 연습에서 프레디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다. 휴식시간 프레디는 멤버들에게 에이즈 감염 사실을 알리고 비밀로 해 줄 것을 요청한다. 프레디는 마지막까지 전설의 뮤지션으로 남고 싶다면서 후회없는 공연을 준비한다.

1985년 런던 웹블리 경기장의 라이브 에이드, 공연직전 프레디는 짐 허튼의 집을 찾는다. 프레디는 오랜 연인관계인 짐 허튼을 부모님에게 친구라고 소개한다. 아버지와 화해의 포옹을 나눈 프레디는 공연장으로 떠나고 아버지는 곧바로 TV를 켜 라이브 에이드 공연시청을 준비한다. 공연장에 메리와 데이빗이 찾아와 프레디와 마지막 인사를 한다. 공연이 시작되고 퀸 밴드가 무대위로 올라가 20분간의 라이브 에이드 공연을 성황리에 마무리 한다.

20분간의 엔딩 공연으로 영화는 끝이 났다. 1970년대의 전설 뮤지션 퀸에 관한 전기적 영화이지만 내용이 다소 각색된 부분들이 있다. 프레디는 아이벡스(IBEX)라는

밴드에서 보컬로 활동한 전적을 갖고 있으나 고의적인 생략으로 판단된다. 메리 오스틴은 본래 브라이언 메이의 연인이었으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두사람이 헤어진 후 프레디와 만나게 되고 프레디도 모든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또한 퀸의 앨범 투자는 가상의 인물인 로스터가 아니라 "레이 페데스톤"이었다. 레이 데페스톤 EMI사장은 퀸의 열정적인 지지자인 동시에 보헤미안 랩소디를 반대한 적이 없었다. 그리스도인은 수많은 관객동원을 하고 있는 보헤미안 랩소디라는 영화에서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 한사람의 음악에 관한 위대한 집념과 사랑에 반한 것일까? 그리스도인에게도 하나의 신념과 신앙이라는 위대한 하나님이 있다. 복음을 위해서 죽기까지 헌신하는 바울과 베드로의 전설같은 신앙적 삶처럼 우리에게도 위대한 열정이 열려 있다. 양성애자의 아킬레스를 극복하고 음악으로 성장한 프레디처럼 탁월한 신념을 가진 위대한 신앙은 자신의 한계를 고백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주어지는 결말이 될 것이다.

37. "PMC:더 벙커"ake Point

한국영화, 장르:액션, 개봉:2018.12.26.

감독,각본:김병우, 제작:퍼펙트스톰필름

주연:하정우,이선균, 관객:1,459,713명(2019.01.03.현재)

북한의 킹(KING)에게 거액의 현상금이 걸린 후 지지율이 급락하는 미국 "맥그리거" (로버트 커티스 브라운역) 대통령의 반등을 위해 은밀한 계획이 수립된다. CIA의 "맥켄지"(제니퍼 엘역) 요원은 대통령의 지지율을 2배로 상승시킬 목적으로 통화를 한다. 용병 랩터16팀은 불특정출신성분과 불법체류자로 기밀성과 오류가 없는 절대 강자로 구성되어 있다. 글로벌 군사기업(PMC:Private Military Company) 블랙리저드의 캡틴 "에이헵"(하정우역)은 신규로 랩터16팀에 등록한 "로건"(스펜서 다니엘스역)과 이야기를 한다. 지하 30미터의 알 수 없는 미지의 공간, TV채널은 뉴스만 나오고 핸드폰 통화는 일절 차단된 상태다. 에이헵은 아내인 "이지수"(신현빈역)가 임신 중이라 곧 아빠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에이헵은 로건에게 핸드폰을 주며 지금은 인턴이지만 통화가 가능하도록 해 주면 정규직이 된다고 말한다. 로건은 에이헵의 낙하산 전설이 사실인지 되물어 본다.

CIA와 핫라인이 연결된 후 에이헵은 스테이션10의 맥켄지 요원과 통화를 시도한다. 맥켄지는 작전에 대한 프리젠테이션을 한다. 작전은 리영택이 비공개회담을 위해 회담장에 도착했을 때 잡고 바로 철수하는 것이다. 에이헵은 TV에스포츠 채널이 나오지 않는 이유와 회담장소가 지하로 변경된 이유를 질문한다. 맥켄지는 북한이 만든 땅굴 가운데 하나로 양국의 비밀회담장소로 활용중이고 비인가 통신은 일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뉴스외에 차단되었다고 말한다. 맥켄지는 이 작전이 6년동안 준비한 계획이라고 그 중요성을 말한다.

로건이 대사관에서 투표할때에 대사관 직원이 전쟁을 우려하는 말을 전한다. 로건은 마켓 경비직을 하다가 자녀양육이 어려워 이 일에 가담하였다고 전한다. 로건은 에이헵에게 전쟁이 개시된다면 막을 것인지 물어본다. 그때 서울 상공에 스커드 미사일이 출몰하고 패트리엇 미사일(PAC-3) 2기가 동시 발사되어 스커드를 요격한다. 맥켄지는 리영택 망명조건으로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이미 계획된 일이었음을 밝힌다. 에이헵은 이 작전이 군사작전이 아니라 선거전략이라는 것을 감지한다. 맥켄지는 랩터16소속 에이젠트와 계약사hang이라고 말하지만 에이헵은 몸값 지불전에는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전한다. 로건이 회담장에 나타난 자가 리영택이 아니라 북한의 킹이라고 말한다. 에이헵은 킹이 아시아 최고의 현상금수배자라고 말하며 장군 한명이 망명한다면 킹도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다. 맥켄지는 킹을 망명시키면 지지율이 급락한다고 말하고 에이헵은 맥켄지에게 장군을 망명시키면 진급대상자가

되지만 킹을 잡으면 CIA에서 진급을 시키는 사람이 될 것이라면서 원원을 제안한다. 맥켄지는 잡을 가능성을 묻고 에이헵은 중무장한 적군이 12명이나 된다면 지원팀이 5분거리에 있으니 출동하겠다고 말한다. 맥켄지는 이번 작전은 랩터16의 돌발행동으로 CIA는 책임이 없다는 사실을 공지하고 에이헵은 이에 동의 하면서 회담장으로 이동한다.

에이헵은 팀원들에게 리영택 타깃에서 킹으로 변경된 사실을 공지한다. 팀원들은 상대의 숫자가 너무 많다고 우려를 표명하자 에이헵은 지원팀을 부르며 현상금을 재 분배해야 한다면 결과적으로 우리의 몫이 그만큼 줄어든다고 경고한다. 에이헵은 선두로 나설 인물을 찾고 있다. "호세"(줄리안 호아킨역)가 선두가 죽을 확률이 80%라면서 망설이고 에이헵은 킹만 잡으면 더 이상 이런 일은 없어도 된다고 압박 수위를 높인다. 결국 가장 민첩한 호세가 선두에 서서 2명만 처리하라고 말한다. 에이헵은 백업을 분명하게 하고 확인사살의 중요성을 알린다. 맥켄지는 안전을 우선으로 하고 지원팀이 온 다음 하라고 말하는 순간 CIA상황실로 누군가 들어오려고 한다. 맥켄지가 상황실 진입자를 막으라고 하고 에이헵에게 당장 가서 킹을 잡으라고 명령한다.

로건이 40분마다 3분정도의 통화가 가능하다면서 핸드폰을 건네자 에이헵에게 출산이 임박했다는 지수의 문자가 들어온다. 에이헵이 지수에게 전화를 걸자 지수가 하는 일을 이제 그만두라고 말하고 에이헵은 일이 끝난 후 전화하겠다고 하며 끊는다. 랩터16팀은 회담장으로 진입해 순식간에 모두 제압하고 킹을 잡는데 성공한다. 에이헵이 킹을 잡았다고 맥켄지에게 보고하고 맥켄지는 킹외에 모두 제거하라고 지시한다. 그순간 쓰러진 북한군 하나가 호세에게 총을 쏘고 피를 흘리며 쓰러진다. 호세의 상처를 압박하고 지혈하며 에이헵은 5분거리의 지원팀에게 의사가 있는지 물어 본다. 맥켄지는 현상금을 지원팀과 분배할 것인지 되묻고 당장 철수할 것을 지시한다. 로건은 캡틴에게 지금 바로 가서 치료하면 살수 있다고 말하고 에이헵은 불법체류자신분이라 보험도 안되고 가족과 함께 추방될 것이라고 말한다. 이 말을 듣던 "윤지의"(이선균역)가 캡틴이 현상금을 나누어 주지 않으려고 지원팀을 부르지 않는 것이라고 말한다. 에이헵이 가려진 두건을 벗기며 누구냐고 묻자 윤지의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아침에 납치되어 이곳에 있게 된 것이라고 말하며 지금의 상황이 함정이라고 말한다. 윤지의는 회담장 사방에 용병들이 매복중이라면서 상황 파악이 되지 않는 에이헵을 노려 본다. 그때 뉴스에서 CIA가 고용한 용병들이 회담장을 공격했다는 소식이 속보로 전해진다. 북한은 즉시 보복행동에 돌입했고 스커드 미사일도 보복 공격임을 전한다. 북한은 1시간후에 모든 증거들을 공개한다고 천명하고 있다. 갑자기 회담장 주위에 매복하던 적이 총을 쏘며 공격을 시작하고 맥켄지는 킹부터 데려올 것을 주장한다. 에이헵은 맥켄지에게 지원팀을 보내야 킹과 함께 갈수 있다고 말한다. 에이헵과 "마쿠스"(케빈 두런드역), 로건은 스위트룸으

로 이동한다. 탈출로를 확보하던 "JP"(바르제카 비카역)가 총에 맞고 쓰러지고 팀원들은 킹을 빼앗기면 지원팀도 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맥켄지는 현재 회담장을 공격하는 용병들은 중국의 군사기업으로 중국이 북한을 조정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맥켄지는 용병은 지원팀에게 말기고 킹을 데리고 빨리 철수하라고 말한다. 갑자기 마쿠스가 로건을 총으로 살해하고 에이헵에게 B2폭격기가 2시간째 회담장 상공을 순회하는 사진을 보여준다. 마쿠스는 하루전 중국의 군사기업과 접촉하고 2배이상의 사례가 지급된다는 사실을 말한다. 에이헵은 마쿠스에게 다른 곳으로 갈아타는 것인가 묻고 마쿠스는 이미 갈아탄 상태고 에이헵에게도 함께 할 것을 제안한다. 에이헵은 마쿠스의 눈을 피해 권총을 숨기고 대화를 이어간다. 마쿠스는 킹을 넘겨달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용병으로 각자 알아서 생존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에이헵은 현장상황 소리를 올리면서 마쿠스가 다른 곳을 보는 사이 총을 쏘아 버린다. 마쿠스와 에이헵이 교전을 하는 사이 쓰러졌던 로건이 일어나 마쿠스에게 총을 쏜다. 에이헵은 총상을 당한 다리를 압박 지혈하고 총상으로 파손된 반대편 의족을 확인한다. 에이헵은 모니터 장비를 끌고와 다시 설치하고 CIA의 스테이션10을 호출하지만 등장하지 않는다. 에이헵은 "제럴드"(마릭요바역)에게 마쿠스가 배신하여 우리팀을 넘겼다면서 킹은 죽었고 이곳을 곧 폭격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제럴드는 에이헵에게 심호흡을 시키고 킹이 죽었으면 이미 폭격했을 것이라고 말한다. 에이헵이 킹의 손목에 부착된 심박센서를 확인하자 심박이 40으로 생존해 있음을 확인한다. 에이헵은 제럴드에게 킹의 수행원 중 주치의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찾아보라고 한다. 에이헵은 적의 공격으로 분리된 "페드로"(호르세 루이스팔로역)에게 상황을 물어 본다. 에이헵이 드론을 이동시켜 킹의 수행원들의 위치를 파악하고 도주 전에 잡아야 한다고 말한다. 페드로가 수행원 지역에 도착해 총을 겨누며 주치의의 상태를 확인하고 윤지이의 상의에 의사표시를 보고 살려 둘 것을 지시한다. 에이헵이 킹이 총상을 입었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윤지이에게 묻자 윤지이는 알려주면 죽일 것이라고 대답하지 않는다. 5명의 적군의 움직임이 포착될 때 킹의 수행원들이 에이헵의 팀원에게 달려들어 무기를 탈취하려 한다. 페드로가 몸싸움 중에 총을 쏘게 된다. 교전이 시작되면서 윤지이는 킹을 살릴테니 총을 달라고 요구하고 에이헵은 총을 지급한다. 에이헵이 탈출경로를 알려주고 그때 킹의 심정지가 와서 뇌사까지 3분정도 밖에 남아 있지 않았음을 알린다. 윤지이는 주사바늘로 피를 뽑고 정맥을 찾아 식염수를 투여한 후 CPR을 하라고 시킨다. 에이헵이 CPR을 시도하다가 갈비뼈가 부러진 것 같다고 말하고 윤지이는 그래도 계속해야 한다고 말한다. 잠시 후 "킹"(선욱현역)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하고 윤지이는 다시 멈출것이라고 식염수와 O형 혈액을 수혈하라고 하지만 혈액함의 혈액이 모두 경화되어 있음을 발견한다.

에이헵은 직접 수혈하는 튜브를 발견한 후 로건의 혈액형이 O형이라는 것을 확인

하고 에이헵은 수혈튜브를 킹의 팔에 연결하여 로건의 혈관에 연결한다. 로건 또한 총상을 입어 위험하다고 말하고 에이헵은 절대로 둘다 죽게 두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킹의 맥박이 60으로 돌아올 때 맥켄지와 통화를 시도한다. 뉴스에서 킹의 납치는 CIA와 무관하고 사건 주범이 민간군사기업 코드명 에이헵이라고 보도된다. 뉴스 보도와 함께 폭격이 이루어져 지하 벙커가 무너지기 시작한다. 에이헵은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가 군시절 낙하산 사고의 악몽을 꾸다가 바로 깨어난다. 에이헵이 로건의 죽음을 확인하고 페드로와 제럴드를 호출하지만 답이 없다. 에이헵이 비상구를 발견하고 나가려 하지만 다리에 박힌 총상으로 움직이지 못한다. 통신이 복구되면서 윤지이가 모니터로 상처를 보고 총에 맞았는지 물어보고 동맥을 조심해서 탄두를 빼내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에이헵이 탄두를 빼내고 쓰러진다. 윤지이는 에이헵에게 상처를 압박해서 지혈하고 진통제 주사를 놓으라고 말한다. 에이헵이 정신을 회복하고 6년전의 낙하산 사고를 이야기 한다. 군시절 부하가 자신을 덮쳤고 부하는 죽었다고 말한다. 윤지이는 에이헵의 감성적인 스토리를 들을 시간이 아니라면서 서로 조금씩 마음을 열어간다.

이제 남은 렉터16팀의 생존자는 4명이다. 제럴드는 에이헵을 호출하면서 3분의 여유밖에 없다고 말한다. 에이헵은 야간 투시경 착용여부를 확인하고 윤지이에게 통제실로 가서 교전중인 지역의 모든 실내등을 소등할 것을 지시한다. 40분후 에이헵은 맥켄지와 통화를 하면서 폭격이유를 물어본다. 맥켄지는 대통령이 렉터16팀과 킹에 대한 모든 증거를 없애려고 한다면 2차 폭격을 지시했다고 전한다. 맥켄지는 자신도 지휘권이 박탈되어 지원팀마저도 보내기 어렵다고 말한다. 맥켄지는 킹과 함께 살아 나야와 살아날 방법이 있다고 전하고 에이헵은 지원팀을 보내야 살아 나갈 수 있다고 말한다. 맥켄지는 맥그리거 대통령을 설득할테니 킹과 생존하여 구출할 것을 요구한다. 윤지이가 통제실에서 실내등을 차단한 후 야간 투시경을 착용한 팀원들이 통로의 적들을 제거해 나간다. 에이헵은 의사와 함께 돌아오라고 말하고 윤지이는 의무실에서 O형 혈액을 가져온다. 의무실 근처에서 드론으로 적을 발견한 에이헵이 윤지이에게 알리지만 적에게 체포되고 만다. 적은 킹과 팀장의 위치를 물어본다. 헬멧과 두건을 벗은 최현은 전직 렉터16팀의 일원이었다. 최현이 방심하는 사이 윤지이가 다리에 총을 쏘고 의무실을 빠져 나와 에이헵이 있는 곳으로 향한다.

킹의 맥박이 떨어지자 식염수를 다시 손으로 짜기 시작하고 윤지이는 벙커가 무너져 길이 막혔다고 말하고 후미에서 나타난 적이 사격을 하면서 드론마저 총에 맞아 현장상황을 알수 없게 된다. 제럴드가 회담장에 도착해 실탄을 쏜다. 제럴드는 신참이 올때마다 낙하산 이야기를 하는 이유를 물으며 지금 우리가 추락중인데 절대로 손을 놓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바로 그때 전차소리가 들리면서 회담장을 향하여 발포하고 생존한 팀원 모두가 사망한다.

CIA와 통화가 재개되면서 맥켄지와 통화를 시도한 에이헵에게 맥그리거 대통령을 설득했다고 전하고 지원팀이 가고 있다고 말한다. 킹의 심정지가 오고 병커내부가 폭발하면서 구멍이 뚫린다. 윤지의가 무너진 잔해를 넘어 위층으로 올라오고 있을 때 지하에 있던 전차가 에이헵을 발견하고 포를 조준하려 하자 지원팀의 전차가 나타나 적의 전차를 공격한다. 윤지의는 CPR로 킹의 맥박을 다시 복귀 시키고 혈액을 꺼내는데 모두 비어 있다. 윤지의는 수혈중인 튜브를 발견하고 자신의 팔에 연결하여 혈압이 저하되면 주사하라고 하며 주사기를 킹의 주머니속에 넣는다. 적군이 스위트룸을 폭파하고 킹과 에이헵과 윤지의를 향하여 사격을 시작한다. 때마침 지원팀이 도착하여 적을 제거하고 킹과 에이헵과 윤지의를 구출하여 이동을 한다.

맥그리거 대통령은 에이헵을 비밀리에 킹의 구출작전에 투입한 것이라고 말한다. 이로서 맥그리거 대통령의 지지도는 다시 1위를 탈환한다. 킹과 에이헵과 윤지의가 수송기에 도착하고 에이헵은 산모가 난산으로 위험하다는 메시지를 받는다. 맥켄지가 7함대 도착후 언론앞에서 해야할 내용을 준비중이다. 수송기 의사는 킹만 살리려 하고 윤지의에게는 관심을 갖지 않자 에이헵이 총을 빼앗아 의사를 살리라고 말하고 맥켄지도 의사를 구할 것을 약속한다. 갑자기 나타난 중국공군 전투기가 호위 중인 전투기를 격추하고 수송기도 전투기를 피하며 비행도중 공격을 받는다. 수송기 내 군인들이 킹에게 낙하산을 설치하고 요동치는 비행기에서 윤지의가 수송기 밖으로 떨어져 나간다. 에이헵이 낙하산을 착용하고 킹에게 날아가 킹의 주머니에서 주사기를 찾아 윤지의에게로 날아간다. 에이헵은 윤지의에게 주사를 놓고 줄로 묶어 함께 구출한다. 정신을 회복한 에이헵이 윤지의 상태를 확인하는데 반응이 없다. 그러다가 윤지의가 깨어나고 지수가 무사히 출산하였다는 메시지를 받는다. 윤지의와 에이헵이 서로 부축하면서 영화는 끝이 난다.

전쟁도 비즈니스다. 글로벌 군사기업이라는 다소 생소한 PMC의 등장은 관객들의 귀전을 유혹하기에 충분하다. 2013년의 더 테러 라이브가 지상위에서 펼치는 액션 스타일이라면 더 병커는 지하 30미터 아래로 끌어내린다. 그러나 다소 내용면에서 어딘가 빈약하고 설득력이 약하다. 그리스도인은 더 병커에서 무엇을 고민해 볼 수 있을까? 전쟁을 기업적인 측면에서 관리하기엔 무리수가 많다. 전쟁은 위험을 넘어 죽음을 도래하기 때문이다. 죽기 위해 일하는 사회는 어떤 변명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는 것이다. 사람은 전쟁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공동체를 이루는 사회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취하도록 창조되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안전한 율타리안에서 평화를 누리야 할 권리가 있다. 오직 하나님의 병커속에 있을 때 가능한 것이지만 이 세상 모두가 사실은 하나님의 병커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을 뿐이다.